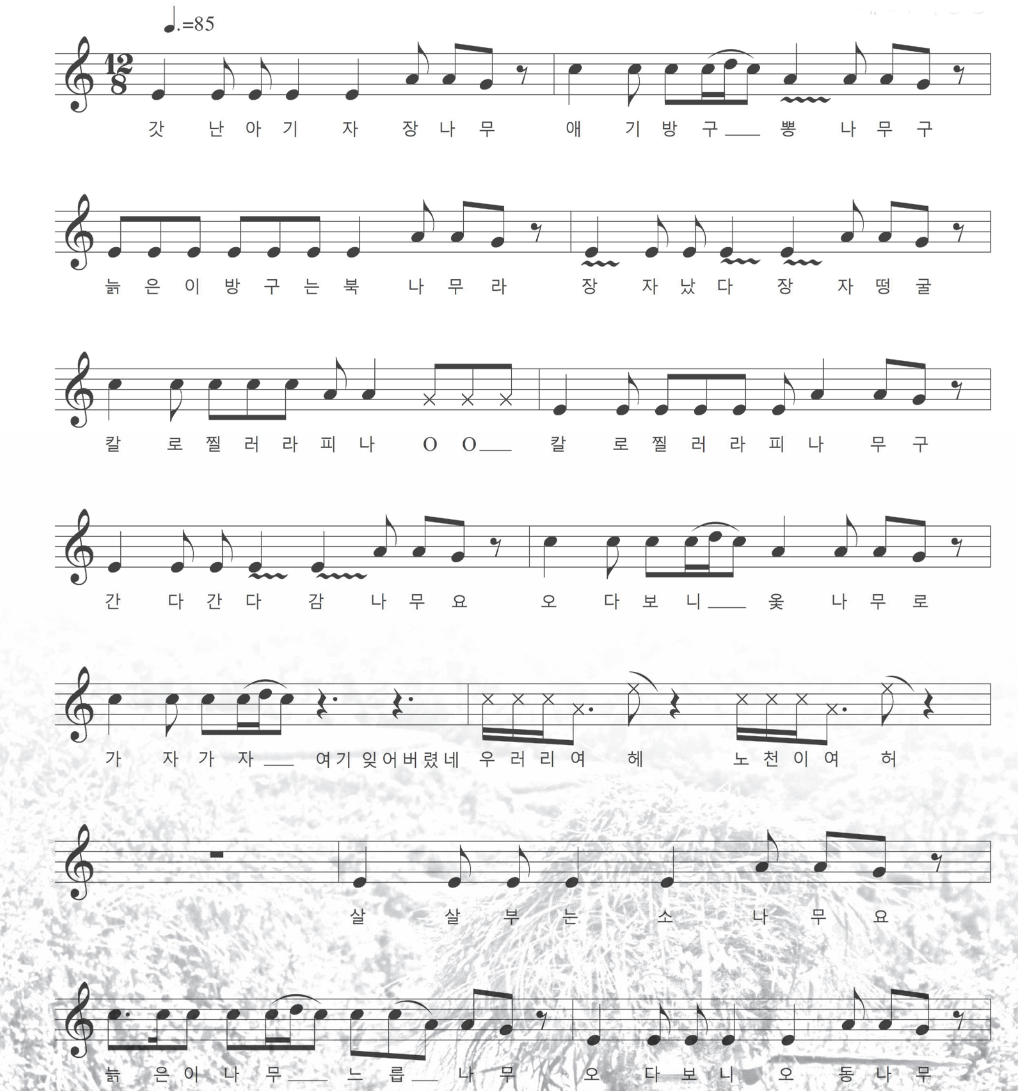
인제 풀써는소리 1



인제 풀써는소리

인제문화원

인제 풀써는소리

김 진 순

인제문화원

김 진 순 金鎭順

1963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다.
한림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MBC 문화방송(주) 『한국민요대전』 상임연구원, 경기대학교 강사 등을 거쳐 현재 ㈜코리아루트 대표이사, 강원도문화재 전문위원,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 비교민속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우리산림의 인문학적 자산』(공저), 민속원, 2013.
『경남민요 100선』, 경남발전연구원, 2013.
『동해안서낭당기행』 전자책, 코리아루트, 2002.
『삼척민속지 1~7』 조사보고서, 삼척문화원, 1997~2008, 전7권.
『한국민요대전』 강원도편(공저), MBC 문화방송, 1996.

인제 풀써는소리

인제 뗏목 소리

인제문화원

발간사

"작두는 게걸작두, 다리는 무쇠다리, 어사났다 광대싸리, 찌많은 참싸리, 둥둥울려라 북나무…" 어린이 말장난 같은 이 소리는 인제 〈풀써는소리〉에 담긴 이곳 사람들의 순수한 동심이고 감성입니다. 나아가 "지렁이 갈빗대"와 "우러리"는 작두에 들어가는 풀을 알려줄 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주요 사설임에도 불구하고 익살과 해학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8월에 발표한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보면 "전통문화의 창의적 역량,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 아래 '우수한 전통문화의 재발견, 가치 창출을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한국인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브랜드 개발・확산' 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정책에서 '핵심가치', '정체성' 등의 문제가 국가브랜드로서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인제 〈풀써는소리〉는 산간지역의 생활환경에서 창출된 이곳사람들의 전통문화입니다. '사시나무, 뽕나무, 북나무, 보소리, 소나무, 물갈나무, 떡갈나무, 광대싸리, 쪼록싸리, 참싸리, 밤나무, 옻나무, 감나무, 개금나무, 오동나무, 향나무, 주목나무, 오리나무, 박달나무, 피나무, 싸리나무, 고로쇠나무, 가죽나무, 엄나무, 잣나무, 다래나무, 소태나무, 전나무, 개똥나무. 느티나무, 가래나무, 자작나무, 등나무, 스무나무, 대추나무, 홍두깨나무, 들충나무, 신탁나무, 동배나무, 버드나무, 가시나무, 느릅나무, 가닥나무…칡덤불, 청오칡, 뱅뱅이, 쑥대, 국시대이, 갈풀, 갈다리, 장자덤불, 가시덩굴'은 인제 〈풀써는소리〉에 등장하는 나무와 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 이상이 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강원도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산간지역입니다. 그리고 〈풀써는소리〉는 강원도에서 유독 많이 불렀던 산간문화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노랫말에서 이처럼 많은 나무와 풀이 등장하는 것은 인제 〈풀써는소리〉가 유일하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한 사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타지역에서는 〈풀써는소리〉의 현장적 상황에 집중하여 일의 진행에만 몰입하는 반면에 인제 〈풀써는소리〉는 다양한 나무나 풀이 등장하고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됨으로써 노랫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풀써는소리〉에 이미 내포되어 있던 익살이나 해학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제〈풀써는소리〉의 이러한 특징은 생태학적 인식이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예전에는 비료가 없어 논이나 밭에 모두 풀을 베어서 넣었습니다. 풀은 마을 사람들이 산에 가서 공동으로 베어 왔으며 이것을 작두로 썰어서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풀은 논에 넣었던 갈풀이 있었고, 밭에 넣었던 작두풀이 있었는데 작두풀은 둘이 딛는 쌍작두로 썰었습니다. 그리고 작두로 풀을 썰 때는 작두를 딛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풀의 상태를 일러주어 작두를 딛는 다리의 힘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풀써는소리〉는 거름으로 만들 풀을 베어서 작두로 썰 때 하는 소리입니다. 작두에 풀을 멕이는 사람 옆에서 썰어야 할 풀을 갈라서 놓아주는 사람이 소리를 했습니다. 가창방식은 주로 독창이지만 '우러리여', '노천이여'와 같이 작두를 딛는 힘의 강약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말은 풀을 멕이는 사람이 반복해서 복창으로 한번 더 일러주기도 합니다. '우러리'는 굵은 나무가 들어가니 힘을 주어 딛으라는 뜻이고, 반대로 '노천이여'는 풀이 없거나 약하게 들어가니 힘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풀써는소리〉는 이와 같이 풀이나 나무를 갈라줄 때, 내용물을 구분하여 딛는 사람에게 힘주는 정도를 알려주기 위한 즉흥적인 구연입니다. 〈풀써는소리〉의 곡조는 대부분 단순하며 말로 외치듯이 부르지만 인제 〈풀써는소리〉는 음악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풀써는소리〉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산림의 상호관계에서 보여주는 생태적 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랫말로 표출되는, 나무에 부여하는 다양한 감성들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올곧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나무를 곁에 두고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나무에 대한 지혜와 친근함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가 늦여름의 저녁 해가 저물도록 울려 퍼졌던 풀썰기의 마당은 일과 놀이가 어우러졌던 마을축제였습니다.

잊혀져가는 기억을 더듬어 〈풀써는소리〉를 들려주신 인제군 6개 읍 · 면의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 차
contents

제1장 머리말 ······ 10

제2장 〈인제 풀써는소리〉의 구연배경 ······ 11

1 지리적 배경 ······ 11
2 농사와 관련된 구연배경 ······ 12

제3장 〈인제 풀써는소리〉의 전승현황 및 특징 ······ 15

1 〈인제 풀써는소리〉의 전승현황 ······ 15
1) 인제읍 〈풀써는소리〉 ······ 15
2) 남면 〈풀써는소리〉 ······ 25
3) 북면 〈풀써는소리〉 ······ 28
4) 기린면 〈풀써는소리〉 ······ 28
5) 서화면 〈풀써는소리〉 ······ 33
6) 상남면 〈풀써는소리〉 ······ 38
7) 2015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인제 풀써는소리〉 ······ 43
2 〈인제 풀써는소리〉의 특징 ······ 47

제4장 〈인제 풀써는소리〉의 음악 분석 50

1 머리말 50
2 인제 풀써는 소리의 음악 분석 50
1) 리듬형과 박자 51
2) 선율의 특징 52
3 타 지역 풀써는 소리와의 비교 53
1) 강원도 삼척 54
2) 강원도 원주 55
3) 강원도 홍천 · 횡성, 경상북도 봉화 · 영양 55
4 맺음말 56

제5장 강원도지역 〈풀써는소리〉의 전승양상 64

제6장 맺음말 76

사진으로 보는 〈인제 풀써는소리〉 현장

부록 2015년 〈인제 풀써는소리〉 조사자료
· 인제군 〈인제 풀써는소리〉 가창자 및 조사내용 86
· 〈인제 풀써는소리〉 조사현장 사례 정리본 109

인제 풀써는 소리

제1장 머리말

인제군은 강원도에서도 산악지역이다. 설악산, 점봉산, 방태산, 대암산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대표적인 산악지역으로, 일상의 노동이 대부분 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이러한 산간노동에서 매우 다양한 산간문화가 발달했다. 그리고 활발하게 전승되었던 산간문화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는 산간노동요에서 잘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민요로 〈인제뗏목아리랑〉, 〈풀써는소리〉, 〈화전밭가는소리〉, 〈미나리〉, 〈목도소리〉, 〈운재소리〉 등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서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써는소리〉, 〈화전밭가는소리〉, 〈뗏목아리랑〉과 같은 산간노동요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풀써는소리〉는 강원도 산간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풀베기의 공동작업은 마을축제였다. 특히 인제군에서 전승되는 〈풀써는소리〉는 풀의 종류와 나무이름를 엮어서 부르는 노랫말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발달했다. 또한 음악적으로도 타 지역에서는 구호나 외침과 같이 단순하게 부르는 반면에 인제 〈풀써는소리〉는 나름대로의 곡조를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인제군의 6개 읍 · 면에서 전승되는 〈풀써는소리〉와 관련 풍습은 서로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특히 〈풀써는소리〉는 마을주변의 산림환경이 똑같지 않다는 점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산에서 베어와 거름으로 썼던 풀이나 나무의 종류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참나무와 같은 종류는 지역마다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거름용 풀이었으나 피나무, 소나무, 박달나무, 가래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등은 〈풀써는소리〉의 노랫말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 나무들이 거름용 풀로 이용되었는가의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다. 이 글은 현재 인제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풀써는소리〉의 전승현황을 6개 읍 · 면의 조사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보고, 각 지역의 〈풀써는소리〉 구연배경이 되었던 풀베기의 풍습과 실제로 구연했던 〈풀써는소리〉들을 분석하여 특징과 가치에 대해 찾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음악적 채보를 통해서 타 지역의 소리와 비교한 음악적 분석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역 〈풀써는소리〉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기존의 조사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2장 〈인제 풀써는소리〉의 구연배경

1 지리적 배경

인제군은 강원도의 동서를 가르는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서쪽에 자리잡은 강원도 영서북부지역이다. 향로봉(1,296m), 설악산(1,708m), 점봉산(1,424m), 방태산(1,444m), 무산(1,320m), 대암산(1,304m) 등 해발높이 1000m 이상이나 되는 산들이 연봉을 이루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군의 전면적 90%이상이 임야로서, 해발 800m이상의 준령이 20여개나 되고, 해발 400m에서 제일 높은 1,708m(설악산)의 산들이 경작면적의 37.2%를 차지하고 있어 산간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배경을 지닌다. 인제군의 산림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착되어 있었고, 산림과의 교류에서 발생되었던 다양한 삶의 방식들은 이 지역의 독특한 고유문화로 자리잡아 대표적인 산간문화 내지는 산림문화를 생성하고 발달시켰다. 〈풀써는소리〉도 그중에 하나이다.

인제군은 동서간의 거리가 51.5Km이고, 남북간의 거리는 72.1Km 이다. 특히 북쪽의 서화면 서화2리는 DMZ와 접해 있다. 군의 동쪽은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서쪽은 춘천시·양구군, 남쪽은 홍천군, 북쪽은 회양군과 각각 접한다. 군의 총면적은 1,936.11㎢이고, 2015년 1월 2일 기준 14,613세대에 32,47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이었던 1995년말 당시 10,521세대에 35,062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점을 비교해 보면 세대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인구수는 오히려 줄어서 우리사회의 변화양상을 잘 보여준다. 설악산, 내린천, 미산계곡, 곰배령 등을 비롯하여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는 강점은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년 전의 인제군 자연마을들 중에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대부분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이 많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풀썰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농업의 경작방법이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편리해진 교통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제군의 백두대간에 자리잡은 진부령(520m), 미시령(826m), 한계령(1,004m) 등은 현재 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인제군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양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풀써는소리〉는 인제군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에서 전승되었던 문화로, 당

1 필자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 MBC방송국에서 시도했던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을 조사하기 위해 인제군의 읍, 면에 자리잡고 있었던 자연마을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시 인제군에서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 경작을 했고 주요 농작물은 옥수수, 감자, 콩, 메밀, 수수 등의 밭작물과 쌀이었다.

그리고 산에서 채취하는 특산물은 산삼을 비롯한 다양한 약초와 꿀, 산나물이다. 특히 산나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점봉산을 비롯하여 군의 크고 작은 산지에서 고사리, 고비, 더덕, 도라지, 두릅, 잔대싹, 뚝갈, 머위, 미역취, 제비쑥 등이 채취된다. 질경이는 큰 산에서 채취하는 나물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귀했던 보릿고개의 주요한 구황식품이었다. 주변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었던 질경이는 아무리 먹어도 부종이라는 부작용이 없어서 질경이국죽, 질경이밥으로 주식을 삼을 수 있었다고 한다.

2 농사와 관련된 구연배경

〈풀써는소리〉는 화학비료가 나오기 이전의 전통적인 농사법에서 반드시 행했던 거름만들기의 문화적 산물이다. 거름은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에 필요한 영양물질이다. 풀을 베어서 거름을 만들었던 방식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고 없지만 당시에 구연했던 〈풀써는소리〉는 일부 농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조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인제군에서는 거름을 '걸금'이라고도 한다. 산에서 거름으로 풀을 베었던 것은 보통 일 년에 두 번이었다. 먼저 소만 무렵에 모를 심기 위해 논에 넣을 갈을 꺾었는데 이것을 '갈풀'또는 '갈꺾는다'고 했다. 이때는 음력 7월에 했던 '작두풀'과는 달리 품앗이로 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품을 사서 많이 꺾었다. 갈풀은 참나무종류의 어린 순을 말하는 것으로 떡갈, 신갈, 졸참, 굴참, 갈참, 상수리나무 등 여섯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도 잎이 크고 넓었던 떡갈은 거름으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제군에서는 보통 '갈'이라 하여 주변 산에 있는 참나무 종류의 어린 순들을 꺾어서 이용했다. 갈을 꺾을 때의 특징은 '갈령'이 내린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갈품의 품삯이 다른 일들에 비해 비쌌다는 점이다.

갈은 꺾어서 산에다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지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덩갈'이라 했다. 갈은 작두로 썰지 않고 꺾을 때부터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대로 논에다 펴고 소 두 마리를 모는 겨리소 쟁기질로 흙과 함께 뒤집어 섞어주었다고 한다. 이후에 물을 대고 써레질을 한 다음에 모를 심었다. 따라서 갈은 벼를 키우던 주요 거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풀써는소리〉가 구연되었던 거름용 풀은 보통 음력 7월에 작업이 이루어진다. 김매기를 모두 끝내놓고 시작하는데 그 시기는 처서 무렵부터 추석 전까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음력 7월에 벤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일부 마을에서는 추석 전까지 계속 했다는 사례도 있다.

풀을 베어서 작두로 썰어두었다가 겨우내 외양간에 넣어서 소똥과 섞어 거름으로 사용했던 풍습은 오래전부터 전승되었던 우리의 전통지식 중 하나이다.

‘한 사발의 밥은 남에게 주어도 한 삼태기의 재는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네 농가에서는 일찍부터 거름 장만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두엄이다.

두엄감으로는 외양간 · 마구간 · 돼지우리 바닥에 깔았던 짚이나 가축의 똥 · 오줌을 으뜸으로 치지만, 풀이나 재 그리고 부드러운 버드나무나 잣나무의 가지를 섞기도 하고, 동물의 털이나 내장 · 쓰레기 등 썩는 것이면 모두 이용한다.

농가에는 외양간 가까이에 반드시 두엄터가 있지만 뒤꼍이나 마당 앞의 그늘에 두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소나 말을 그러한 곳에 매어 두기 때문이다.

두엄더미에는 오줌이나 외양간의 지지랑물(비가 온 뒤 지붕이 썩은 초가 처마에서 떨어지는 검붉은 낙수) 또는 개숫물을 부어서 습도를 유지해 주며 이따금 뒤집어서 고루 썩도록 한다. 두엄터에 지붕을 씌운 두엄간은 지붕이 매우 성글어 비가 내리면 두엄더미에서 썩은 물이 흘러내린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이의 손실을 막으려고 두엄더미 아래쪽에 구덩이를 파서 외양간의 오줌과 지지랑물을 그곳에 모으며, 거기에 쌀겨나 볏짚의 재를 버무려서 거름으로 쓰기도 한다.

외양간의 것을 소두엄, 마구간의 것을 말두엄, 돼지우리의 것을 돼지두엄이라고 하며, 두엄감이 주로 풀일 때는 풀두엄이라고 한다. 풀두엄은 초가을의 농한기에 들에 자라는 잡풀을 베어서 썩였다가 이듬해 봄에 쓴다.

풀 베는 일은 농번기에도 쉬지 않고 했으며, 곳에 따라서는 일정한 날을 잡아서 경쟁적으로 베게 하고 그 결과를 따져서 가장 많이 벤 집에 상을 베풀었으며, 이를 마을 단위로 벌이기도 하였다.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 7월령에는 “거름풀 많이 베어 더미 지어 모아 놓고…….”라고 하였다. 이 노래에서는 2월령에서 검불 따위를 태워서 재거름을 받으며, 3월령에서는 외밭에 많이 주도록 당부하고, 4월령에서는 갈풀로 거름을 장만할 때 풀을 베어 섞도록 권고하였다…….(중략)

조선시대 세종 때는 거름 장만을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그 시행 여부를 감독할 관리를 각 지방에 파견한 일까지도 있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식자층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바, 조선시대에 나온 농서마다 그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그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듯하며, 그와 같은 경향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었다. 농가에서 장만해 온 거름의 종류나 방법은 15세기 초의 ≪농사직설≫이나 18세기 후반의 ≪천일록≫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며, 그러한 상황은 1960년대에 들어와 화학비료가 대량생산되기까지 답습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2]

겨우내 외양간에 깔아서 소에게 밟혀 만든 거름으로 감자, 옥수수, 콩, 조를 심었다. 거름은 다음해 음력 2, 3월에 밭에 내서 거름대로 폈다. 거름을 밭으로 낼 때는 지게에 ‘소코리’를 얹어서 져냈으며 ‘거린대’(거름대)로 폈다. 그리고 소 두 마리를 모는 겨리로 쟁기질을 하여 밭을 갈았다.

특별히 감자씨를 놓는 자리는 소똥거름 보드라운 것을 따로 모아 두었다가 썼다. 즉 풀을 썰 때 섞여서 들어간 나무줄기와 같이 거름이 거친 것은 그대로 밭으로 내서 폈지만 보드라운 것은

2 [네이버 지식백과] 거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씨앗을 놓을 때 쓰려고 따로 준비해 두었다. 거름에 섞인 거친 나무줄기는 오래도록 썩으면서 거름이 되기 때문에 좋았고, 무엇보다도 비탈밭의 토사 유출을 막아주었다. 보드라운 재는 따로 분리해 두었다가 이것으로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다. 감자와 옥수수는 거름을 많이 먹었다.

풀을 썰 때 작두는 사람이 많을 때는 둘이 딛고, 사람이 부족하면 혼자서 딛었다. 둘이 딛는 것은 쌍작두라 한다. 전체적인 구성은 썰어야 할 풀을 안아서 날라다 주는 사람, 풀을 갈라서 놓아주는 사람, 풀을 멕이는 사람이 작두가 있는 곳까지 작업하고, 작두는 둘이 딛어서 풀을 썰고 이후부터 썰어진 풀을 작두에서 꺼내는 사람, 풀더미를 만드는 사람 등 보통 7-8명 정도가 들어갔다. 인원이 많을 때는 작두로 풀을 썰 때 4명 정도가 풀을 멕이는 데 까지 작업하고, 작두는 2명이 딛고, 3-4명이 풀을 끌어내고 풀더미를 만들었다. 썰어야 할 풀의 양과 참여한 인원이 작업의 규모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풀썰기 작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며 역할을 바꾸어서 일하는데, 가령 작두를 딛는 사람은 힘들어서 계속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교대해 주는 식이었다.

〈풀써는소리〉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풀을 멕이는 사람 옆에서 풀을 갈라주는 사람이 구연했다. 풀을 작두에 멕이는 사람이 구연한다는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멕이는 사람은 힘들고 위험해서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풀을 갈라주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무의 종류를 알려주었으며 특히 힘을 써서 딛어야 하는 굵은 나무가 들어갈 때의 "우러리"라는 소리와 너무 힘을 주어 딛게 되면 발을 삘 수도 있는 순수한 풀만 들어갈 때의 상황은 반드시 알려주었다고 한다.

제3장 〈인제 풀써는소리〉의 전승현황 및 특징

1 〈인제 풀써는소리〉의 전승현황

1) 인제읍 〈풀써는소리〉

(1) 원대리 조사내용[3]

산에서 베어오던 풀은 갈풀, 썰풀, 깨끼풀 등이 있다. 갈풀은 소만 무렵 모심기 전에 갈을 꺾어서 논에다 넣었던 것으로 '갈 꺾는다'고 했다. 썰풀은 작두풀이라고도 하는데 음력 7-8월 잎사귀가 살아있을 때 베어 와서 작두로 썰었던 풀이다. 이 풀은 주로 밭거름으로 이용했으며, 겨우내 마굿간에 깔아주어 소에게 밟혀 가지고 거름으로 만들어서 봄에 밭에다 냈다. 썰어놓은 풀을 마굿간에 깔아주면 잎사귀 같은 것은 소도 많이 먹는다. 풀에 섞여있는 나무줄기도 거름으로 나갔는데 특히 팔뚝같이 굵은 나무들은 비탈밭에서 비가 올 때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었다. 또한 오래 썩는 것은 삼년정도 썩었고 그 과정에서 느타리버섯 같은 것이 피기도 했다. 풀은 둘이 딛는 쌍작두를 이용하여 30cm정도의 길이로 썰었다. 깨끼풀은 음력 9-10월 단풍이 들려고 할 무렵에 베었던 소먹이용 풀이다. 따라서 나무는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소가 먹을 수 있는 '새초, 안들미와 같이 무른 것'만 베었다. 이 풀은 산에 있는 묵은 화전밭에서 많이 베었다. 화전은 묵히면 풀이 잘 자랐는데 거기서 풀을 베어 한단씩 풀끝을 묶어서 세워두면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았다. 이 풀은 소먹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했던 풀이다.

마을에는 논이 많았는데 주변에 있는 산들은 거름 때문에 봄부터 계속 풀을 해오는데다 땔나무까지 하는 바람에 지금처럼 큰 나무가 없이 항상 벌겋게 드러났다고 한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홍수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풀을 베어도 밑둥과 뿌리가 남아 이듬해 새순을 피우면 그것을 또 베어 와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때는 산에 가면 굵은 나무가 없는 대신에 새발고사리를 비롯하여 온갖 산나물과 약초가 자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숲이 너무 우거져서 이러한 약초나 산나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갈은 소만을 앞두고 갈령이 내리는데 마을마다 날짜를 정해주었다. 갈령이 내렸던 이유는 살림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품을 많이 사서 다 꺾어버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근처에 풀이 없어 먼 곳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을 막아주기 위함도 있었다고 한다. 갈은 낮은 지대부터 잎이 피기 시작하여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갈령도 이것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날짜를 달

3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심홍규(남, 80세)/ 2012년 9월 15일 조사

리해서 내렸다. 갈은 주로 품을 사서 꺾었는데 품삯은 쌀 한말로 비싼 편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갈품이 비쌌기 때문에 원대리를 비롯하여, 김부리, 정자리, 갑둔리 등으로 갈품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썰풀은 마을에서 10명이상 20명 미만의 규모로 조직하여 품앗이로 하였다. 갈도 그렇고 풀을 하러 가면 날이 새기도 전에 가서 조반(아침식사) 전에 두짐씩 해왔다. 보통 일곱짐을 해오고 나면 한나절이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8-9명은 먼저 작두로 썰었다. 나머지는 계속 풀을 베어왔다. 농토가 없거나 화전민들은 품값을 받고 일했으며, 주로 화전민들이 많았다. 즉 품앗이로 한 풀이 모자랄 정도로 농사의 규모가 컸던 사람들은 품을 사서 했다.

작두로 풀을 썰 때는 한 작두에 7-8명이 들어갔는데 풀을 안아서 날라다 주는 사람, 풀을 갈라서 놓아주는 사람, 풀을 멕이는 사람, 작두를 딛는 사람 두명, 썰어진 풀을 쳐내는 사람, 풀더미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다. 풀을 갈라주는 사람이 소리를 했다. 간혹 힘을 주라는 소리 '우러리'가 들어갈 때나, 슬쩍 딛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풀을 멕이는 사람이 반복해서 외쳐주기도 한다. 하지만 풀을 멕이는 사람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소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풀을 갈라주는 사람은 굵은 것은 두서너개, 무른 것은 한 아름 등 풀의 양을 조절하며 주었다. 풀을 끌어내는 사람은 30cm이상 되는 길이의 막대 두 개를 끈으로 연결하여 놓고 이것으로 작두에서 풀이 썰어질 때 미리 풀을 잡고 있다가 썰어지면 집어서 쳐냈다. 그래야 풀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쳐낸 풀은 한 사람이 거린대로 떠서 풀더미로 올려주면 풀더미에 올려간 사람은 쇠스랑으로 펴면서 풀더미를 쌓았다. 풀더미는 돌려가며 이쁘게 쌓아 올라갔다.

〈풀써는소리〉는 손에 옮겨지는 나무마다 노랫말이 붙여지므로 다양한 나무 종류만큼이나 노랫말도 풍부했다.

엄불덤불 칡덤불이로구나
마긋간에 소나무다
엄불덤불 청오칡
이참저참 새참이로구나
그렇지라도 맘 놓지 말고
다리는 두껍다리
작두는 게걸작두
우러리다
양다리 힘껏 올리고 힘을 내라
잘한다 잘해 그렇지
둥둥울려라 북나무
방귀꼈다 뽕나무다
작두는 게걸작두
다리는 무쇠다리

원대리 논과 주변의 산

벌벌떠는 사시나무
양지짝 보소리
음지짝 물갈
아닌밤중 떡갈나무
어사났다 광대싸리
마당씰어 쪽싸리
곶감꽂이 참싸리
밤이믄 밤나무
온다고 옻나무
간다고 감나무
우닥닥뚝딱 개금나무
기생났다 오동나무
초상났다 향나무
천녀만년 주목나무
십리안짝 오리나무
박달뚝달 홍두깨방망이
칼로찔러 피나무
곶감꽂이 싸리나무
뱅뱅이 쑥대
지렝이 갈빗대
양양강릉 곶감꽂이
혼인대사 국시대이
막중대사 떡갈나무

싸리나무

· 작두는 게걸작두: 풀이 잘 썰어지는 것을 게걸스럽게 잘 먹는 것으로 표현
· 다리는 쇠꼽다리: 쇠꼽(무쇠)다리라야 작두를 잘 딛는다고 하는 소리
· 우러리: 굵은 나무를 말한다.
· 노천이여: 풀을 미처 갖다 놓지 못해 없을 경우이거나, 작두에 풀이 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부른다. '우러리'와 '노천이여'는 작두를 딛는 힘의 강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소리로 이때는 풀을 멕이는 사람이 복창으로 반복하여 받기도 한다.
· 혼인대 국시대이: 결혼 잔치에서 국수를 먹는 풍습과 관련된 표현.
· 막중대사 떡갈나무: 초상이 났을 때 떡을 해 먹는 풍습과 관련된 표현.

〈풀써는소리〉는 입담이 좋고 생각이 빨라야 잘 부를 수 있다.

풀을 다 썰고 나면 작두를 끌면서 놀린다. 디딤돌에 묶어서 작두를 디딜 때 잡았던 줄 2개를 잡고 서로 앞뒤로 당기면서 장난처럼 노는데 앞으로 끌려가면 황소이고, 뒤로 끌려가는 암소라 한다. 작두를 끄는 것은 소를 끄는 것과 같다고 한다. "앞으로 끌면 황송아지요 뒤로 끌면 암송아지다"

풀을 할 때 해주었던 음식은 칡떡과 옥수수국수(올챙이묵)였다. 그리고 옥수수막걸리를 담궜다.

원대리에서는 2012년 9월 21일 실제로 마을에서 풀을 썰며 시연을 한 적이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현장민속심사에 참가하게 된 것이 계기였는데 처음에는 마을에 작두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풀을 썰었던 날은 동네사람들이 대부분 참가를 하였는데 남자들은 풀을 베어 와서 작두에 썰었으며, 여자들은 한쪽에서 찰옥수수 반죽으로 칡떡을 굽기도 했다.

이날 작두에는 15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 작두를 가운데 두고, 앞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풀을 날라다 주는 사람 3명, 풀을 갈라주는 사람 2명, 풀을 멕이는 사람, 작두를 딛는 사람 2명, 썰어지는 풀을 작두에서 끌어내는 사람 1명, 풀을 쳐내는 사람 2명, 풀더미로 풀을 옮기는 사람 2명, 풀더미를 만드는 사람 2명 정도가 들어갔다. 이는 보통 한작두에 7-8명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에 비하면 두배의 인원이 참가한 것이다.

〈풀써는소리〉는 심흥규가창자가 풀을 갈라주며 구연했다. 실제로 풀을 썰면서 소리를 할 때는 사설이 매우 단순했고, 베어온 풀도 근처 야산에서 주로 풀 종류를 베어왔기 때문에 나무를 보고 엮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방안에 앉아서 구연했을 때 보다 사설은 매우 단순했다. 더군다나 실제로 쌍작두를 딛어서 풀을 썰었던 적이 30여 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매일 풀을 썰면서 구연했을 때와는 다르다고 한다.

이날은 ㉠산에서 풀 베어오기 ㉡숫돌에 작두날 갈기 ㉢작두고사 ㉣풀썰기 ㉤작두놀리기(작두끌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작두고사와 작두끌기, 마을의 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남녀노소 함께 이 음식을 나누며 즐기는 것을 보고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풀을 하는 날은 마을축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 합강리 〈풀써는소리〉[4]

여러분들 풀꾼님네
거름퇴비를 만들어보세
한번썰어 퇴비하고
두번썰어 거름하니
오곡이 풍년일세
아홉해흉년이 다지나가고
십년대풍이 돌아를왔네

참나무 상수리나무

4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91(합강2리 5반) 김종식(남, 71세)/ 2015년 12월 4일 조사

작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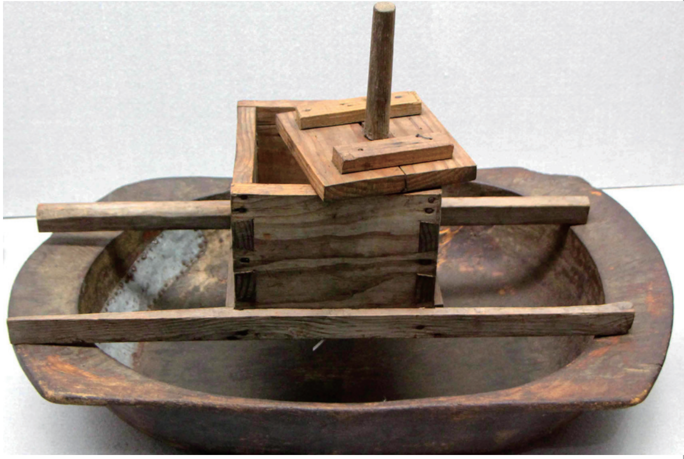
신농씨에 본을받아
쌍작두를 차려놓고
작두는 게걸작두
다리는 무쇠다리

(자 이렇게 풀 썰 준비를 했으니 슬슬 풀을 썰어보세)

잎이 무성하게 자란 참나무

노천우러리 썰어볼때
산천초목도 이름이있는데
장생불사 고로쇠나무
천년만년 주목나무
왔다갔다 가죽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엎어졌다 엄나무요
자빠졌다 잣나물세
사탕물어 다래나무
벌벌떠는 사시나무
칼로찔러 피나무라
마굿간에 소나무요
송아지낳다 소태나무
양지짝 보소리요
응달짝 물갈이로다
일시도 맘놓지마라
아가리딱딱 벌려라
아름드리 들어간다
메기기도 잘메기고
딛기도 잘딛는다
혼인대사 국수대요
막중대사 떡갈나무
아닌밤중 밤나무요
사시사철 전나무요
워리불러 개똥나무
정자좋아 느티나무

여러분들 풀꾼님네
이참저참 새참인데
열무김치 오조밥에
막걸리한잔 하고하세
막걸리한잔 들고하세
막걸리한잔 먹고하세
감자전이 안주를먹고
올챙이묵이 배를채우니
우라리가 들어와도
눈만끔쩍 짤라지고
노천이가 들어와도
입만실쭉 끊어진다


올챙이묵 틀과 함지

(자 이렇게 참도 먹고 배를 채웠으니 힘을 내어 마저 풀을 썰어보세)

무름찬 노천이요
엄불덤불 칡덩굴이요
띠끔때끔 가시덩굴
댕댕이 쑥댕이요
지렁이 갈비대로다
둥둥울려라 북나무요
방구뀌었다 뽕나무라
천식고뿔 가래나무
아기재워 자작나무
잘도잔다 잣나무라
어깨너머 등나무요
어사났다 광대싸리
마당쓸어 쪼록싸리
양양강릉 꽂감꽂이
참싸리로구나 참싸리요
일시도 맘놓지마라
아가리딱딱 벌려라
아름드리 들어간다
메기기도 잘메기고
딛기도 잘딛는다
십리바깥 스무나무
온다고 옻나무요

참나무숲이 무성한 늦여름의 산

간다고 갈풀이라
초상났다 향나무요
제사곶감 대추나무
우라리요 우라리야
우다닥뚝딱 개금나무
박달뚝딱 홍두깨나무
들었다놨다 들충나무
시내강변 갈다리라
풀꾼들은 지게를지고
소리꾼은 소리를주니
디딜꾼은 신이나서
빈작두를 들었다놨다
쇠스랑거린대가 춤을춘다
풀더미가 태산이니
광문이 열렸구나
얼씨구좋다 풍년이요
절씨구좋다 풍년일세
이리보아도 풍년이요
저리보아도 풍년이로세
올해도 대풍이요

거린대(거름대)

(풀꾼님네! 풀 써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작두놀이를 합시다)

오늘날은 이집이하고
내일날은 저집이하니
집집마다 풍년이요
동네마다 풍년일세
앞으로봐도 풍년이요
뒤를봐도 풍년이요
옆으로봐도 풍년이요
돌아봐도 풍년일세
풍년일세

원대리 마을사람들의 작두놀이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나갔을 때는 직접 풀을 썰면서 시연하기가 힘들어서 따로 소리만 했다. 그 당시는 선창과 후창으로 나누어서 구연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장생불사 고로쇠나무”하고 선창을 하면, “고로쇠나무”하고 복창으로 받았다.

이 소리는 원대리 심홍규씨가 고증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배워서 부른 것이다. 따라서 원대리 심홍규가창자가 구연한 것과 비교하면 재구성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홍규가창자는 말로 하듯이, 구호를 외치듯이 구연한 반면에 김종식가창자는 일정한 곡조를 넣어서 구연했다.

(3) 고사리 조사내용[5]

〈풀써는소리〉는 들어가는 나무에 따라 부르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반복되기도 한다. 같은 나무가 들어오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 했던 〈풀써는소리〉는 단순하며 계속 반복된다. 나무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 소리도 따라가고, 연한 것인가 큰 나무인가를 구분해서 소리를 준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큰나무가 들어가면 "우러리여"다리에 힘줘라 하고, 덩굴이 들어가면 "엉쿨덩쿨", 큰나무가 섞이면 "우러리", 국싯대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국싯대나무 들어간다"하고, 연하고 이런 거는 "지렝이 갈빗대"라 한다. 그리고 신탁나무가 들어가면 "무당이 났구나 신탁나무가 들어간다", "오도독뚝딱 개금나무 들어간다", 쑥대 큰 것이 들어가면 "빵대 우러리여", 연한 풀들은 "지렝이 갈빗대다", 신갈나무 이런 거는 크게 안하고 다만 큰 나무가 들어가면 "우러리"라 한다. 싸리나무도 가는 것은 "지렝이 갈빗대"라 한다. 광대싸리, 쪼록싸리, 참싸리 다 마찬가지이다. 가는 것은 '지렝이 갈빗대'이고 굵은 것은 '우러리'다. 풀을 빨리 놓으라고 할 때는 "노천이요"한다.

어 노천이요
어 우러리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어 빵대 우러리여
엉쿨덩쿨
어 칼로 찔러 피나무
방귀꼈다 뽕나무
어 우러리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어 양다리 힘줘라
어 빵대 우러리 들어간다
어 무당이 났구나 신탁나무 들어간다
어 오도독뚝닥 개금나무다
칼로 찔러 피나무
방귀꼈다 뽕나무

떡갈나무

5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텃말 고사리장 이태성(남, 1947년생)/ 2015년 11월 13일 조사

둥둥 울려라 북나무
어 우러리 들어간다
개다리 힘줘라
어 개금나무 들어간다
어 무당이 났구나
어 신탁나무란 말이지
어 빵대우러리 들어간다
어 양다리 힘 올랐구나
어 방귀꼈다 뽕나무
개다리 힘 줘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칼로 찔러 피나무 들어간다
어 방귀꼈다 뽕나무구나
오도독똑딱 개금나무다
어 둥둥 울려라 북나무구나
어 무당이 났구나
신탁나무란 말이지
어 양다리 힘올랐다
어 빵대우러리다
지렝이 갈빗대
한아름 들어간다
어 양다리 힘줘라

처마 밑에 세워둔 지게들

작두/'아가리 딱딱 벌려라'는 들어 올리라는 뜻〉

이런 식으로 나무에 따라 조금씩 바꿔가며 반복한다. 실제로 하면 좀 다르다.　나무는 개금나무, 신탁나무, 국숫대, 쑥대, 억새, 우러리(큰나무), 북나무, 피나무, 뽕나무, 굴참나무, 광대싸리, 쪼록싸리, 참싸리 등이다.

소리를 하며 풀을 멕이면 작두를 딛어 "퍽"소리가 나는데 풀을 멕이며 하는 소리와 작두가 풀을 써는 소리가 맞물려 서로 박자가 맞는다. 풀을 멕이는 사람이 소리를 같이 한다. 풀을 놓는 사람이 "우러리"라 하면, 풀을 멕이는 사람이 "우러리"라고 받아서 반복하기도 한다. 작두를 딛는 사람은 큰 나무가 들어오는 소리 "우러리"라 하면 힘을 주어 딛는다. 풀은 한아름씩 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풀을 놓거나 멕이는 사람은 큰 나무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작두를 딛는 사람은 풀과 섞여서 한아름씩 들어오기 때문에 눈으로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술을 한잔씩 먹고 할 때는 손을 다치기도 하지만 노랫말에 '조심해라'이런 말은 잘 나오지 않는다. 풀써는소리는 딛는 사람을 위해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작두에 들어가는 풀이 부드러운 것인지 아니면 굵고 큰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여기에 따라 딛는 사람이 힘의 강약을 조절한다.

작두를 딛는 사람이 눈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작두에 들어가는 풀이 한 아름씩 되는데 그 속에 굵은 나무들이 섞여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풀을 다 썰고 작두를 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풀은 7월, 8월에 했다. 풀은 각자가 흩어져서 사방에서 지고 오기 때문에 같이 소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고사리는 한창 풀을 할 때 순깨(1반)에 15집, 텃말(2반) 50집, 피아시(3반) 10집, 장수터(4반)10집 등이 살았다. 풀은 마을별로 서로 품앗이를 했다. 풀을 제일 많이 한 곳은 순깨와 텃말이다.

마을에서 품앗이로 돌아가며 풀을 할 때는 여러 집이 어울려서 했는데 이것을 '두레를 짠다'고 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할 때는 집에서 먹을 것이 준비가 된 집부터 순서를 정해서 했다. 즉 순서는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텃말에서 풀을 할 때는 주변 산에서 해왔으며, 마을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라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었다.

두레는 보통 10여집이 돌아가며 품앗이로 했다. 둘레를 짤 때 참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농토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땅이 많고 여유가 있는 집들이 했다.

순깨는 3-4집 정도가 품앗이를 했다.

집에서 풀을 하지 않는 집은 품값을 받고 일했다. 즉 풀이 많이 필요한 집들은 품을 사서 하거나 다른 일로 품앗이를 해주었다. 농사는 많아야 3000-4000평 정도였다. 논에는 모심기 전에 갈을 꺾어 넣었다.

풀을 할 때는 새벽에 날이 새면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한짐 해오는 것으로 시작하여 보통 한명당 하루에 5-6짐 정도 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작두로 썰기 시작했다. 풀은 집에서 가까운 주변 산에서 베어 와야 쉽게 일할 수 있었다.

풀을 할 때 집에서 준비하는 술은 옥수수 막걸리를 두말 이상 담그는데 술이 익는 시간은 3-4일 정도 걸린다. 음식은 잡곡을 섞어 밥을 하고, 올챙이묵, 칡떡도 한다. 칡떡은 찰옥수수를 갈아서 칡잎에 싸서 찐다. 막걸리 안주로 부침종류는 별로 하지 않았다. 아침, 점심은 밥을 주었다.

소나무는 퇴비로 거의 안한다. 이 동네에서 퇴비로 제일 많이 했던 나무는 참나무이다. 굴참나무는 굴피 뜨는 것이고, 졸참나무는 도토리가 맛있다. 모두 도토리가 다르다. 졸참나무 묵이 쫄깃쫄깃하다. 거름용 풀로 이용했던 참나무는 모든 종류가 다 해당된다. 참나무는 따로 노랫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은 '지렝이 갈빗대'이고, 낫자루 정도 커도 퇴비로 하는데 이 이상이 되면 "우리리여"한다. 활엽수는 다 거름이 되었지만 침엽수는 안되었다. 억새를 비롯하여 풀은 있는대로 다 비었다.

한창 퇴비증산을 할 때는 인제군에서 주최하는 풀베기 대회가 있었으나 작두로 써는 것은 없었다. 풀은 1970년대 중반까지도 했으며, 화학비료가 나오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는 아예 없어졌다.

〈풀써는소리〉는 그냥 일하면 심심하기도 하고, 풀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풀써는소리〉는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해야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그냥 앉아서 하면 나오지 않는다. 풀을 보아야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마을은 산의 능선을 경계로 상동리와 갈라지며, 원대리, 남북리와 경계를 이룬다.

2) 남면 〈풀써는소리〉

7월에 하는 풀은 작두풀이라 했다. 풀은 한작두꾼이었던 일곱명이 품앗이를 하였다. 풀을 썰 때 한명이 날라다 주고, 한명은 풀을 나누어 갈라주고, 한명은 풀을 작두에 멕이고, 두명이 작두를 딛고, 한명은 썰어진 풀을 50-60cm길이 정도의 막대기 두 개를 이용해서 쳐내는데 풀이 썰어질 때 나무줄기가 튀어 오르기 때문에 재빠르게 눌러서 쳐냈다. 풀가리는 한명이 만들었다. 이렇게 일곱명이 한작두꾼이었다. 풀은 30cm 정도의 길이로 잘랐다. 풀이 마구 엉켜있고 해서 날라다 주는 사람 외에 가려서 놓아주는 사람도 필요했는데 멕이는 사람한테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대주었다. 그리고 풀가리는 빙빙 돌아가며 쌓아 올렸다. 나중에는 위쪽으로 치뜨려서 올려주어야 하는데 풀가리에 올라간 사람이 가장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다. 풀가리는 위에서 풀을 받아 빙둘러가며 뾰족하게 쌓아 올라간다. 작두를 딛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 풀을 멕이는 사람도 딛는 사람만큼 힘들지 않다. 풀을 멕이는 사람이 소리를 하며 멕인다.

어러 우러리여
일시도 맘놓지말어라
지렝이 갈빗대
꾀많은 참싸리
손님왔다 국시댕이다
부자났다 장자덩굴
아나믄 동배나무
어러 우러리여
(하면 이런 팔다리 같은 통나무가 들어가도)
일시도 맘놓지말어라
우러리가 들어간다
지렝이 갈빗대
(그건 무르한기 들어간단 얘기여)
일시도 맘놓지 말어라
지렝이 갈빗대
꾀 많은 참싸리
손님왔다 국시댕이다
부자났다 장자덩굴
일시도 맘 놓지 말어라
지렝이 갈빗대다
꾀 많은 참싸리다
방귀꼈다 붕나무

밭에 거름 져 내기

작두로 썬 풀은 소똥과 섞여서 밭거름이 된다

("그전에는 걸금이 없어 마구에 넣으려고 풀을 이만큼씩 썰지. 그전에는 나도 많이 메겼지. 저기서는 자꾸 셍겨주지 그러면 들이밀고 들이밀고...")

참싸리나무는 아주 야물어서 '꾀 많은 참싸리'라고 했다. '지렁이 갈빗대'는 쑥대와 같이 물렁한 것이 들어간다는 소리다. 풀은 쑥 외에도 개구장풀을 포함하여 잡풀도 모두 베어왔다.

나무는 싸리나무, 물푸레나무, 동배나무, 참나무, 멀구덤불, 다래나무, 황경나무 등이고 조록싸리나 광대싸리는 별로 없었다.

황경나무(황벽나무)는 겉껍질을 벗기면 속껍질이 노랗게 생겼으며, 사람이 죽어서 관을 묻을 때 깔았던 홍대로도 많이 썼다.

'어러 우러리여'하면 큰 나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두를 둘이 딛어서 힘을 주어 꽁꽁 썰어서 잘랐다. 그러면 이것을 겨우내 소를 밟혀서 거름으로 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것들이 밭에 나가 검버섯이 돋으면 곡식이 잘된다고 했다. 일곱이 꼭 한작두꾼이다. 풀은 음력 7월에 했다. 스무살 무렵에 풀을 할 때는 컴컴해서 나가 옥시기(옥수수) 삶아먹고 올챙이묵 먹어가며 풀을 하는데 일곱짐을 해오면 작두에 썰었다. 썬 풀을 쳐올려 가려서 풀가리를 만들어놓고 겨우내 마굿간에 깔았다. 저녁에 나무등거리(굵은줄기)같은 것도 깔아놓았다가 아침에 쳐내는데 예전부터 이런 것에 검버섯이 피면 곡식이 그만큼 잘되었다는 말이 있다. 그전에 비료가 없으니 아궁이에 불을 때고 나온 재도 화장실에 갖다 부어서 인분하고 섞이면 거름으로 이용해서 감자를 심었다.

풀은 순 나무줄기가 많은 '뼉다구'이지만 이것도 마굿간에 넣으면 거름이 잘되었다. 거름에 있던 큰 나무가 썩으면서 버섯이 돋으면 그만큼 곡식이 잘되었기 때문에 '검버섯이 돋으면 곡식이 잘된다'는 말이 있었다. 풀에 섞여서 들어간 나무가 굵은 것은 썩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듬해 썩을 때 곡식이 더 잘되었다. 즉 첫해는 생생하여 잘 썩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썩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거름이 더 잘된다. 그리고 김을 맬 때 나온 잡초들을 흙에다 그냥 둔 것은 장마 때 살아나지만 거름으로 펴놓았던 나무토막들 위에 올려놓은 것은 말라서 죽기 때문에 김매기도 수월했다.

풀은 매년 한다. 밭은 거름을 계속 내니 밭의 토양이 걸어진다.

봄에 갈을 꺾어 넣을 때는 갈령을 내렸다. 소만에는 갈이 조금 어리고 한 열흘정도 지난 후에 꺾었다. 갈을 꺾을 때는 '갈꾼'들을 사서 꺾었는데 논이 많으면 7-8명을 사서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나갔기 때문에 산으로 가도 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갈을 꺾을 때는 지게에 짚세기를 매달고 지게초리는 피나무껍질을 벗겨서 꼬아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갈을 묶었다. 그때 갈품은 '꺼청배'한말을 주었는데 쌀이 서되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였다. 꺾어서 말린 갈을 '덩갈'이라 했는데 이것을 백단을 꺾어서 논에다 져다 주어야 품값으로 쌀 한말을 주었다. 덩갈은 네웅큼이 한단이다. 갈은 높은 곳에 가서 꺾어야지 갈령이 나기 전에 산 아래쪽에서 꺾다가 들키면 혼이 났다. 갈은 꺾어서 말린 다음에 논에다 져다 주어야 했다. 갈나무는 떡갈을 비롯하여 참나무는 모두 해당되었다. 덩갈은 백단을 지고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이 덩갈 백단을 지게에 지고 가면 갈더미가 굴러가는지 사람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덩갈은 갈을 꺾을 때부터 오른쪽으로 한줌, 왼쪽으로 한줌해서 모두 네 웅큼을 꺾어놓는데 이렇게 하면 잎이 바깥으로 향하고 줄기가 안으로 모이게 되며 이것을 묶어서 한단으로 만든다. 산에서 갈이 좋은 곳으로 가면 하루에 덩갈 백단을 꺾을 수 있지만 갈이 적은 곳은 50단도 힘들

다. 주인집 논배미에 덩갈이 들어가야 품삯을 줬다. 갈령은 소만을 한 5일 앞두고 내렸다. 갈령을 내리기 전에 미리 꺾으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도 힘들었지만 가을에 추수를 하면 곡식을 많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먹을 것이 귀해서 하지에 어린 감자를 캐서 끼니를 때우거나 보리를 이삭채 베어와 썰어서 가마에 볶아 범벅을 개어서 먹었다.

농사 시기는 마을에 절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알려줬다.

걸금(거름)은 소쿠리로 져서 냈다. 그리고 소 두 마리로 밭을 갈았다. 하루갈이는 천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골만 타는 이랑을 낼 때의 상황이다. 처음에 생땅을 모두 뒤집어 물렁하게 만드는 것은 '접밭'으로 이것은 하루에 500평밖에 못간다. 하루갈이는 아침에 나가서 갈다가 점심 때 들어와 여물 먹여서 다시 나가 갈았을 때의 상황이다. '이러 마라라 어디로 가나 제곬으로 어후'하고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엉덩이부터 돌게 한다. 나무는 석단이 한짐인데 열단씩 만들어 놓으면 소발구를 이용해서 실어왔다. 발구는 참나무로 만들었다.

소가 말은 못해도 사람 말은 다 알아듣는다. '마라마 어디루 나가나 제곬으로 가'하면서 채찍을 툭툭 치면 제골로 간다. 비탈밭은 '비탈이니 알아서 나가라'하면 그대로 했다. '이러 마라 안야 안야 안야'가 주로 나오고, '방뎅이 걸리라'하던 것은 비탈의 화전 밭을 갈 때 하는 소리다. 밭을 갈다가 할 소리가 없어서 '어러 해', '속곳 가닥 열두가락', '나가만 보잔다'해서 웃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 봄에는 감자를 제일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심었다. 화전에는 조를 많이 심었다. 콩은 사월 초파일 지나야 심었다. 그전에 갈꾼들이 갈 꺾으러 다닐 때 콩대가리 밟고 다녔다. 모는 망종에 심었으며, 하지에 심으면 이른 모였다.

메밀은 삼복에 심었는데 월복에 메밀을 심어야 잘되었다. 삼복은 월복과 재복이 있는데 월복은 30일이고, 재복은 20일이다. 메밀을 심을 때는 월복, 재복을 알아서 재복일 때는 초복에 심고, 월복일 때는 중복 무렵에 심는다. 메밀은 심을 때보다 먹을 때를 따져서 심는다.

풀은 음력 7월에 삼하고 나서 풀을 했다. '작두풀'이라 했다. 풀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각자의 농토가 얼마큼 되는가를 따져서 풀꾼을 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풀을 하는 날은 새벽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한짐 지고 오면 밀가루로 칼국수를 해서 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짐을 지고 오면 조반(아침식사)으로 밥을 해주었다. 보리밥에 외짠지, 배차짠지였다. 막걸리는 옥수수막걸리였다. 다시 두 짐을 해 온 다음에 점심으로 밥을 먹었다. 밥은 주로 보리밥이었으나 잘사는 집은 좁쌀에 쌀을 섞어서 해주기도 했다. 칡잎떡은 점심 때 해주었다. 풋강냉이를 갈아서 만든 반죽을 칡잎에 편 다음에 속에다 강낭콩을 넣고 반으로 접어서 쪘다. 올챙이묵은 저녁에 해주었다. 점심 먹고 한두짐 해온 다음에 썰었다. 저녁 전노리(새참)는 따로 없고 막걸리만 내주었다.

작두로 썰 때의 각자 역할은 힘이 좋은 사람은 알아서 작두를 딛거나 하고 정해진 것은 없었다.

정자리에서 풀을 베었던 골은 작은중숭골, 큰중숭골, 숯가마골, 멧골 등이다. 기정골에서 풀을 많이 했고 애막골도 다녔다.[6]

6 인제군 남면 부평리 7반 정성국(남, 86세), 이산옥(여, 85세)/ 2015년 12월 4일 조사

3) 북면 〈풀써는소리〉

산에 가서 떡갈나무 잎사귀 꺾어다 넣어 비료 대신 썼다. 봄에는 그냥 “갈 꺾는다”했고, 7월에는 ‘풀을 베었다’예전에는 음력 7월에 동네에서 집집마다 품앗이로 풀을 베었는데 동네사람 한 분이 풀더미에 올라갔다가 뱀에 물려 죽었던 일이 있었다. 풀을 썰땐 작두에 넣으면서 남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작두에는 11명이 달려들어서 작업했다. 풀은 갈하고 쑥이 많았다.

풀 벨 때 밥은 보리밥을 해줬다. 막걸리 담궈서 걸러주고, 열무김치, 배차김치 안주로 주었다. 술은 보리쌀로도 담그고 쌀로도 담궜다. 예전에 보리와 참밀, 호밀을 많이 했다. 보리농사가 잘 되었다. 감자, 조, 보리농사가 많았다.

풀은 그냥 썩혀서 거름으로 냈다. 봄에 밭에다 뿌렸다. 소똥은 따로 거름으로 썼다. 10여명이 돌아가며 품앗이를 했다. 작두로 풀을 썰 때는 재미있었지만 젊은 아낙네라 가서 볼 수 없었다.

우수야 경첩엔 대동강이나 풀리고
정드신님에 연설엔 내속이나 풀린다

삼삼을 때 불렀다.
소리 이름이 따로 없었다.
그냥 옛날 소리다.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어
이산 저산 서산에 도라지꽃이 폈구나
에야누야 누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막걸리/ 주로 옥수수막걸리가 많았다.

풀을 썰 때는 조반, 점심, 참, 저녁까지 먹여야 했다. 막걸리 동우채 두면 자기들이 쪽박으로 퍼 먹고 그랬다. 메밀부침 해주고, 메밀전병 총떡해주고, 총떡은 채짠지로 속을 넣거나 만두속처럼 만들어서 넣고 부쳤다. 신남에서는 전병이라 했다. 옥수수를 갈아서 칡잎에 넣어서 찌든가 굽든가 하는데 칡떡이라 했다. 햇옥수수를 따서 맷돌에 갈아서 잎에 넣어 쪘다. 풀 빌 때도 하고 여름에도 해먹었다. 국수보다는 세끼 보리밥에 감자 넣어 다져서 주었다.

저녁에는 힘들어서 놀지는 못하고 저녁 먹고 그냥 갔다.[7]

4) 기린면 〈풀써는소리〉

방동1리 1반은 예전에 절이 있어서 절골이라 했다.

7 인제군 북면 한계3리 쇠리길 84 이순예(여, 86세)/ 2015년 11월 11일 조사

풀은 저녁에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밟아 썰었다. 한 작두에 7명이 들어갔다. 풀 안아오는 사람, 풀 갈라주는 사람, 작두에 풀 먹이는 사람, 작두를 딛는 사람 둘, 풀 쳐내는 사람, 풀가리에 가리는 사람 등이다. 풀은 겨울에 소를 깔아주어야 하는데 풀가리를 낟가리처럼 쌓아 올렸다. 소마굿간에 까는 풀은 좀 늦게 했다. 보통 음력 8월에 한다. 풀가리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덮어 놓고 겨우내 소를 깔아준다. 소 깔아준 풀은 소똥과 섞여 두엄더미에 쳐냈다가 봄에 거름으로 밭에 낸다. 거름으로 낸 다음에 겨리로 밭을 갈았다. 농토가 많은 사람은 풀을 두 번씩 하기도 했고, 사람을 사서 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밭농사가 많았다. 논에는 소만에 갈을 꺾어서 넣었다. 예전에는 갈품이 제일 비싸서 쌀 한말을 주었는데 김매기는 쌀 서되를 주고, 모심는 데는 쌀 다섯되를 주었다. 갈 꺾어서 논에다 펴고 갈아서 삶아가지고 모를 심었다. 풀은 보통 7-8월에 하는데 음력 7월 처서 무렵에는 '풀한다'고 하여 퇴비를 하고 연이어 음력 8월까지 소마굿간에 넣을 풀을 했다. 작두를 딛어 써는 것은 '큰풀한다'고 했다. 풀은 7-10집이 모여 품앗이를 했다. 작두로 썰 때는 7명이 썰고 나머지는 풀을 해왔다. 새벽에 가서 한짐을 해오면 참을 주었고, 두짐을 해오면 아침을 먹고, 다시 두짐을 한 다음에 점심을 먹었다. 오전에 다섯짐을 한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두짐을 해오고 참을 먹은 다음에 작두에 썰기 시작한다. 따라서 한사람당 7짐을 해오게 된다. 오후참을 먹은 다음에 썰기 시작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어두울 때까지 썰기도 한다. 인원이 7명이 넘으면 작두에 작업하는 사람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풀을 하러 간다. 따라서 오후에 참 먹고 두짐을 해 오면 끝이 난다. 그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썬다. 풀은 많이 하는 집은 100짐이 넘고, 보통 70-80짐은 한다. 풀은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름내내 소꼴 등을 계속 해오면 다 먹지 않고 남은 것도 소를 밟혀서 거름으로 낸다. 이것이 오히려 더 많다. 농사는 보통 2000-3000평 정도 지었다. 풀을 벨 당시 마을에는 논이 5000-6000평, 밭이 몇만평 되어 주로 밭농사가 많았다.

풀을 해오던 골은 문지방골, 집터골, 메내골, 우뭇골 등이다. 그 당시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니산 내산'없이 그냥 베어와도 되었다. 멀리 가면 200-300미터씩 가서 지고 왔으며 먼 곳은 오다가 쉬어왔다. 나중에 하는 사람은 먼 곳까지 가야 했다. 제일 먼 곳은 우뭇골이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했다. 멀리서 지고 올 때는 저녁에 저물어서 끝이 났다. 풀을 하는 집의 순서는 그냥 여건이 되는대로 '내일은 우리집 풀 좀 해줘'하면 다음날 그집 풀을 하는 식이다. 거름으로 썼던 풀은 가시나무, 소나무 빼고 다 베어 왔다. 소나무는 거름이 안된다고 하여 예전부터 '소나무는 세워두고 한다'고 했다. 침엽수인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는 한번 베면 죽어버린다. 또한 소나무는 잘 크고, 큰 나무도 많았지만 풀로 베었던 잡목은 계속 베었기 때문에 자랄 시간이 없었고, 한번 베어도 다음에 새순이 또 나오기 때문에 풀로 많이 베어왔다. 즉 풀로 베었던 잡목들은 베어도 다음해에 다시 나온다. 거름은 갈나무(참나무)가 제일 좋고, 제일 많았다. 풀은 굴피나무(굴참나무), 개금나무, 쑥, 싸리나무, 새초(억새), 국수댕이 등이다. 피나무는 드물었다. 잡목은 어린 나무는 거의 다 했는데 너무 굵어도 안되고 낫으로 벨 수 있는 정도면 베었다. 박달나무처럼 야문 것들도 낫으로 벨 수 있는 어린 나무를 베어왔다. 작두를 딛는 사람은 "우러리여"소리가

나면 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힘을 줘서 딛어야 한다.

양지쪽에 보소리
응달짝에 물갈이다
우닥닥뚝딱 개금나무
둥둥울려라 북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양양강릉 곶감꽂이 싸리나무

심심하면 한잔 먹고 하는데 나무이름이 많았다.

싸리나무가 들어가면 '양양 강릉 곶감꽂이다'하면 나무가 아주 야물기 때문에 작두를 딛는 사람이 힘을 주어 딛는다. 갈나무는 양지쪽에 보소리가 자라고 음지쪽에 물갈나무가 자란다. 소리는 풀을 놓아주는 사람이 한다.

야 응달쪽에 물갈이고
양지쪽에 보소리
양양강릉에 곶감꽂이
십리절반에 오리나무
우닥닥뚝딱 개금나무야
둥둥울려라 북나무

싸리나무에 꽂아서 말리는 곶감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새초와 같이 잘고 부드러운 풀들이 들어가면 '지렝이 갈빗대'라 했다.

풀을 빨리 안주면 '노천이여'라고 했다. 풀을 놓는 사람이 빨리 줘야 풀을 멕이는 사람이 끌어올 수 있는데 미처 주지 못하면 노천이라고 했다. 작두를 들어 올리라는 '아가리 딱딱 벌려라'는 말은 없었다. 입담이 좋은 사람이 다양하게 사설을 붙여서 불렀다. 소리는 노래처럼 하지 않고

말처럼 외쳐서 한다. 작두에 풀을 콱 들이밀면서 외치듯이 소리를 했다. 북나무가 팔뚝만한 것이 들어가면

둥둥 울려라 북나무야
자 우닥닥뚝딱 개금나무야
자 양지쪽 보소리
응달쪽 물갈이다
막 들어간다
과해도 과탄 말이 없구나
어 노천이여
빨리빨리 놔야지 썰지
(그러면 막 끌어다 멕이고 했다.)
야 우러리다
지렝이 갈빗대

그러면 풀이 한아름씩 들어갔다. '과해도 과탄 말이 없구나'는 아무리 많이 멕여도 작두를 딛는 사람이 힘들다는 말이 없이 잘 자른다는 뜻이다. 양양, 강릉에는 곶감이 많았는데 이곳에는 곶감이 없었다. 싸리나무에 곶감을 열 개씩 꽂았기 때문에 싸리나무가 들어갈 때 불렀던 소리다. 개금나무는 개금(개암)을 깨물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것이다. 뽕나무는 심어놓고 누에를 키웠기 때문에 해오지 않았다. 제보자는 당시 젊었기 때문에 주로 작두를 딛었다. 작두를 딛는 사람은 힘이 들었기 때문에 네명이 두패로 나누어 교대로 번갈아 딛었다. 한번 작두에 올라서면 한 시간 가량 딛었다. 작두를 딛는 사람이 힘을 주는 소리로 받거나 한 적은 없고, 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풀이 들어오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딛었다. 많이 들어오면 힘을 쓰고, 적으면 힘을 덜 쓰는 등 눈치껏 했다. 작두를 딛는 두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줄을 잡고 했는데 둘이 호흡이 잘 맞아야 했다. 풀을 하러 가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짝이다'해서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 풀을 멕이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작두에 손목이 끊어질 수 있어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었다. 풀을 멕이는 사람은 풀길이가 2m가 넘기도 해서 힘이 들어 소리를 할 수 없었고, 풀을 놓아주는 사람이 소리를 했다. 풀이 두질이 되는 것도 막 잘라서 지고 왔다. 풀이 길어서 좁은 산길은 옆으로 서서 내려왔다. 짧은 풀은 썰어야 양이 적기 때문에 크고 긴 것들도 해왔다. 풀은 한번 베고 나면 이듬해 7월에 또 그만큼 자라게 되는데 풀을 베고 나면 주변 산들이 풀이나 나무가 없어 새빨갛게 되었다. 그래서 겨울의 땔나무를 할 때는 멀리 가야 했다. 땔나무는 7월 풀을 할 때 소나무 가지를 따놓았다가 노랗게 마르면 가져와서 땔나무로 쓰기도 했다.

풀은 약 20-25센티미터로 잘랐다. 그리고 풀이 잘라지면서 튈 수 있기 때문에 꼬쟁이 두 개를 양손에 쥐고 집어서 넘겼다. 제일 위험한 것은 풀을 멕이는 사람의 손이 작두에 들어가서 잘리는 것이고, 풀이 잘라지면서 튀는 것도 위험했다.

썰어놓은 풀 중에 나무토막 같은 것은 겨우내 거름더미에서 썩기도 하지만 밭에 내어 놓으면 당년에 썩지 않아도 이듬해, 그 이듬해까지 계속 썩기 때문에 밭의 토양이 좋았다. 겨우내 소똥과 섞인 거름을 봄에 낼 때는 보드라운 것을 따로 모아 두었다가 삼태기에 담아서 감자를 심을 때 고랑에 비료 치듯이 놓았다. 밭에 거름을 내서 쭉 편 다음에 소를 가지고 모조리 싹 갈아엎은 다음에 며칠 후에 고랑을 냈다. 그리고 감자를 심었는데 고랑에 먼저 감자씨를 놓고 거름은 짚이나 싸리나무로 짠 삼태미(삼태기)에 담아서 들고 다니며 손으로 그 위에 뿌렸다. 옥수수도 그렇게 했다. 농사는 주로 감자와 옥수수 농사가 많았으며, 옥수수에 감자를 넣은 밥을 주식으로 먹었다. 옥수수는 맷돌에 타개서 얼개미로 쳐 쌀처럼 나오면 여기에 감자를 넣어서 밥을 했다.

풀을 할 때 썼던 도구는 쌍작두이고, 거름을 낼 때는 지게에 소쿠리를 얹어서 져냈으며, 거름을 펼 때는 거린대를 사용했다. 거름은 '두엄'이라 했다. 거름더미에서 쇠스랑으로 거름을 판 다음에, 거린대로 퍼 올려 소쿠리에 담고, 밭에도 거린대를 이용하여 거름을 폈다. 감자, 옥수수 거름을 놓을 때 썼던 삼태미(삼태기)는 짚으로 만들거나 싸리나무를 틀어서 쪼개면 넓적하게 펴지는데 이것을 엮어서 만들었다. 대개 싸리삼태미가 많았다. 농사는 봄의 씨뿌리기에 해당하는 심는 것이 힘들었다.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지에 감자를 캐는데 굵은 것만 고르고 잔 것은 그대로 다시 묻어놓고 자라면 또 캐오고 했다. 그렇게 굵은 것만 골라서 캐 먹다가 가을에 수확을 했다. 감자, 옥수수농사는 잘되었다. 마을에 논도 있었으나 쌀값이 떨어져서 밭으로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감자, 고추가 주요 농작물이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감자가 맛있다고 했다. 옥수수밥은 감자가 들어가면 부드러워졌다.

풀썰기가 끝나면 작두를 끌고 마굿간으로 가서 매며 '소 맨다'고 했다. 소 깔아주는 풀이라 해서 마굿간으로 작두를 끌고 갔는데 작두를 딛었던 두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서 장난을 했다. 그리고 마굿간에다 풀을 가득 퍼다 넣는 장난을 하면 주인은 다시 그 풀을 끌어내야 했다. 풀을 썰기 전에 작두에 고사를 지내거나 하지는 않았고 풀을 다 썬 다음에 작두를 가지고 놀았다.

풀을 지고 내려오며 "이후후후"와 같은 소리는 하지 않았다. 힘이 들어서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소가 있었고, 특히 소가 서너마리 있었던 집은 풀더미가 산더미처럼 까마득히 컸다. 그리고 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름을 할 수 있었다.

풀을 벨 때의 품삯은 더 비쌌다. 당시 모심기는 300원, 김매기는 200원, 쌀 한말에 600원, 요소비료 한포에 681원이었다. 품은 쌀 한말이었고 여기에 81원 보태서 요소 한포를 샀다. 지금은 쌀 한말 팔면 요소 두포를 산다.

풀 썰 때의 아침, 점심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밥을 주고, 저녁은 옥수수, 감자를 삶아서 줬다. 아침참은 밀가루로 칼국수를 밀어서 만든 콩국수를 줬으며, 저녁참은 풋강냉이를 갈아서 올챙이묵을 해줬다. 막걸리는 옥수수막걸리를 두어말 담궜다. 칡떡은 풀을 할 때는 손이 많이 가고 힘

들어서 못하고 따로 별식으로 해먹었다. 풀을 할 때는 이웃집 노인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모심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벼타작을 할 때도 모두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했다. 밀가루는 농사지은 밀을 방아에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썼다.

방동1리는 6개반으로 되어 있으며, 1반은 절골이고, 2반은 오류동, 3반은 간촌, 4반은 둔덕동, 5반은 도채동, 6반은 아롱가지이다. 풀을 할 당시에 절골에는 20여호가 살았다. 그때 논은 5000평정도였고 산으로 온통 밭이었다.

예전에는 마을에 피서객이 엄청 몰려왔었는데 조침령을 비롯하여 주변의 도로가 좋아지면서 점점 점봉산쪽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피서객들이 많이 줄었다.

지금은 소쿠리 지고 다니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 지게도 장에서 알루미늄지게를 사다가 쓴다. 작두도 없다.

예전에는 단오도 명절이어서 단오날은 놀려고 전날 미리 소꼴을 두짐씩 베어다 마당에 세워놓는데 이것을 '단오꼴벤다'고 했으며, 단오날은 취떡 해먹고, 그네 뛰고 놀았다.[8]

5) 서화면 〈풀써는소리〉

(1) 서흥2리 조사내용[9]

서흥2리 3반의 지명은 '앞골'이며, 토박이는 1반에 많이 살았다. 마을에서는 풀을 베어 〈퇴비상〉을 받아 상수도를 했다. 3반은 풀이 최고 많았다. 보통7-8명에서 10명까지 모여 품앗이로 베었는데 저녁 때 썰었다. 아홉집이 돌아가며 했다.

풀은 음력 칠월에 했는데 논김 다 마치고 처서 지나서 추석 밑에 까지 한다. 작두로 썰어서 겨울에 소 마굿간에 깔아주면 소도 먹고 소똥하고 섞여서 거름이 되었다. 거름은 3월에 싸리소쿠리를 지게에 얹어서 져냈다. 논이고 밭이고 갖다 부어놓은 다음에 밭갈이를 했다.

풀은 새벽에 풀하는 집으로 가서 막걸리에 국한그릇씩 먹고 산에 올라가 한짐씩 베어오는데 하루에 보통 1명당 8짐정도 벤다. 10명이 베면 80짐이다.

풀 베는 날은 새벽에 낫 갈아서 5-6시에 풀 하는 집으로 온다. 그러면 그 집에서 농사 지은 밀가루(방앗간에서 빻아왔다)로 칼국수를 해서 한 대접 주면 막걸리 한 사발과 함께 먹고 산으로 갔다.

풀 베던 골은 남영골, 작은남영골, 되명골, 밤나무골, 양지쪽, 화채골, 상여를 두었던 화채집골, 새굼드리, 큰굼은드리가 있다. 남명골, 되명골이 마을에서 제일 멀었다. 1km 정도 되었다. 개인산은 주인이 풀은 하게 두어도 나무는 못하게 했다.

음력 4월~5월 모심기전 '갈 꺾는다'고 했다. 갈을 꺾어서 논에 넣고 거슬러서 모를 심었다. 논

---

8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 1반 절골 조병순(남, 78세) / 2015년 11월 13일 조사
9 인제군 서화면 서흥2리 3반 노인회관 이태석(남,76세)노인회장 / 2015년 11월 11일 조사

이 많은 사람은 품을 사서 꺾었다. 그때 당시 갈품이 가장 비쌌는데 쌀 한말가웃(한말반)을 주었다. 7월에 하는 것은 퇴비라 했다. 퇴비는 겨우내 쌓아두었다가 음력 1월 말경에 밭으로 내고, 논으로 내고 했다. 갈은 잎이 넓적하고 두꺼운 떡갈과 잎이 좁은 참갈 모두 꺾었는데 연한 것을 꺾어왔다. 잎부분을 꺾어서 가지런히 하여 한줌씩 쌓았는데 지게에다 잎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줄기가 안쪽으로 오게 하여 쌓고 묶었다. 끈은 피나무 껍질을 벗겨서 썼다. 7-8월에 산에 가서 피나무 매끈하게 자란 것을 찾아 껍질을 벗기면 부드러운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말려 가지고 자새로 틀어서 피바(끈)를 만들었다. 보통 한발 또는 발가웃으로 지게초리를 만들었다. 이 지게초리로 갈을 묶으면 반듯하니 이쁘게 묶어진다. 갈의 줄기는 복판으로 모아지고 잎사귀가 양쪽으로 퍼진다. 그걸 초리로 묶으면 이쁘게 묶이는데 토끼귀처럼 바치게 올라간다. 이것을 논으로 가져와서 논에다 펴고 소로 간다. 작두로 썰지 않고 그대로 편다. 피나무껍질을 쓴 이유는 질겨서 지게초리에 좋기 때문이고 소고삐도 이것으로 했다. 소는 밖에서 매어놓고 먹일 때, 고삐를 세발, 네발씩 해서 밖에 내다 매어놓으면 주변으로 자유롭게 오가며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다. 피나무는 봄에 음력 4월경 물이 많이 올랐을 때 매끈하게 쭉 뻗은 나무를 골라 밑둥에서 돌려가며 아래서부터 위로 껍질을 쭉 벗기면 나무꼭대기까지 잘 벗겨졌다. 피나무껍질은 길게 잘 벗겨지고 질기기 때문에 끈으로 많이 썼으며, 벗기면 다시 껍질이 나왔다. 그리고 껍질이 얇고 부드러우며 쭉쭉 잘 갈라져서 좋았다. 껍질을 벗겨오면 접어서 음지에 말리는데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이것을 삼껍질 가르듯이 잘게 쪼개서 비오는 날 자새를 이용하여 꼬는데 세줄을 꼬아서 끈을 만들었다.

피나무껍질을 벗겼던 그때는 호랑이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이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피나무 껍질을 벗기면 몰래 나와서 물을 핥아먹었다. 피나무수액은 달콤하기 때문에 혼자 피나무껍질을 벗기러 가면 무섭고 위험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가래나무 수액은 쓴맛이 강했는데 피나무껍질을 벗기기 전에 먼저 가래나무껍질을 벗겨서 호랑이가 가래나무 수액의 쓴맛을 맛보게 하여 쫓으려 했다. 가래나무 수액을 먼저 맛보게 하여 쓴맛을 보면 쫓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가래나무껍질은 호랑이를 쫓으려고 벗긴 것이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예전 할아버지들은 담뱃대에 불을 붙일 때 성냥이 나오기 전이어서 산에 있는 떡취를 이용했다. 떡취를 뜯어다 화롯불에 구워서 손으로 비비면 부드러운 솜 같았다. 그리고 대장간에 가서 부시를 치는데 하얀 차돌을 가지고 부시를 쳐서 이 부싯돌로 떡취를 조금씩 떼어 불을 붙여 사용했다. 어른들이 피나무껍질로 바(끈, 줄)를 만들 때 이렇게 부싯돌로 담뱃불을 붙여 물고 일했다.

갈은 논거름으로 들어갔다. 퇴비는 밭에 주로 넣고 논에도 넣었다.

논에 갈을 넣고 갈 때 소 두 마리로 갈아서 엎었으며, 왼쪽으로 갈아서 덮었다. 그다음에 물을 넣고 거슬러서 써래질을 하여 풀어줬다. 써래질을 하면 흙이 들어가 갈을 덮고 부셔지고 했다. 갈은 모심기 한 열흘 앞두고 꺾어다 논에다 펴 놓았으며 그러면 갈이 말랐다. 퇴비 있는 곳은 빼고, 퇴비가 들어가지 않은 논에 갈을 꺾어 넣었다. 퇴비는 밭에 먼저 내고 나머지를 논에 넣었

다. 보드랍고 좋은 거름은 감자나 조를 심을 때 따로 이용했다. 풀을 썰 때 나왔던 굵은 나무들은 거름에 섞여서 그대로 밭에다 내었는데 이 나무들이(뼉다구라 함)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비탈 밭의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었으며, 썩을 때까지 몇 년 동안 거름 역할을 했다.

감자를 심을 때는 골을 타고 두뼘 간격으로 감자씨를 놓는데 그때 삼태기에 거름을 담아서 뿌리고 다녔다.

풀은 안들미, 새초(억새종류), 쑥, 갈나무 보드라운 것, 느릅나무(소 코 꿰는 나무), 피나무, 갈나무, 소나무, 북나무(붕낭그) 등이다.

죽을 젠 버들버들하고 죽냐 버들나무
방귀꼈다 뽕나무
쪼록싸리, 안싸리, 참싸리
빗자루 매는 싸리
개다리 올라간다
아가리 벌려라
이빨 빠진 것들도 다 먹는다(풀이 들어갈 때, 풀이 맥이 없으니까)
지렝이 갈빗대다(바랭이 들어 갈 때)
큰 왕다리 들어간다
우러리다(팔뚝만한 것이 들어갈 때)
왕우러리다(더 큰 것이 들어갈 때)

풀은 오전에 다섯짐씩 한다. 한 짐 해오면 막걸리 한잔 먹고 간다. 풀은 한 짐을 하려면 세 아람을 해야 한다. 먼저 풀을 벤 사람부터 지고 내려오는데 산에서 쭉 한 줄로 서서 내려온다. 그리고 점심 먹고 석짐을 한 다음에 썰기 시작한다.

작두질은 밤 아홉시까지도 했다. 퇴비를 많이 할 적에는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으로 '솜방치'로 횃불을 만들어 들고 썰었다. 작두는 둘이 딛는 쌍작두를 썼다. 쌍작두는 딛는 곳이 길어서 양쪽에서 둘이 딛었다. 혼자 딛는 것은 디딤돌이 짧다. 딛는 곳을 작두신이라 하며, 목에다 끈을 매고, 둘이 당긴다. 작두날, 작두바탕, 작두신, 작두끈이 있다. 쌍작두는 작두날이 두 개여야 쌍작두다. 작두날 하나에 둘이 딛는 것은 '쌍작두 썬다'고 한다.

작두로 풀을 썰 때는 풀은 안아다 주는 사람, 갈라주는 사람, 멕이는 사람, 딛는 사람 둘, 끌어내는 사람, 썬 풀을 쳐내는 사람 두세명, 풀더미 만드는 사람 등이 한조로 작업한다. 작두를 딛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 소리는 풀을 갈라주는 사람이 한다. 앉아서 풀을 멕이는 사람의 손이 작두에 들어가서 사고 날 위험이 많았다.

손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풀을 잘 멕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었다. 딛는 사람도 다리 장단지가 굵은 사람들, 힘은 좋은 사람들이 딛었고, 힘이 약한 사람은 풀은 날라다 주었다. 아무나 풀을 멕이면 사고 날 위험이 커서 멕일 수 없었다. 멕이는 사람은 풀을 썰어서 가마니를 덮어

깔고 앉아서 멕였다. 술은 똑같이 먹었지만 멕이는 사람은 잘 멕였다. 풀은 세 아람이 한단이었고, 석단을 베어야 지고 왔다. 풀 지고 내려올 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지게 지고 올라갈 때 소리를 하는 사람은 있었다. 풀 하는 것을 '퇴비한다'고도 했다.

풀을 할 때는 보통 옥수수막걸리를 담갔고, 잘하는 집은 옥수수 엿술을 했다.찰옥수수는 수확을 해서 타래미로 매달아 말렸다가 잘 여믄 것으로 골라 종자를 하였다. 찰옥수수와 메옥수수를 가까이 심으면 나중에 대꼬리가 올라가며 뒤엉켜서 메옥수수가 되어 버린다. 찰옥수수와 메옥수수는 멀리 따로 심어야 한다. 이것은 올챙이묵이 되지 않는다. 7월에 '풀 한다'하면 메옥수수를 따다가 알을 깐다. 그리고 이것을 맷돌로 갈아서 가마에다 후덕후덕하게 주걱으로 저어 끓였다. 이것을 박바가지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그릇에 붓고 내리면 올챙이묵이 되었다. 거기에다 배추 겉절이 만들고, 풋고추를 썰어서 간장에 넣어 함께 내온다. 아침 먹고 준비해야 오후 중참으로 내올 수 있었다. 올챙이묵은 오후 새참으로 나왔다.

남으면 풀 썰 때 참으로 내오기도 했다. 칡떡도 했다. 찰옥수수를 갈아서 칡잎에 싸서 쪘다. 올챙이묵은 풀을 할 때 집집마다 했다. 고추를 심어놓으면 크고 매운 것으로 따다가 막걸리 안주로 먹었다. 몸이 땀범벅이 되고 더워도 매운 고추에 막걸리를 먹어서 땀으로 쏟아냈다. 담배는 봉초를 사다가 신문지를 잘라서 말아 피웠다.

거름은 보통 한소코리가 밭의 한평을 깔 수 있었다.(여섯자) 풀은 마굿간에 깔아놓으면 소도 먹고 해서 모두 거름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볏짚은 지붕을 덮어야 해서 소를 먹일 겨를이 없었다. 소여물은 옥수수섶, 콩깍지 등이다. 지붕은 볏짚이 없으면 산에서 억새를 베어다 칡으로 엮어서 했다. 지금쯤 칡을 끊어서 엮을 때이다. 억새는 미리 베어놓았다가 마르면 엮는다. 동네에서 지붕을 바꿀 때는 저녁밥 먹기 전에 모두 가서 엮었다. 삼칸집 같은 경우 이틀이면 되지만 사람이 부족하면 3-4일도 엮었다. 엮어서 쌓아놓았다가 지붕을 잇는 날은 화(火)일을 피해서 날을 따로 받았다. '지붕 해 얹는다'고 했는데 생기를 맞추어 날을 받았다. 저녁 먹기 전에 어둑어둑해지면 가서 엮는다. 그러면 그 집이 저녁밥과 술을 해주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은 주인이 심술궂은 사람이라 혼내 주려고 일부러 날을 받아주기를 화(火)일이 들어간 날을 받아주었다. 그런데 지붕을 얹는 날 지붕을 다 얹고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이때 소변이 마려워서 뒤안쪽 방향으로 용마루에 소변을 누었는데 이것이 예방이 되어 화재가 나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지붕을 다 얹고 내려올 때는 용마루에 소변을 보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마을에는 논농사가 있는 사람은 볏짚으로 지붕을 얹었지만 논이 없는 사람들은 저릅대로 반을 얹고 나머지를 억새로 해 얹었다.

2리 3반은 예전에 '앞골'이라 했다. 1리는 뒷골이다. 초가집이 있을 당시 앞골은 70호 정도가 있었는데 골안까지 다 살았다. 골안에 살던 사람들은 화전하던 사람들로 새마을운동 때 화전정리하며 다 나왔다. 이후에는 40호가 조금 넘었다.

초가집 걷어내고 슬레이트집이었다. 화전민들이 살던 골을 원골이라 한다. 물안골에 서너집 살고, 대상으터에 너덧집 살고, 원골 서너집 살았다.

갈을 꺾을 때만 품을 사서 했지 퇴비는 모두 품앗이로 했다. 갈을 꺾을 때는 갈령을 내려서 작업했는데 마을에 갈령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개인 산은 더러 못오게 했기 때문에 국유림에 가서 꺾어 왔다.

(2) 서흥2리 무쇠점마을 조사내용[10]

제보자는 인제군 기린면 북리 궁동에서 태어났으며, 19살에 서흥2리로 갔고 무쇠점마을에서 살았다. 그리고 〈풀써는소리〉는 이때 풀을 베고 농사를 지을 때 한 것이다. 서흥2리는 풀썰기로 전국대회에서 2등 했다. 풀을 한달을 졌다. 그때 퇴비로 전국에서 2등했다. 대통령상 받아서 서흥2리 전기를 끌어왔다. 그때 살았던 서흥2리 무쇠점마을은 농사를 지어도 지게로 져서 강을 건너 날랐는데, 전봇대도 구루마에 실어서 마을사람 모두가 나와 끌고 밀어서 강을 건너 전봇대를 세웠다. 모두 인력으로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불 피워놓고 작두에 풀 써는 것을 보았다.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이랑 대회 나갈 때 부른 것을 보면 모두 비슷하다. 쌍작두를 딛었는데 막걸리 한잔 먹고 풀을 썰기 시작한다.

자 우리 인제 서로 조심해서 풀을 한번 썰어보자
자 풀 멕인다
(싸리나무가 들어오면) 양지쪽에 보소리 곶감꼬쟁이가 들어온다
(북나무가 들어오면) 둥둥 울려라 북나무
(뽕나무가 들어오면) 방귀꼈다 뽕나무
(엮으면서 멕인다.)
아 둥둥 울려라 북나무가 들어오는구나
(보독이가 들어오면) 황장목이 들어온다
(새초같이 무른 것이 들어오면) 무른데미 한아름, 한아름 들어간다
(작두 딛는 사람한테는) 아가리 딱딱 벌려라
(참나무 이런게 들어오면)
응달 물갈 양지 보소리(굴참나무)
개다리 심올랐다
(음지에는 물갈나무가 많이 자랐다. 물갈이 들어오면 힘을 주라고 한다.)
한시도 맘놓지 말고
(계속 주워대면서 멕인다.)
우닥딱딱 개금나무
칼로 찔러 피나무

10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인제순대국〉 이태순(남, 69세)/ 2015년 11월 13일 조사

나무마다 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풀 멕이는 사람이 내엮으면 작두를 딛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힘을 조절하여 딛는다. 한쪽에서는 끌어내고 삼태기로 담아서 나르는데 풀더미는 커지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쌓기도 한다. 서너명이 날라다 쌓는다.

막걸리 동이로 해다 놓고 먹으며 일했다. 딛는 사람은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쌍작두를 딛었다.

풀이 많이 들어가서 딛기 힘들 때는 딛는 사람이 "과하구나"하고 뭐라 하기도 한다.

6)상남면 〈풀써는소리〉

강원도에서 풀베기 대회를 시작했을 때 이 마을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 1975년경의 일이다. 당시 상금으로 소 29마리를 상으로 받았다. 그중에서 동네사람들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우사를 지어 키웠다. 상으로 받을 때는 120만원 주고 샀는데 4-5년 정도 지나서 소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았다. 풀베기대회는 한 3년정도 했다. 그 이후에는 공동으로 풀을 베던 풍습은 없어졌다.

당시 24집이 품앗이로 돌아가며 풀을 벨 때는 집집마다 부인들이 나와서 음식도 공동으로 준비했다. 마을잔치였다. 음력 7월에 시작해서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했다. 24집이 계속 돌아가며 하다보면 한집이 서너번씩 돌아갔다. 24집의 공동작업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풀더미가 똑같았다.

풀은 엄달골(3집이 있었고), 서낭답골, 땅작골, 미락골, 대나무골, 무데기골, 집골, 사오골, 제당골, 고투골, 갈밭골, 도메기골, 가는골에서 해왔다. 이 골안에도 사람들이 다 살았으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24집이 공동작업을 한 것이다.

음력 7월에 하는 풀은 그냥 '풀 한다'고 했다. 봄에 꺾어서 논에 넣었던 것은 '갈'이라 했다.

풀을 할 때는 아침 6시경에 모여서 바로 산으로 가서 한 짐을 해 오면 집에서 담근 옥시기(옥수수) 막걸리를 한잔하고 또 베러 갔다. 다시 한짐을 해온 다음에 새참으로 밀가루 칼국수를 먹었다. 그리고 두짐을 한 다음에 점심을 먹었다. 아침은 각자 집에서 먹고 왔다. 오후에는 석짐을 해왔다. 그래서 모두 일곱짐을 한 다음에 풀을 썰었다. 24명이 일곱짐씩 해오면 풀이 산더미 같았다. 오후에 나오는 참은 올챙이묵이었다. 작두로 썰 때는 오후 세시경인데 쌍작두 두벌을 차려놓고 썰었다. 한작두꾼은 일곱명이다. 풀을 멕이는 사람은 솜씨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풀은 길이가 두발씩 되었으며 작두에 들어갈 때는 한아름씩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밀어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풀을 한아름 안으면 덜렁 들어서 작두에 밀어 넣으며 동시에 풀꼬리를 발로 툭 쳐서 밀어주었다. 나무가 섞여서 들어가고 한아름씩 되면 무거워서 손이나 팔 힘만 가지고는 작두에 멕일 수 없었다.

풀을 멕이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었다.

풀은 쑥이 제일 많았고, 나무는 개금나무가 많았다. 그리고 피나무, 물갈나무, 뽕나무, 북나무, 사시나무, 소나무도 막 들어가고, 느티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소태나무, 박달나무, 엄나무가 있었고, 장자덤불이 많았다. 장자덤불은 덤불이 커서 서로 엉켜가지고 한 덤불에서 두어짐씩 나왔다. 그래서 '부자났다 장자덤불'이라는 말이 나왔다. 억새도 많았는데 풀은

그냥 둘둘 말아서 한아름씩 되었다. 나무보다 풀이 많았다. 거름으로 쓰는 나무는 새순들이 자란 어린 나무들이었다. 굵은 나무는 풀이 없을 때 장난처럼 섞어서 베어오기도 했다. 우러리는 굵은 나무로 지름이 10cm정도 되었고, 풀의 길이는 2m내외였다.

〈풀써는소리〉는 작두를 딛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풀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이다. 소리를 듣고 힘을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우러리가 들어갈 때는 힘을 더 쓰라고 꼭 알려준다. 순전히 풀만 들어갈 때는 '무른담'이라 하고 작두는 살살 딛는다. 이때 모르고 콱 딛으면 발을 삐는 수가 있다. 작두바탕에는 쐐기 등을 박아 작두날이 바탕에 박히지 않도록 아예 조치를 해놓아서 작두날이 박히는 일은 거의 없다. 〈풀써는소리〉는 풀을 집어서 주는 사람이 한다. 풀을 멕이는 사람은 힘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덤불이 엉켜서 들어갈 때인데 잘못하면 손이 딸려서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엄불덤불 칡덤불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다. 풀을 멕일 때마다 작두 속으로 손목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온다. 그런데 덤불같은 것에 엉켜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작두를 딛는 사람이 올려서 한참 있다가 딛곤 했다.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딛었다. 풀을 썰 때는 힘이 많이 들어서 계속 할 수 없었고 약 30분마다 교대를 해주어서 쉴 수 있게 해주었다.

작두를 딛는 사람은 힘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딛었다. 풀을 멕이는 사람은 침착하고 '눈치가 빨라야 했다'는데 특히 작두가 오르내리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전반적으로 상황판단이 빨라야 했다. 그리고 풀을 잘 멕여야 써는 사람도 쉬웠다. 양영국 제보자는 마을에서도 풀을 잘 멕이는 사람이었다. 풀은 50cm정도로 썰었다. 썰어진 풀은 작두 뒤에서 나무 막대기 두 개로 눌러서 툭 쳐서 넘겼다. 썰어지는 풀은 바로 눌러 주어야 튀지 않았다. 풀을 안아서 날라다 주는 사람, 풀을 놓아주는 사람, 풀을 멕이는 사람, 작두를 딛는 사람 둘, 썰어진 풀을 받아내는 '풀받이'한명, 그리고 풀더미를 만드는 사람 한명으로 모두 일곱명이었다.

〈풀써는소리〉는 들어오는 나무마다 보면서 무슨 나무인지 다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온갖 나무이름들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굵은 나무는 정확하게 소리와 맞지만, 작은 나무들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소리가 나오는 대로 그냥 부르는 수도 있다. 덤불은 덤불이라고 알려준다. 우러리가 들어갈 때는 꼭 알려주고, 많이 들어갈 때도 '과타'하고 알려준다. 그리고 미처 풀을 가져다 놓지 못해서 없을 때는 '노천이요'하고 알려준다. '지렝이 갈빗대'는 국숫대와 쑥대를 이르는 말이다. 풀같이 연한 것이 들어갈 때도 '지렝이 갈빗대'라고 한다. 우러리는 박달 참나무 우러리다.

〈인제 상남면 풀써는소리〉 1

게걸작두에
다리는 무쇠다리
정신없이도 잘도밟네
간난아기 자작나무

바람솔솔 소나무요
동지섣달 사시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오다보니 오동나무
신골방매이 박달나무
신날나무 소태나무
우다닥뚝닥 개금나무
가다보니 감나무요
오다보니 옻나무라
따끔따끔 가시나무
심술궂은 엄나무를
젊은나무는 소나무구
늙은나무는 느릅나무
장자났다 장자덤불
한아름 듬뿍 들어간다
엄불덤불 들어가니
둥글둥글 들어가니
손 조심 해셔서
과탄말 하지말고
없다한말 하지마라
과타하니 과천이다
작다하니 노천이다
무른데미는 지렝이 갈비

〈인제 상남면 풀써는소리〉 2

작두는 게걸작두
다리는 무쇠다리
간난아기 자작나무
젊은솔솔 소나무요
늙은나무는 느티나무
가다보니 감나무고
오다보니 옻나무요
가자가자 감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동지섣달 사시나무
신꼴망태기 박달나무
신꼴에는 소태나무

잡목이 우거진 숲

뽕나무

엄나무

심술굳은 엄나무다
장자났다 장자덤불
국시대이는 국시대이고
지레이 갈비가 들어간다
한아름함뿍 들어간다
엄불덤불 칡덩굴이니
정신차려서 잘도밟네
과타는 과천이다
작은것은 노천이니
마음대로 주지말고
조정하여서 멕여주시죠
과타!
노천이요!
젊은이 방구는 뽕나무구
늙은이 방구는 북나무라
우리계원 잘도한다
간난아이 자작나무
바람솔솔 소나무라
우러리여

소나무는 거름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마을도 있다.

〈인제 상남면 풀써는소리〉 3

작두는 게걸작두
다리는 무쇠다리
바람솔솔 소나무요
심술굳은 엄나무구
바람솔솔 소나무구
때끔때끔 가시나무
간난아기 자작나무
애기방구 뽕나무구
늙은이방군 붕나무라
장자났다 장자덩굴
칼로 찔러라 피나무구
간다간다 감나무요
오다보니 옻나무는
우러리여!
노천이여!
살살부는 소나무요

소나무

늙은이나무 느릅나무
오다보니 오동나무
가다보니 가닥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우리계원들 잘도밟네
우러리여!
엄불덤불 지렁이요
지렁이갈빗대 들어간다
엄불덤불 조심하소
때끔때끔 가시덤불
꼬리치고 들어간다
칡덤불이 들어간다
노천이여![11]

'지렁이 갈빗대'로 표현되는 풀

작두를 '게걸작두'라 하는 것은 게걸스럽게 먹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작두에 풀을 넣는 것을 '멕인다'고 하는데 이는 '먹인다'는 뜻이다. 풀을 한아름씩 멕여서 빨리빨리 잘 썰어지는 것을 게걸스럽게 먹는 것으로 표현하여 '게걸작두'라 했다.

소리 한 마디에 작두 한번씩 딛는 것으로, 딛을 때 나오는 '쿵'소리가 후렴처럼 박자를 맞춘다. 〈풀써는소리〉는 계속 반복된다.

〈풀써는소리〉를 하면서 작업을 할 때는 작두를 딛는 사람이 힘쓰는 소리로 받거나 주변사람들이 추임새를 넣는 일은 거의 없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풀만 써는 것이 아니여. 낭구가 다 드가지. 그냥 풀만 써나"

갈은 소만 지나서 열흘 만에 꺾었는데 품을 사서 꺾었다. 갈품은 하루에 쌀 한말을 주었다. 하루에 일곱 짐을 해주면 되었다. 갈은 주로 물갈이 많았다. 도토리가 하얀 것은 보소리라 했는데 드문드문 섞여 들어갔다.

박득수 제보자는 갈 꺾으러 가서 심심하면 신세타령을 했다. 예전에 갈 꺾으러 가서 소리를 듣다가 거기에 푹 빠져서 꺾어놓은 갈을 누가 훔쳐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정도로 소리를 많이 했다. 갈을 꺾으러 가서 소리를 하면 힘이 들지 않았다. 총각시절에 나물 뜯으러 가서도 소리를 많이 했다.

일강릉 이춘천 삼원주라더니
일시잠깐에 정들여 놓기는 강원도로구나

11 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김진옥(남, 79세)/2015년 12월 5일 조사. 풀써는소리는 김진옥제보자가 구연했고, 양영국(남, 78세)는 풀을 전문적으로 멕였던 사람으로 풍습에 관해 함께 제보해 주었다.

술이라고는 먹었거들랑 취하지를 말고
임이라고나 생겼걸랑 이별을 말아라

오동동 춘야에 달이 둥둥 밝고
임에 동동 생각이나 저절로 나네

간데 족족에 온데 족족에 정이나 들여놓고
이별이 잦고잦아서 못살겠구나[12]

갈짐지고 내려오면서 '이후후후'소리는 하지 않았다. 갈짐 지고 한줄로 서서 내려오면 갈잎이 지게 양옆으로 퍼져서 너풀너풀하여 멋있었다. 남한테 지기 싫어서 갈짐 잘 만들어 놓을 정도였다. 갈을 묶을 때 잎사귀는 양옆으로 밖으로 향하게 하고 줄기는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게에 지고 내려오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너풀너풀하여 아주 보기 좋았다.

〈풀써는소리〉1의 구연은 조사 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기억을 더듬어 종이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부른 것이다. 〈풀써는소리〉2는 써놓은 것을 보지 말고 구연해 달라고 해서 부른 것이고, 〈풀써는소리〉3은 실제로 풀을 썰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연한 것이다. 실제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은 "우러리"라고 하는데 이번 구연에서는 실제상황이 아닌데다 나무 종류에 집중하다보니 잘 부르지 않았다. "우러리"는 굵은 나무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작두를 딛는 사람이 힘을 준다고 한다.

7) 2015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인제 풀써는소리〉

제 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작품명 : 인제 원대리 풀써는 소리
장소 : 영월 공설 운동장 / 기간: 2015년 9월 10일~11일
주관 · 주최 : 인제군, 인제문화원

1. 발굴 · 재현

고증인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21 심흥규(81세)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院垈里)는 본래 동면지역으로서 院(원)집이 있었음으로 원터, 원대(院垈)라 했다고 전하고, 관음원(觀音院)이란 소암자(小庵子)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오고 있다. 191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원대리(院垈里)라 하였다.

12 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박득수(남, 74세)/ 2015년 12월 5일 조사

해방 이후인 1948년에 38선이 생기면서 인제읍 소재 38선 이북 10개 리(里)가 공산 치하(共産治下)로 넘어가고, 38선 이남 마을인 원대리는 홍천군(洪川郡) 신남면(新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에 다시 편입되어 인제읍은 11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거하여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행정리(行政里)는 모두 19개리다.

원대리 마을은 동쪽으로는 인제읍 하추리(下秋里)와 남쪽은 기린면 북리(北里), 서쪽은 남면 남전리(藍田里), 북쪽은 인제읍 고사리(古沙里)와 접해 있다. 모험레포츠의 천국인 인제군의 대표적 여름철 관광지로 래프팅을 즐기러 오는 탐방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최근 공중파 방송의 영향으로 마을에 있는 자작나무숲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 〈인제 풀써는소리〉 특색

퇴비를 만드는 시기는 갈을 꺽은 다음 풀씨가 앉기 전 처서 무렵에 풀을 했다. 강원도에서 '풀을 한다'고 할 때는 갈을 말한다. 전자를 '재풀'이라고 하고, 후자는 '큰풀'이라고 한다. 재풀은 '진풀', '김장 풀', '감자 풀', '썰 풀'등이라고도 했고, 큰풀은 '갈풀', '거름풀', '마구 풀', '퇴비 풀', '센 풀', '밟이풀'등이라고도 했다.

큰풀은 처서 전인 8월경에 품앗이로 풀을 했다. 품앗이는 마을 남자들이 모여 순번을 정했다. 풀꾼들은 산에 올라가 부드러운 풀은 물론이고 잎이 달린 나무까지 잘라 왔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란 연한 풀만이 아니라 나무까지 의미한다. 풀을 해온 다음, 이를 겨리 작두로 썰어 풀 가리를 만들어 쌓아 둔다. 겨리 작두는 쌍작두라고도 하는데, 작두날은 하나지만 두 사람이 작두를 밟는다. 혼자 밟으면 굵은 나무는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둘이 힘을 주어 밟는다.

품앗이는 일곱 명 내지 여덟 명이 어울려 한다. 풀을 작두에 멕이는 사람이 한 명, 멕이는 사람과 마주 앉아 멕이는 사람에게 풀을 놔주는 사람 한 명, 풀꾼들이 져 온 풀 짐을 풀러 풀을 놔주는 사람에게 풀을 대주는 사람이 한 명, 작두를 밟는 사람이 두 명, 작두에서 나오는 풀을 쳐내는 사람이 한 명, 쳐낸 풀을 풀 가리에 쌓아 올리는 사람이 한 명 또는 두명이 있는데, 이들을 '한 작두꾼'또는 '가진 작두꾼'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풀을 멕이는 사람과 풀을 놔주는 사람이 '풀써는 소리'를 했다.

3. 출연진

출연인원 : 53명
연출지도 : 오일주(부평초등학교 교장)
소리지도 : 장은숙(강원소리진흥회 인제지부장)
조　　사 : 한승윤(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함연호	66	주인	이만식	75	풀꾼	김수종	64	아낙
김종식	70	선소리	이병길	70	풀꾼	최남진	56	농악
이윤모	71	디딤꾼	김재문	79	풀꾼	남기순	53	농악
이태순	68	디딤꾼	현원일	68	풀꾼	최근모	55	농악
이춘근	69	디딤꾼	김욱춘	74	풀꾼	조해경	45	농악
이사용	76	디딤꾼	구임순	73	풀꾼	김은화	43	농악
권원희	76	디딤꾼	이봉순	69	풀꾼	강세구	43	농악
김종근	77	디딤꾼	정농옥	68	풀꾼	윤순덕	67	농악
김무생	63	풀멕이꾼	황상배	77	풀꾼	이애숙	59	농악
김옥순	70	풀멕이꾼	장은숙	33	풀꾼	손순애	56	농악
이순자	72	풀멕이꾼	김용석	56	풀갈이꾼	조경숙	56	농악
김필연	79	풀멕이꾼	이남혁	60	풀갈이꾼	안남오	62	기수
김인숙	76	풀멕이꾼	이주경	76	풀갈이꾼	박미숙	31	기수
김운성	82	풀멕이꾼	허경자	74	풀갈이꾼			
손수복	76	풀멕이꾼	박일남	63	풀갈이꾼			
정봉옥	77	풀멕이꾼	김순녀	65	아낙			
손덕성	74	풀멕이꾼	육영숙	77	아낙			
안춘자	68	풀꾼	김기자	74	아낙			
이선녀	60	풀꾼	이순덕	74	아낙			
박돈녀	66	풀꾼	최순녀	74	아낙			

4. 풀 써는 소리

유세차 남산부족 해동조선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올시다 ~
우리 풀꾼들이 오늘 풀을 베어 거름 퇴비를 만들고자 하오니
동서남북 어딜 가나 사방팔방 어딜 가나
산신님이나 지신님께 축원발원이올시다~ 감응하옵소서

한 번 썰어 퇴비하고, 두 번 썰어 거름하니, 오곡이 풍년일세
아홉 해 흉년이 다 지나가고, 십년 대풍 돌아를 왔네
실농씨에 본을 받아 쌍 작두를 차려놓고
작두는 게걸작두 다리는 무쇠다리
노천 우라리 쓸어 벌 때 산천초목도 이름이 있는데
장생불사 고로쇠나무 천년만년 주목나무
왔다갔다 기둥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엎어졌다 엄나무요 자빠졌다 잣나물세
사탕 물어 다래나무 벌벌 떠는 사시나무
칼로 찔러 피나무라

마굿간에 소나무요 송아지 낳다 소태나무
양지짝 보 소리요 옹달짝 물갈리로다
일시도 마음 놓지마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름드리 들어간다 멕이기도 잘멕이고 딛기도 잘 딛는다
혼인대사 국수대요 막중대사 떡갈나무
아닌 밤 중 밤나무요 한다리 절뚝 전나무요
워리 불러 개똥나무 정자 좋아 느티나무

여러분들 풀꾼님네 이참 저참 새참인데
열무김치 오조 밥에 막걸리 한잔 하고 하세
막걸리 한잔 들고 하세, 막걸리 한잔 먹고 하세
감자전이 안주를 막고 올챙이묵이 배를 채우니
우라리가 들어와도 눈만 끔쩍 짤라지고
노천이가 들어와도 입만 실쭉 끊어진다

무릅찬 노천이요 엄불 덤불 칡덩굴이요
띠끔 때끔 가시덩굴 댕댕이 쑥댕이요
지렁이 갈비대로다 둥둥울려라 북 나무요
방귀 뀌었다 뽕나무라 천식 고뿔 가래나무
아기 재워 자장나무 잘도 잔다 잣나무라
어깨너머 등나무요 어사났다 광대싸리
마당 쓸어 쪼록싸리 양양강릉 꽂감꽂이
참싸리로구나 참 싸리요
일시도 마음 놓지마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름드리 들어간다 멕이기도 잘멕이고 딛기도 잘 딛는다
십리바깥 스무나무 온다고 옷나무요
간다고 갈풀이라 초상났다 향나무요
제사 곶감 대추나무 우라리요 우라리야
우다닥 뚝딱 개금나무 박달뚝딱 홍두깨나무
들었다 놨다 둘충나무 시내강변 갈다리라
풀더미가 태산이니 광문이 열렸구나

풀꾼들은 지게를 지고 소리꾼은 소리를 주니
디딜군은 신이나니 빈작두를 들었다 놨다
쇠스랑 걸인대가 춤을 춘다
풀더미가 태산이니 광문이 열렸구나
얼씨구 좋다 풍년이요, 절씨구 좋다 풍년일세
이리보아도 풍년이요, 저리보아도 풍년이로세~
올해도 대풍이요

풀꾼들은 지게를 지고 소리꾼은 소리를 주니
디딜꾼은 신이 나서 빈 작두만 들었다 놓고
거린데 쇠스랑 춤을 추니 풀가리만 커지는구나
오늘날은 이집이 하고 내일날은 저집이 하니
집집마다 풍년이요 동네마다 풍년일세
앞으로 봐도 풍년이요 뒤로 봐도 풍년이오
옆으로 봐도 풍년이요 돌아봐도 풍년일세
앞으로 끌면 황송아지요 뒤로 끌면 암송아지다
우로 돌면 풍년이요 외로 돌면 흉년이다[13]

2 〈인제 풀써는소리〉의 특징

예전에는 비료가 없어 논이나 밭에 모두 풀을 베어서 넣었다. 풀은 마을 사람들이 산에 가서 공동으로 베어 왔으며 이것을 작두로 썰어서 거름을 만들었다. 풀은 논에 넣었던 갈풀이 있었고, 밭에 넣었던 작두풀이 있었는데 작두풀은 둘이 딛는 쌍작두로 썰었다. 그리고 작두로 풀을 썰 때는 작두를 딛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풀의 상태를 일러주어 작두를 딛는 다리의 힘을 조정하도록 했다.

즉 〈풀써는소리〉는 거름으로 만들 풀을 베어서 작두로 썰 때 하는 소리이다. 가창방식은 주로 독창이며, 가끔 '우러리여', '노천이여'와 같이 작두를 딛는 힘의 강약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말은 풀을 멕이는 사람이 반복해서 복창으로 한번 더 일러주기도 한다. 그리고 작두를 딛는 사람이 가끔 힘을 주는 소리를 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풀이나 나무를 갈라줄 때, 내용물을 구분하여 딛는 사람에게 힘주는 정도를 알려주기 위한 즉흥적인 구연이다.

〈풀써는소리〉의 곡조는 대부분 단순하며 말로 외치듯이 부르지만 간혹 곡조가 들어가기도 한다. 또 사설은 작두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익살맞은 은유로 재미있게 표현한다.

〈풀써는소리〉의 노랫말에 등장하는 '지렝이 갈빗대'는 무른 것을 말하는데 이처럼 즉흥적으로 묘사하는 노랫말에 해학과 유머가 있어 주목된다.

인제 〈풀써는소리〉는 구연배경이 되었던 풀하기와, 〈풀써는소리〉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구연배경이 되었던 풀베기 및 풀썰기와 관련된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풀써는소리〉가 이루어졌던 풀하기 작업은 '작두풀', '썰풀'이라고도 하여 특별히 지칭하는 이름이 있었다.

13 이 내용은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할 당시 발간한 팜플렛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② 작두풀은 음력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시기적으로 잎이 아직도 왕성하게 살아있으며, 단풍이 들기 전까지 이루어진다.

③ 작두풀은 품앗이로 이루어진다.

④ 작두로 풀을 썰 때는 보통 7-8명이 참여하는데, 이를 '한작두꾼'이라 한다.

⑤ 작두는 두명이 딛는 쌍작두로 썰며, 썰어야 할 풀을 안아다 주는 사람, 풀을 갈라서 놓아주는 사람, 작두에 풀을 멕이는 사람, 작두에서 썰어진 풀을 끌어내는 사람, 풀더미를 만드는 사람이 보통 한 작두꾼의 역할이다.

⑥ 풀은 동트기 전부터 산에 가서 베어오며, 보통 작두로 써는 작업은 오후에 이루어진다. 풀이 많아서 늦게 까지 작업을 할 때는 횃불을 들고 썰었다.

⑦ 작두를 딛는 사람은 힘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담당했다.

⑧ 작두에 풀을 멕이는 사람이 가장 위험했으며. 침착하고, 술을 덜 마시는 사람으로 서 마을에 특별히 풀을 잘 멕이는 사람이 있었다.

⑨ 〈풀써는소리〉는 풀을 갈라서 놓아주는 사람이 구연했다. 〈풀써는소리〉를 담당했던 사람은 보통 입담이 좋고 즉흥적으로 사설을 구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⑩ 풀은 30-50cm의 길이로 썰었다.

⑪ 일부 몇몇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풀을 하던 날은 마을축제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⑫ 풀을 할 때 먹었던 대표적인 새참은 새벽참의 칼국수와 저녁참의 올챙이묵이고, 막걸리는 옥수수막걸리였으며, 특별식으로 칡떡을 해먹었다. 아침과 점심은 밥을 먹었다.

⑬ 작두풀은 겨우내 마굿간에 깔아서 소똥과 함께 섞어 밭작물의 거름으로 이용했다.

인제 〈풀써는소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풀써는소리〉에서 나무나 풀이름을 주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강원도의 타지역과 구분되는 인제 〈풀써는소리〉만의 특징으로 노랫말에도 다양한 나무가 등장한다. 아래는 인제 〈풀써는소리〉에 등장하는 나무와 풀이다.

① **인제 〈풀써는소리〉에 등장하는 나무 종류** : 사시나무, 뽕나무, 북나무, 보소리, 소나무, 물갈나무, 떡갈나무, 광대싸리, 쪼록싸리, 참싸리, 밤나무, 옻나무, 감나무, 개금나무, 오동나무, 향나무, 주목나무, 오리나무, 박달나무, 피나무, 싸리나무, 고로쇠나무, 가죽나무, 엄나무, 잣나무, 다래나무, 소태나무, 전나무, 개똥나무. 느티나무, 가래나무, 자작나무, 등나무, 스무나무, 대추나무, 개금나무, 홍두깨나무, 들충나무, 신탁나무, 동배나무, 버들나무, 가시나무, 느릅나무, 가닥나무

(물푸레나무, 황경나무 - 노랫말에는 나오지 않으나 거름으로 썼던 나무)

② **인제 〈풀써는소리〉에 등장하는 풀의 종류** : 칡덤불, 청오칡, 뱅뱅이, 쑥대, 국시대이, 갈풀, 갈다리, 장자덤불, 가시덩굴

(멀구덤불 - 노랫말에는 나오지 않으나 거름으로 썼던 풀)

③ 인제 〈풀써는소리〉의 노랫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러리”와 “노천이여”이다. 우러리는 굵은 나무가 들어가니 힘을 주어 딛으라는 뜻이고, 반대로 “노천이여”는 풀이 없거나 약하게 들어가니 힘을 주지 말라는 뜻이다.

④ 굵고 야무진 나무가 들어갈 때 쓰는 ‘우러리’와 같은 상황으로 ‘빵대우러리’, ‘왕다리, 왕우러리’등이 있다.

⑤ 순수하게 풀만 들어갈 때의 상황으로 대표적인 노랫말은 ‘지렝이 갈빗대’이다.

⑥ ‘지렝이 갈빗대’와 같은 상황으로 ‘엉쿨덩쿨’, ‘무른데미’, ‘이빨 빠진 것들도 다 먹는다’등의 노랫말이 있다. 풀이 무른 것은 쑥대, 덤불, 개금나무 등이다.

⑦ 작두를 딛는 사람의 다리를 묘사한 말로 ‘두껍다리’, ‘쇠꼽다리’, ‘무쇠다리’등이 있다. 이는 작두를 딛는 사람의 다리가 쇠처럼 강하고 억세다는 의미이다.

⑧ 작두를 딛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로 ‘개다리 힘줘라’, ‘양다리 힘올랐다’등이 있다. 이는 다리가 기운이 좋아서 힘을 들여 잘 딛는다는 뜻이다.

⑨ 작두를 표현한 노랫말로 ‘작두는 게걸작두’가 대표적이며, 게걸스럽게 먹는다는 의미로 풀이 잘 썰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⑩ 풀을 멕이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말로 ‘일시도 맘놓지마라’가 있다.

⑪ 작두를 들어 올려 벌리라는 의미로 ‘아가리 딱딱 벌려라’가 있다.

⑫ 풀이 한아름 들어갈 때 ‘아름드리 들어간다’와 풀이 많이 들어갈 때 ‘과타’도 일러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작두를 딛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과해도 과탄 말이 없구나’등이 있다.

⑬ 나무의 성질이 질기고 야물어서 힘을 줘야하는 나무에는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싸리나무 등이 있다.

〈풀써는소리〉를 구연했던 목적은 첫째, 작두를 딛어서 풀을 써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어 작두를 딛는 힘의 강약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둘째, 그냥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으며 심심하거나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인제 〈풀써는소리〉는 특히 노랫말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한 사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이다. 타 지역에서는 〈풀써는소리〉의 현장적 상황에 집중하여 일의 진행에만 몰입하는 반면에 인제 〈풀써는소리〉는 다양한 나무나 풀이 등장하고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됨으로써 노랫말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풀써는소리〉에 이미 내포되어 있던 익살이나 해학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인제〈풀써는소리〉의 이러한 특징은 생태학적 인식이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풀써는소리〉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산림의 상호관계에서 보여주는 생태적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랫말로 표출되는, 나무에 부여하는 다양한 감성들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우리 산림문화의 인문학적 자산이다. 또한 나무의 성질을 알아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산림전통지식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인제 풀써는소리〉의 음악 분석

박정경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풀써는 소리는 논에 거름을 넣을 퇴비를 만들기 위해 작두로 풀을 썰면서 하는 소리다. 강원도에서는 지형적 조건 때문에 '풀을 많이 했다'고 한다.[14] 풀써는 소리는 삼척, 인제, 홍천, 원주 등 강원도 일대에서 폭넓게 채록되었고, 유사한 소리로 경상북도에 '작두질 소리'가 조사된 바 있다.[15] 지금까지 풀써는 소리는 『한국민요대전』과 같이 향토민요를 폭넓게 조사하고 채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풀써는 소리의 노랫말이 단순하고, 노래라고 하기엔 구호에 가깝다는 점이 가장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강원도 인제에서 조사된 풀써는 소리 중에는 규칙적인 리듬과 선율이 있는 것이 있어 흥미를 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고 속도를 맞춰 진행되는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강약과 리듬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 리듬이 단순하고 빠르게 주고받는 노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래에 가깝다는 점은 분명히 다른 지역 풀써는 소리와는 구별되는 인제 풀써는 소리만의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강원도 인제에서 조사된 풀써는 소리를 음악 요소에 따라 분석해 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제 풀써는 소리와 다른 지역 풀써는 소리를 비교하여 풀써는 소리가 지닌 다양한 존재양상과 특징을 함께 규명해보기로 하겠다. 풀써는 소리의 연행 방식, 민속적인 의미,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노랫말의 특징은 본고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2 인제 풀써는 소리의 음악 분석

분석 대상은 곡인데, 두 곡 모두 김진옥(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79세)이 노래했다. 따라서, 본고의 인제 풀써는 소리가 인제군의 전반적인 특징일지, 아니면 가창자의 특수성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본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음악의 요소인 리듬과 가사 붙임새, 선율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4 박관수, 『풀써는 소리의 이해』(서울:민속원, 2006), 4쪽.
15 현지 명칭은 '풀써는 소리'라고 명시되어 있다.(MBC, 『한국민요대전-경상북도 민요해설집』(서울: MBC, 1995), 293쪽.

〈표 1〉 강원도 인제 풀써는 소리 목록(동일 가창자 2곡)

구 분	세부지역명	노래명	가창자(출생연도)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풀써는 소리 1	김진옥(1922)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풀써는 소리 2	김진옥(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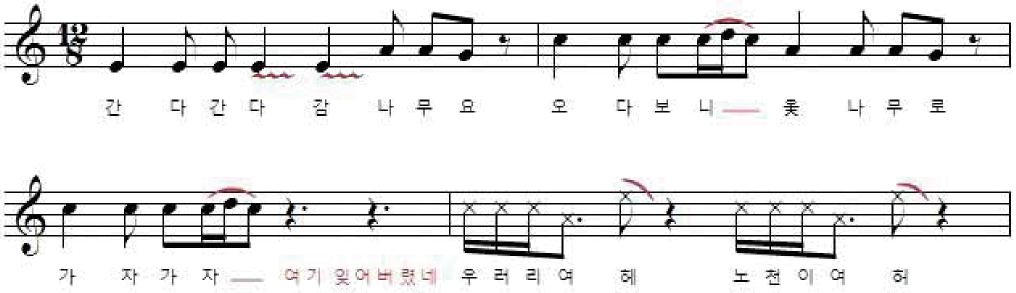
1) 리듬형과 박자

인제 풀써는 소리는 거의 규칙적으로 3소박 4박자로 불리워진다. 노동요인데다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규칙적으로 풀을 썰기 위해서는 리듬감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혼자 흥얼거리며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한참 쉬거나, 속도가 불규칙한 점이 있다. 노래하는 속도는 한 곡은 ♩.=66으로 좀 느리고, 다른 하나는 ♩.=85로 좀 빠르다. 이 풀써는 소리가 채록된 상황은 실제 노동을 하면서 노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분석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리듬형은 강박에 정확히 사설이 붙는 단순한 형태고, 〈악보 1〉과 같이 장-단-단-장의 리듬꼴로 노래를 이어간다. 1자 1음, 혹은 1자 2~3음으로 노래하고, 사설 7~8자가 단위를 이루어 한 장단이 된다. 중간에 "우러리[16]여", "노천이여"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굵은 나무를 자를 때 힘을 줄 수 있도록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즉, 음악적 단락과는 관계없이 노래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삽입될 수 있는 '구호'로 볼 수 있다.

갓		난	아	기		자		장	나	무	
장		단	단	장		장		단	단	장	

〈악보 1〉 인제 풀써는 소리의 리듬꼴



〈악보 2〉 "우러리여" 삽입 예시(소리: 김진옥, 채보: 박정경)

16 풀이나 나무가 한 해 묵어서 굵은 것,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 민요해설집』(서울: MBC, 1996), 1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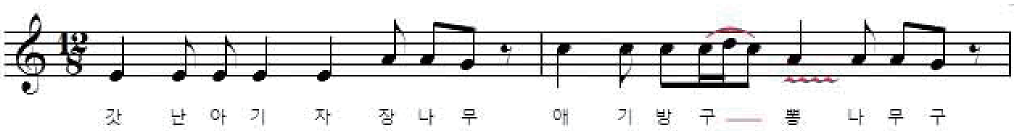
2) 선율의 특징

인제 풀써는 소리의 선율은 두 곡을 같은 가창자가 불렀지만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노랫말을 보지 않고 구연한 것을 첫 번째, 노랫말을 보면서 노래한 것을 두 번째로 구분하고, 출현음, 선율형과 시김새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풀써는 소리 1

출현음은 Mi, Sol, La, do, re의 5음으로, 최저음은 Mi, 최고음은 re다. 하지만 re는 do에서 살짝 멋을부려 꾸밈음을 넣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 골격음은 Mi, Sol, La, do의 4음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한 옥타브에 미치지 않는 좁은 음폭에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중간 음역대를 사용하고 있다.

선율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저음인 Mi에서 시작하여 La로 상행했다가 Sol로 끝내는 형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음에 해당하는 do에서 시작해서 중간음인 La로 하행했다가 Sol로 맺는 형이다. 즉, 숙여내는 형과 질러내는 형,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중간음역에서 시작하는 선율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랫말 7~8자를 한 장단으로 노래하고, 그 끝은 모두 La에서 Sol로 살짝 내려서 맺는다.



〈악보 3〉 인제 풀써는 소리 1 선율형 예시(소리: 김진옥, 채보: 박정경)

〈악보 3〉에서 보듯이, 질러내는 형에서는 do-re-do로 중간에 살짝 멋을 부리듯 굴려내는 음이 있다. 단순히 떠는 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do-re-do의 정확한 음을 따라 가기 때문에 정식 출현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낮은 Mi와 La에 가끔 요성이 붙는데 강하지는 않다. 단지 장형 리듬, 즉 긴 시가의 음을 낼 때는 가볍게 떨어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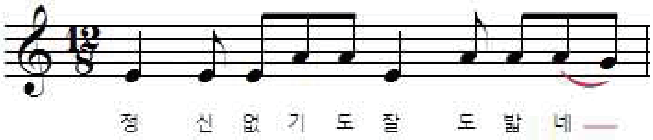
(2) 풀써는 소리 2

출현음은 풀써는 소리 1과 마찬가지로 Mi, Sol, La, do, re의 5음이고, 최저음은 Mi, 최고음은 re다. re는 do에서 살짝 굴려주듯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으로 시가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 즉, 풀써는 소리 1에 비해 re의 사용 빈도가 높고, 짧지만 시가를 가진 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음폭과 음역대는 풀써는 소리 1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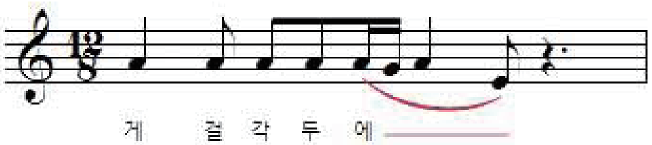
선율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최저음인 Mi에서 숙여내는 형, 두 번째는 중간음역대인 La로 시작하는 중간형, 나머지 하나는 do로 시작하는 질러내는 형이다. 숙여내는 형은 Mi에

서 La로 올라갔다가 끝을 살짝 내려 Sol로 맺어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Sol로 흘려 내리지 않고 La로 맺기도 한다. 중간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La로 시작해서 Mi로 하행하거나, do로 상행했다가 다시 La로 내려와 맺는다. 역시 Sol로 흘려 내리기도 하고 La를 뻗어서 내기도 한다. 마지막, 질러내는 형은 La로 하행해서 맺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La에서 Mi까지 하행했다가 다시 La로 올라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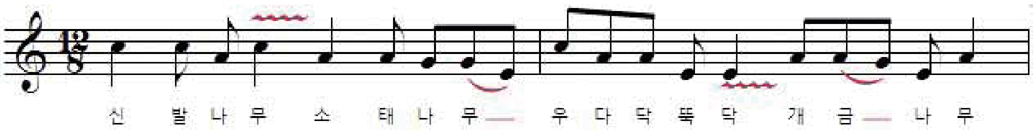
(숙여내는 형)



(중간형)



(질러내는형)



〈악보 4〉 인제 풀써는 소리 2 선율형 예시(소리: 김진옥, 채보: 박정경)

요성은 특정 음에 붙는다기보다는 시가가 긴 음을 자연스럽게 떨어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악보 4〉에서 보듯이, Mi, La, do 세 음에 나타난다. La에서 흘려 내리는 음인 Sol, do에서 살짝 상행했다가 내려올 때 나오는 re는 떨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창자가 이 음악의 주요 골격음을 Mi, La, do 세 음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타 지역 풀써는 소리와의 비교

인제 풀써는 소리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근 강원도 지역 및 경상북도에서 채록된 풀써는 소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의 인제 풀써는 소리와 함께 채록된 삼척시 가곡리 풀써는 소리, MBC 『한국민요대전』에 채록된 강원도지역의 풀써는 소리와 경상북도 지역의 풀써는 소리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강원도 기타 지역 및 경상북도 지역 풀써는 소리 목록

구 분	세부지역명	노래명	가창자(출생연도)
강원도	삼척시 기곡리	풀써는 소리	김영주(1939) 방동진(1936)
	삼척군 도계읍 신리 오산촌[17]	풀써는 소리	장덕술(1938)
	삼척군 원덕읍 기곡리 중천배	풀써는 소리	김영주(1939) 김영출(1939)
	원주군 소초면 교향리 독점	풀써는 소리	박상진(1930)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물걸	풀써는 소리	김동선(1916)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사재을	풀써는 소리	변형근(1922) 심운택(192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작두질 소리 · 풀써는 소리	이상중(1939) 강사원(1939)
	영양군 석보면 답곡1리 논실	작두질 소리 · 풀써는 소리	이현정(1936) 박정락(1931)

1) 강원도 삼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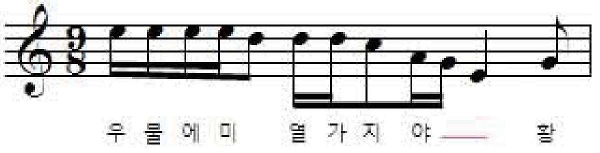
삼척 풀써는 소리는 인제 풀써는 소리와는 달리 구호에 가깝다. 특히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도계읍 신리 오산촌 풀써는 소리와 원덕읍 기곡리 중천배 풀써는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구호로만 이루어져 있다. 리듬감이 있어 흥겹고, "어허 우러리", "어허 우러리야"가 주기적으로 들어가 현장감이 살아있다. 마지막에 "이후호호호"하는 의성어가 나온다.

이에 비해 2000년에 채록된 김영주, 방동진이 노래한 풀써는 소리는 노래와 말의 중간 정도로 보인다. 곡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말로 하는 부분도 음의 높낮이가 있어서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중간에는 정확히 노래로 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다. 특히 같은 지역의 같은 가창자가 부른 김영주의 풀써는 소리가 확실히 비교된다.

2000년 김영주가 부른 풀써는 소리 중 노래 부분을 살펴보면, 3소박 4박자의 리듬감이 살아있지만 불규칙하다. 1자1음, 혹은 1자 2~3음으로 가사붙임새는 단순하나 빠르고 촘촘히 읊조리듯 노래한다. Mi, Sol, La, do, re, mi의 6음이 출현하고, 한 옥타브에 해당되어 인제 풀써는 소리보다 오히려 넓은 음폭을 사용한다. 최저음인 Mi로 숙여내는 형과 La로 시작하는 중간형, 최고음인 mi로 질러내는 형이 고루 나오고 선율의 흐름이 다양하지만, 노래로 한 부분이 짧아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강원도 메나리토리 특징인 La-Sol-Mi로 빠르게 흘러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래에서는 한 번만 나타나지만, 이 역시 노래 부분이 짧기 때문에 삼척 풀써는 소리에 메나리토리 선율이 어느 정도 가미되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요성은 Mi에 가볍게 들어간다.

17 지역명은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것이 삼척군, 원주군 등 지금과는 다르지만, 책자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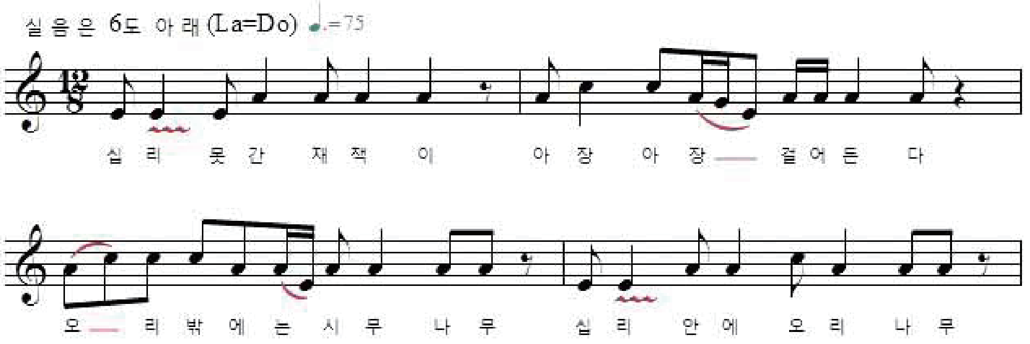


〈악보 5〉 삼척 풀써는소리 선율 예시(소리: 김영주, 방동진, 채보: 박정경)

2) 강원도 원주

역시 말에 가깝고, 여러 사람이 주고 받으며 리듬감 있게 엮어 나간다. 원주 소초면 교항리 독점 풀써는 노래에는 중간에 노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랫말 중에 "십리 못간 재잭이 아창 아창 걸어든다"하는 부분이 나오면 곡조를 붙인다. 이 때, 리듬은 역시 3소박 4박자로 규칙적이고, 전체적으로 말로 주고받는 부분의 속도와 거의 같다. 출현음은 Mi, Sol, La, do의 4음이고, 한 옥타브에 못 미치는 음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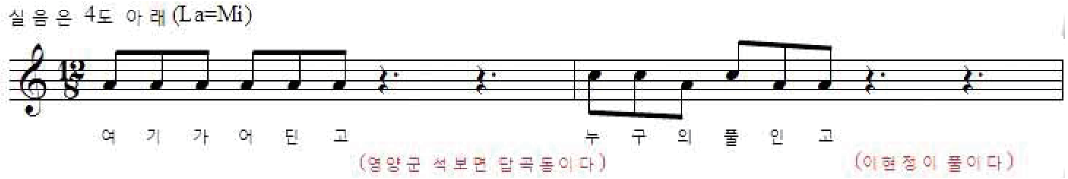
리듬형은 '단-장-단-장'을 기본으로 하고, 중간에 '장-단-단-장'을 섞어서 변화를 준다. 선율은 "십리 못간 재잭이"와 "아창 아창 걸어든다"에 쓰인 형태가 그 뒤에도 반복되는데, Mi로 숙여내는 형과 La로 시작하는 중간형 두 가지가 나타난다. 메나리토리 특유의 La-Sol-Mi의 흘려 내리는 선율이 나온다. 요성은 최저음인 Mi에만 가볍게 넣었다.



〈악보 6〉 원주 소초면 교향리 독첨 풀써는 소리 노래부분(소리: 박상진, 채보: 박정경)

3) 강원도 홍천 · 횡성, 경상북도 봉화 · 영양

이 지역의 풀써는 소리는 선율 부분이 없고, 풀써는 행위와 맞물려 주고받는 구호로만 되어 있다. 힘을 합쳐 풀을 썰었기 때문에 작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어가 리듬감이 잘 살아있다. 특별히 경상북도 영양 작두질소리는 처음 시작할 때 선율감이 있는데, 그 뒤에도 음의 높낮이가 다양해서 노래하듯 들리기는 하나, 이는 경상도 방언의 억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악보 7〉 경북 영양 석보면 답곡1리 작두질 소리 시작부분(소리: 이현정, 채보: 박정경)

4 맺음말

지금까지 인제군과 그 밖에 강원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에서 채록된 풀써는 소리 혹은 작두질 소리에 대한 음악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지역마다 가창자가 한두 명, 특히 연행과 소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소리가 지역이나 풀써는 소리라는 장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작두질, 혹은 풀을 써는 토속문화가 사라져버린 지금은 현재 남아있는 소리들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풀써는 소리에서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는 3소박 4박자의 리듬감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여러 지역에서 풀써는 소리가 채록되었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리듬으로 되어 있다. 4박자는 앞 2박과 뒤 2박이 짝을 이루어 주고받는 소리에 편리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풀을 작두에 밀어넣는 행위와 작두를 밟아 풀을 써는 행위가 짝을 이루어 손발을 맞추는데 자연스럽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규칙성은 풀을 써는 노동의 신속함과 정확성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는 말, 구호, 노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적인 성격이다. 말이라고 하기엔 리듬감과 주고받는 형식이 잘 살아있고, 구호라고 하기엔 사설의 내용이 다양하다. 한편, 노래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하고, 읊조리거나 툭툭 내뱉는 방식으로 소리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것이다. 노래로 인식할 수 있는 리듬감과 선율감이 살아있는 부분이 중간에 삽입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풀써는 소리는 노래 부분이 없다.

세 번째, 그에 비해 인제 풀써는 소리는 리듬과 선율을 가진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 옥타브 이내의 좁은 음폭을 구사하며, 시김새가 거의 없고 단순한 선율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적인 변화보다는 숙여내는 형, 중간형, 질러내는 형 등 2~3가지 선율형에 리듬감을 살려 노래한다. 일의 흥을 돋우며 일의 효율을 높이는 노동요가 지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소리라 할 수 있다. 강원도지역 특유의 메나리토리 선율 방식도 풀써는 소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표 3〉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 풀써는 소리의 음악적 특징

구 분	세부지역명	장단 · 리듬	구성	선율 특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3소박4박자	노래+구호	단순
	삼척시 기곡리	〃(약간 불규칙)	말+구호+노래	단순, 메나리 약간
	삼척군 도계읍 신리 오산촌	3소박4박자	말+구호	-
	삼척군 원덕읍 기곡리 중천배	〃	말+구호	-
	원주군 소초면 교향리 독점	〃	말+노래	단순, 메나리 약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물걸	〃	말+구호	-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사재을	〃	말+구호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	말+구호	-
	영양군 석보면 답곡1리 논실	〃	말+구호(+노래)	거의 말에 가까움

다만,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풀써는 소리 · 작두질 소리는 모두 실제 작두에 풀을 넣어 썰며 연행된 것에 비해 인제 풀써는 소리는 실제 행위를 하지 않고 소리만 재현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그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풀을 썰었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음악성이 있는 가창자가 리듬감이 있는 노랫말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되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제 풀써는 소리를 노래한 김진옥의 다른 민요를 더 채록하고 분석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말과 노래가 섞여있는 부분이 종종 발견되고, 그 노래 부분은 단순하지만 지역 민요의 음악 특징이나 방언의 높낮이를 살려 부르는 등 음악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말로 주고 받는 부분도 음고의 변화와 리듬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풀써는 소리처럼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는 노동요에서 '노래'로 구연되는 민요가 적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제 풀써는 소리는 다른 지역 풀써는 소리에 비해 음악적인 요소가 더 발달해 있다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관수. 『풀써는 소리의 이해』(서울:민속원, 2006)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 민요해설집』(서울: MBC,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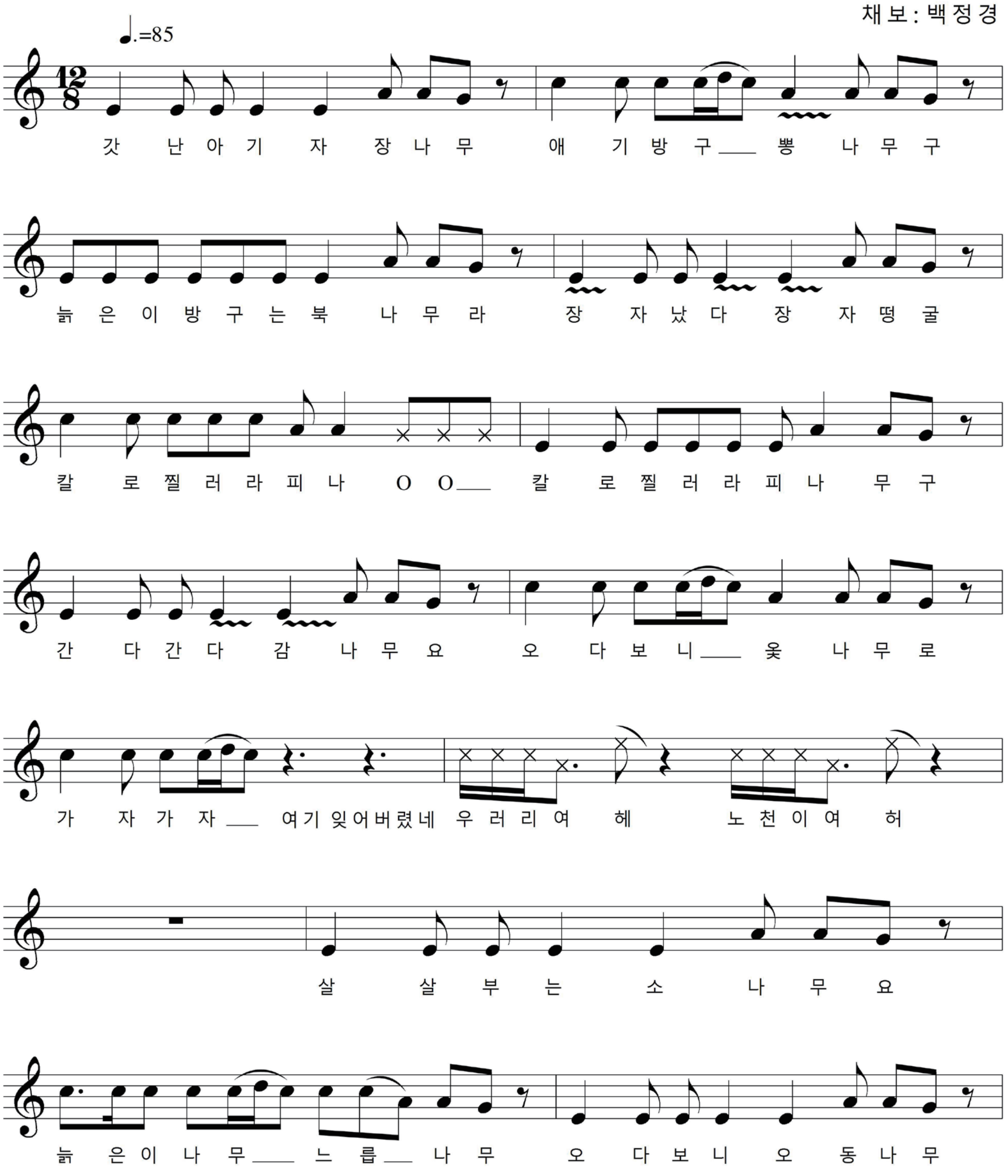
MBC. 『한국민요대전–경상북도 민요해설집』(서울: MBC, 1995)

참고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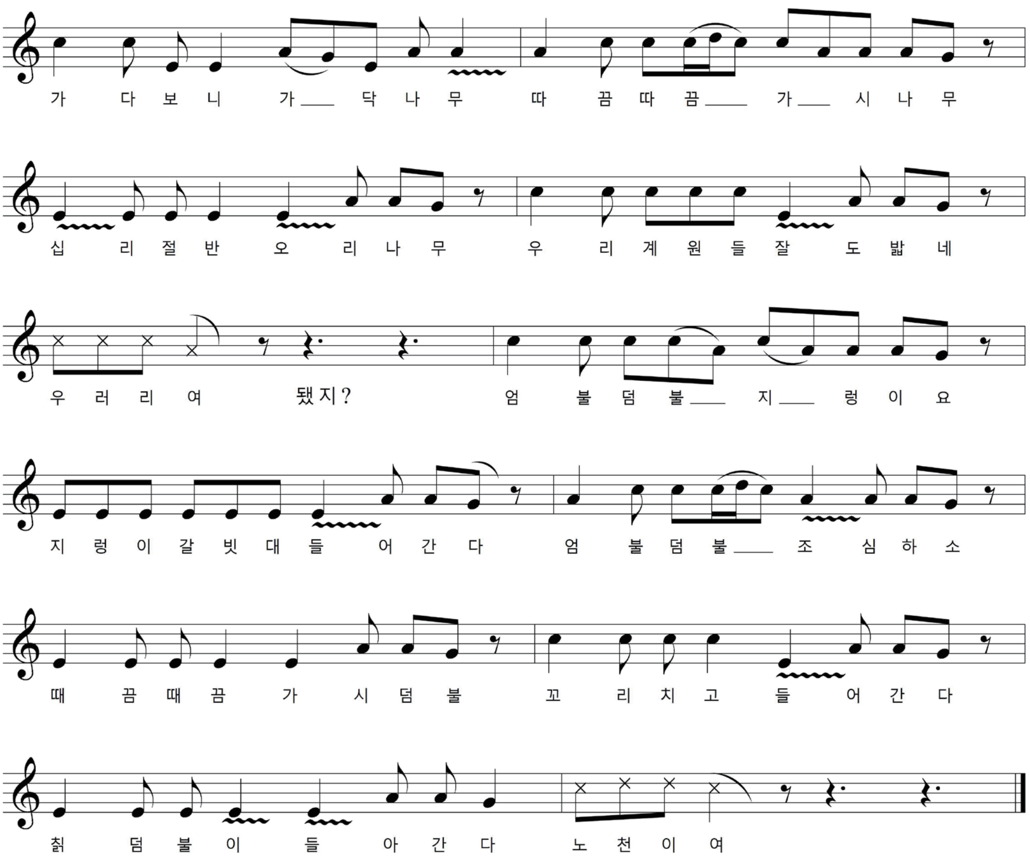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 경상도편

인제 풀써는 소리 1

소리 : 김진옥
채보 : 백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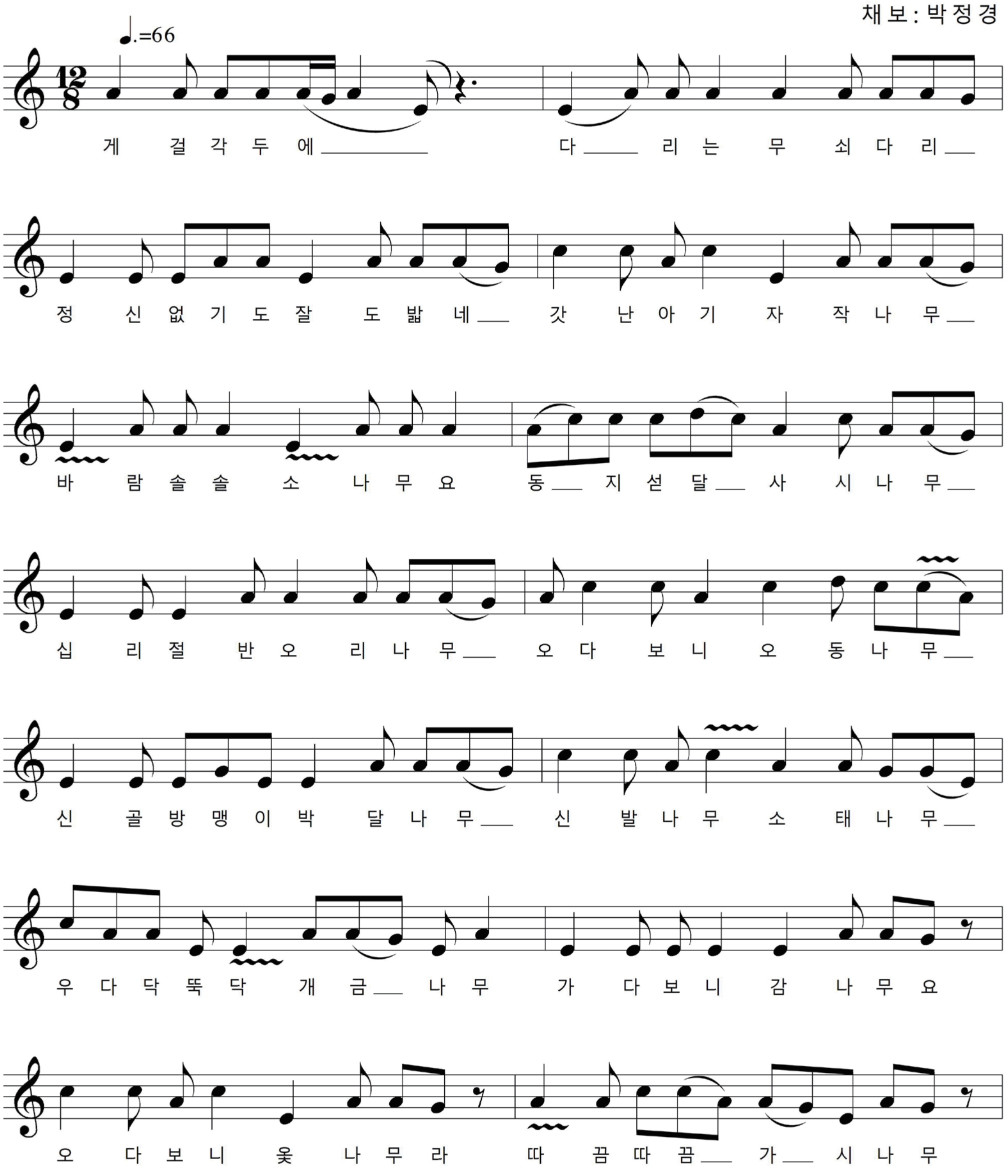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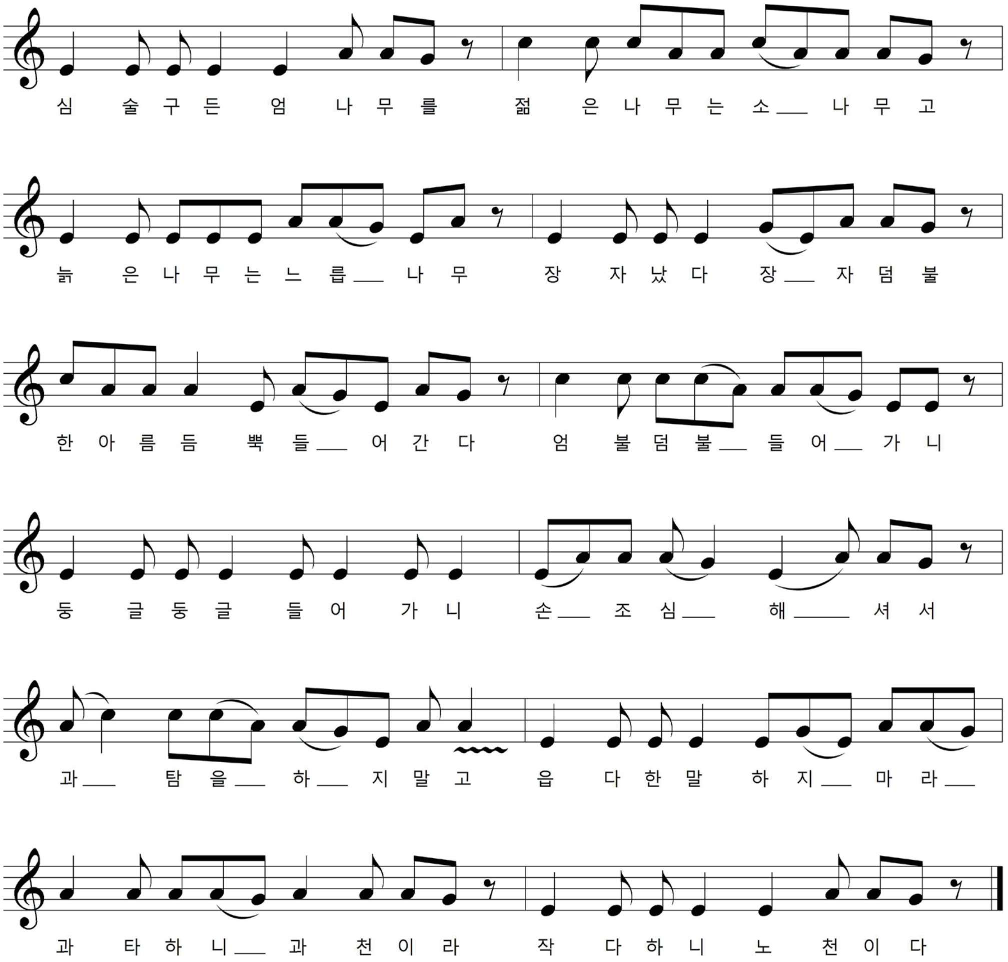

가 다 보 니 가___ 닥 나 무 따 끔 따 끔___ 가___ 시 나 무
십 리 절 반 오 리 나 무 우 리 계 원 들 잘 도 밟 네
우 러 리 여 됐 지 ? 엄 불 덤 불___ 지___ 렁 이 요
지 렁 이 갈 빗 대 들 어 간 다 엄 불 덤 불___ 조 심 하 소
때 끔 때 끔 가 시 덤 불 꼬 리 치 고 들 어 간 다
칡 덤 불 이 들 아 간 다 노 천 이 여

인제 풀써는 소리2

소리 : 김진옥
채보 : 박정경



2


심 술 구 든 엄 나 무 를 젊 은 나 무 는 소 나 무 고
늙 은 나 무 는 느 릅 나 무 장 자 났 다 장 자 덤 불
한 아 름 듬 뿍 들 어 간 다 엄 불 덤 불 들 어 가 니
둥 글 둥 글 들 어 가 니 손 조 심 해 셔 서
과 탐 을 하 지 말 고 읍 다 한 말 하 지 마 라
과 타 하 니 과 천 이 라 작 다 하 니 노 천 이 다

삼척 풀써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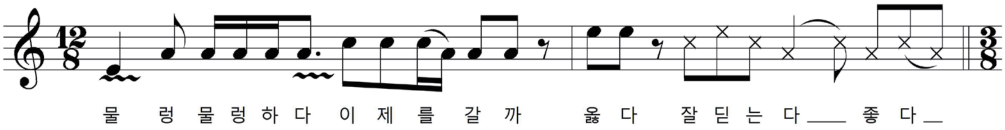
소리 : 김영주, 방동진
채보 : 박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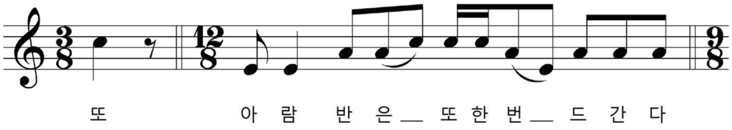
-1-

연에 우러리야
지렝이 갈빗대다
아따 이거는 과타
어 이 과쿠나
여기 이거는 디딜까
이거를 한번 썰아낼까
연에 우러리야

-2-
자아 일꾼들 일루 오시오
자 한 보따리 드갑니다
자아 이쪽으로 놔라
자아 아람 반이다
자아 우물에미 열가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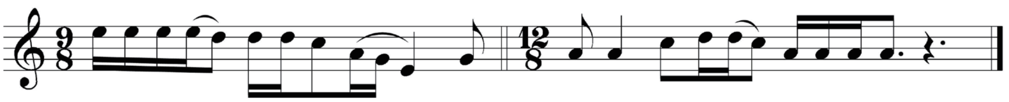
말과 노래를 섞어 자유롭게 / 실음은 4도 아래(do=La)





잘 디딘다 야 니 참 잘 누린다 옳지
빨리 여 풀 넣어
내가 메실께 빨리 놔

2



옳다 잘도 메신다 누가 메시나 좋다 자
뒤 빨리 풀 넣어 여 니 왜 늦어 빨리 빨리 놔

제5장 강원도지역 〈풀써는소리〉의 전승양상

〈풀써는소리〉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산간노동요로서 인제군을 비롯하여 삼척시, 홍천군, 원주시, 횡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승되었다.

강원도 삼척시의 사례를 보면 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예전부터 마굿간에 넣는 갈풀은 백로 때 베어서 썰었으며 이 마을 20여호가 서로 어울려 품앗이로 돌아가며 썰었기 때문에 20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 풀을 썰 때 동원되는 인원은 둘이 작두를 딛고, 풀을 넣는 사람 1명, 풀을 놓아주는 사람 1명, 풀을 아름 안아서 갖다주는 사람 1명, 썰어 놓은 풀을 끌어내는 사람 2명, 풀더미를 만드는 사람이 1명으로 모두 8명이다. 썰어 놓은 갈풀은 겨우내 마굿간에 넣어서 소똥과 섞어 봄에 밭에다 거름으로 낸다. 갈풀의 종류는 갈나무, 참풀, 떡갈나무, 싸리, 잡풀 등이다. 풀은 이 외에 마굿간에 넣지 않고 순수하게 퇴비용으로 준비하는 짐풀이 있다. 짐풀은 거름을 만들려고 어린 풀을 베어다 썰어 놓은 것으로 소가 밟지 않아도 잘 썩으며 무게가 더 있다고 한다. 소 먹이 풀처럼 조금씩 베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품앗이 등에 의해 대규모 작업을 하며 짐으로 져 나른다고 짐풀이라 한다. 짐풀은 대부분 논매기가 끝나고 베기 시작하여 가을에 큰 작두를 놓고 썬다.

각 지역마다 봄에는 갈을 꺾어서 논에다 넣고 음력 7-8월에는 퇴비풀을 베어왔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갈꺾는소리〉는 봄철 소만 무렵에 논에 거름으로 넣을 갈나무의 햇순을 꺾으며 부른 민요이다. 예전에는 논에 갈을 꺾어 넣으면 잡초도 많이 나지 않고 좋은 거름이 된다고 하여, 발이 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꺾어서 넣기도 했다. 그러나 보통은 한 마지기 150평에 다섯 짐 정도를 꺾어서 넣었다. 갈을 꺾을 때는 날을 잡아서 일정한 지역에 인근의 일꾼들이 모두 모여들어 함께 작업을 했고, 농사 규모에 비해 일꾼이 모자라는 집은 품을 사서 꺾기도 했다. 갈을 꺾을 때 부르는 민요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강원도에서는 갈을 꺾을 때 보통 〈아라리〉를 부르지만 홍천의 일부 지역에서는 〈미나리〉를 불렀다고 한다. 인제군에서는 갈을 꺾으러 갈 때나, 산에서 꺾을 때 심심하면 〈아라리〉(인제에서는 아리랑타령 또는 신세타령이라 함)를 부르기도 했다는 사례가 있다.

〈춘천 갈꺾는 소리〉

(1994. 6. 8 / 춘천군 서면 현암리 지시울 / 최승춘, 남, 1940)
이 갈 꺾어 넣고
저갈 꺾어 느면은
칠팔월 수확 할 제 배는 불러

이 갈 안 꺾으면 나는 못살아
갈 꺾어 넣고 모 내 노면은
부글부글 삼복지경에
하루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가지는 세가지 네가지 치는데
이내 몸은 왜 이렇게 배가 고파

해설 : 봄에 논거름으로 넣을 갈나무 햇순을 꺾으면서 부르는 갈 꺾는 소리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이 아라리 따위를 부른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노래처럼 개인적으로 신세타령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8]

갈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후후후"소리를 지르며 내려왔다는 지역이 곳곳에서 조사되었고, 또한 갈짐을 지고 내려올 때 부르는 소리가 따로 전승되는 곳도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조사된 갈짐 져나르는 소리는 아래와 같다.

오호호 오호호야아 에헤 에헤야 노하하호
　에헤 헤헤에에 에헤야 노하오
오호 호오오 오호호야하아 에헤 에헤야 노하하호
　오호 오오호오 에헤야 에헤 에헤야 노하호
오호 호오오 오호호야하아 에헤 에헤야 노하하호

오호오오 오호호야하 에헤이 에헤이야 노하하호
오호오오 오호호야하 에헤이 에헤야 노하하오

예전에는 갈을 꺾는 시기에 산에 가면 이등 저등에서 갈짐을 지고 내려오며 하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고 한다. 갈짐을 지고 내려오며 부른 소리는 패를 나누어서 부르기도 했으며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도 많이 했다고 한다.[19]

위의 노래는 특별한 노랫말 없이 구음으로만 구성된 민요인데 이러한 형태는 충청도 지역의 갈짐 지는 소리에서도 나타난다.

〈풀써는소리〉는 지역마다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음악적으로 일정한 곡조 없이 외치는 소리로 단순하게 구연하며 들어가는 풀의 종류에 따라 반복되기도 한다.

아래의 삼척지역에서 전승되는 〈풀써는소리〉를 보면 실제의 현장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사설에 등장하는 나무는 참나무, 싸리나무, 물푸레나무, 소나무 등 매우 단순하고 더구나 풀이

18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 (주)문화방송, 1996. 432쪽.
19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 (주)문화방송, 1996. 315쪽.

름은 나오지 않은 채 그냥 '물렁하다'는 신호만 주고 있다. 즉 작두에 힘을 주고 썰어야 하는 '우러리'이외에 야무진 싸리나무, 꼴딱풀푸레, 참나무 등과 반면에 물렁하기 때문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하는 '안개오짐', '우물할미 속갈비'등을 일러주고 있다. 인제군의 〈풀써는소리〉 사설에는 나무이름과 풀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에 삼척시의 〈풀써는소리〉는 작두로 풀을 써는 현장적상황이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사설을 보면 작두작업에서 오는 극한의 위험을 수시로 알려주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재밌게 노니 좋다'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 놀이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인제읍 원대리의 실제 풀썰기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마을공동체의 신명과 술, 익살스러운 노랫말 등이 이미 놀이성을 띤 축제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척 〈풀써는소리〉

자 부산 갔다 왔구나 딱 벌어졌다
(앗다 썩었다)
자 안고 지고 막 드간다 가마솥 벽 등 달았구나
자 이거는 안개 오짐[1]이다
우물할미 속갈비[2]가 막 안고 지고 막 드간다
자 이거는 뭐이나
양지짝에 노랑싱거리 음지짝에 시커먼 먹싱거리[3] 막 드간다
자 일시도 맘 놓지마라[4]
잘 딛는다 하 잘한다 이 사람들 봐라
술 한 잔 더 줘야 되겠구나
자 이거는 양지쪽에 바싹 마른 노랑싱거리
이거는 저저 뭐시기 꼴딱뭄푸레[5] 드간다
자 재밌게 노니 좋다
이것 봐라 황장목꼭다리[6] 안고 지고 막 들어온다
앗따 이 사람들 참말로 근사하게 잘 써는구나
멋지다 멋져 잘 누린다 엄청나다 잘한다
자 안개 오짐이구나 이게
자 이거는 무엇이노
꼴딱물푸레 이거는 돌겻 모로 하는 꼴딱물푸레 드간다
일시도 맘놓지마라
적다고 맘 놓지마라 으신 누레라
자 이거는 무슨 낭기노[7] 이게가
이거는 마 뭔 낭긴지 몰신하다[8]
일년초구나 이게가
일년촌데 아람이 모자라 못 끌어놀다

이거는 물렁한 (자 우물할미 열가지다)
이거는 하마 몇년 묵은 낭기다 이거는
야 일년 이년 삼년 사년치게 드간다
이거는 일시도 맘 놓지마라 우러리다[9)]
사등뼈다 꽉 눌레라 으신 깨물어라 이건 잘 안떨어졌다
자 이거만 끌어내면 장사다 이 사람들 잘한다
하기는 잘한다

1) 안개 오짐 : 안개 오줌. 너무 물러서 흔적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표현한 말.
2) 우물할미 속갈비 : 덤불을 말함.
3) 싱거리는 나무의 일종. 음달에서 자라는 검은 빛이 나는 것을 먹싱거리라 하고, 양지쪽에서 자라는 누런빛이 나는 것을 노랑싱거리라 한다. 음달에서 자라는 먹싱거리는 밤나무 종류로 잎이 넙적하고 검은 빛이 나며 도토리 같은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데 물밤나무라고도 한다.
4) 풀을 썰 때 풀을 멕이는 사람이나 작두를 딛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손목이 잘리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말.
5) 꼴딱뭄푸레 : 물푸레나무의 일종으로 가늘어도 몹시 야물다고 한다.
6) 황장목꼭다리 : 풀에 소나무 가지가 섞여 있을 때 하는 말. 소나무만 황장목이 된다.
7) 낭기노 : 나무인가.
8) 몰신하다 : 물렁하다는 말.
9) 우러리 : 풀이나 나무가 몇 해 묵어서 굵은 것을 말함. [20]

삼척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풀써는소리〉가 좀더 다양하게 전승되었는데 사설을 보면 앞의 사례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 물러도 과타 : 무른(연한) 나무지만 많이 들어간다는 뜻.
2) 우러리 : 풀이나 나무가 한 해 묵어서 굵은 것을 말하며, 당년에 난 것은 연하다
3) 소꼬뱅이 : 발을 맬 때 쓰는 가는 나무라고 한다.
4) 안개 빼다구:너무 물러서 흔적이 없을 정도라는 말.
5) 지렝이 갈빗대 : 가는 싸리나무를 비유한 말.
6) 일시도 맘 놓지 말고 : 풀을 썰 때 풀을 멕이는 사람이나 작두를 딛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손목이 잘리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말.
7) 사시나무 : 나무 이름.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도 잎이 잘게 흔들린다고 한다.
8) 곶감꼬치 : 곶감꼬치에 쓰이는 나무는 싸리나무이다.
9) 쪼록싸리 : 빗자루 만드는 싸리. 참싸리는 야물고, 광대싸리는 굵으며, 조록싸리는 가늘다고 한다.
10) 꼴두물푸레 : 물푸레나무의 일종으로 가늘어도 몹시 야물다고 함.
11) 층층나무 : 베틀의 바디집으로 많이 쓰이며 굵고 야물다고 함.
12) 연에 : 같은 것이 연이어 들어간다는 말.
13) 과타 : 과하다. 풀이 너무 많다는 뜻.
14) 뭐시기 거시기 화시기 주시기 : 풀이 이것 저것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는 말이라고 함.
15) 뭄푸레 : 물푸레나무.

2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노인회관/ 천장수(남, 70세)/ 2000년 6월 29일 조사

16) 싸리꼬두리 : 싸리나무. 몹시 야물다.
17) 먹싱거리 : 음달에서 자라는 밤나무 종류로 잎이 넙적하고 검은 빛이 나며 도토리 같은 열매가 열린다고 함. 물밤나무라고도 한다고.
18) 옻나무 과텍이다 : '옻나무 등등이 들어간다'는 말이라고 함.
19) 물러도 과해 : 무른(연한) 나무지만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
20) 갈빗대 : 아주 보드랍고 무른 것.
21) 처녀삭두 : 처녀상투라고 하며, 음달에서 자라는 키가 큰 나무가 들어갈 때 '처녀가 상투를 틀면 크다' 는 데서 비유하여 부른 것이라고 함.
22) 처녀불알 : 그냥 재미있으라고 부른 것이라 함.
23) 곰방대 : 길이가 짧은 풀이나 나무를 비유하여 표현한 것.
24) 건네치기 : 두 번 썰 것을 한 번에 썰게 쑥 넣어 주는 것.[21]

다음은 홍천지역에서 전승되는 〈풀써는소리〉이다. 나무종류는 참나무나 싸리나무가 자주 등장하며 '작두는 게걸작두', '우러리', '응달쪽 물갈, 양지쪽 보서리'등은 인제군에서 조사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풀을 써는 상황을 좀더 풍부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홍천 〈풀써는소리〉

어여해라 해 어여 딛어 빨리!
빨리 빨리 딛어야지 어 잘한다!
참 한아름씩 안아 닥쳐![1)]
응달쪽 물갈[2)] 양지쪽 보서리야[3)] 자
우러리[4)] 들어간다 자!
맛 보지마 자[5)]
여 잘한다
꽝꽝 딛어라 꽝꽝 딛어 개다리 힘 올랐어[6)]
작두는 개걸작두구[7)]
다리는 쇠껵다리다[8)] 자 딛어
엄불 덤불 수박덤불이여[9)] 자
양구는 쑥대이 춘천은 무릉담[10)]
함경도 뭉청 들어가는구먼[11)]
안아 닥쳐라 안아 닥쳐
자 안아 닥쳐라
참싸리[12)] 알 박았다 오록조록 쪼록싸리[13)]
참싸리 알박아 도랑건네 쪽버들이다
응달쪽 물갈 양지쪽 보서리야 자
우러리 들어간다 딛어라 딛어 우러리 자
아가리 딱딱 벌려 우러리 들어
우러리 들어간다 자 풀꼬리 밟지 마라

21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 (주)문화방송, 1996. 147-155쪽. 참조

마구 왜 안쳐 마구 쳐야지[14] 빨리
그럼 빨리 빨리 해
자 우러리다 우러리야 자
잘먹는다 잘먹어
작두는 개걸작두요 다리는 쇠　다린데 잘먹는다
자 둥둥 울려 북낭구 처녀 방구꼈다 뽕낭귀야 자
한 다리 들었다 들무나무[15]
휘휘칭칭 물푸레 나무
자 응달쪽에 개금남이다[16]
덤불 덤불이 수박덤불이야 자
찔룩낭구[17] 덤불 들어간다 손 다칠라 정신차려라
덤불 들어간다 덤불 들어가
풀꼬리 밟을라 주의해라 풀꼬리 밟는다
풀꼬리 밟으면 나는 죽어[18]
자 잘한다 잘해
쇠꺽다리야 쇠꺽다리야 무 아가리 딱딱 벌려 잘 멕인다
잘한다 참
한 잔 먹구하자
그럼 먹어야지

1) 풀을 한아름씩 안아서 작두에 멕인다(넣는다)는 말.
2) 물갈 : 참나무(도토리나무). 응달에서만 자란다.
3) 보서리 : 굴피나무. 양지쪽에서만 큰다.
4) 우러리 : 굵은 나무.
5) '맛본다'는 것은 작두를 디딜려다 마는 것을 말함.
6) 개다리 심 올랐어 : 기운이 좋아서 잘 딛는다는 것을 우스개로 표현한 것.
7) 게걸작두 : '게걸스럽게 먹는다'는 말처럼 풀이 쑥쑥 잘 썰어진다는 뜻.
8) 쇠꺽다리 : 쇠처럼 강하고 억센 다리.
9) 엄불 덤불 수박덤불 : 칡덩쿨 등 각종 덩굴.
10) 무릉담 : 풀 이름. 무른 풀이다. 무른 풀로는 무릉담, 쑥대, 덤불, 개금나무 등이 있고, 야문 풀에는 보서리, 들미나무, 참싸리, 물푸레 등이 있다고 한다.
11) 풀이 한아름 '뭉청'들어간다는 소리. 함경도가 멀리 쑥 들어간 곳에 있기 때문에 비유한 것이라 함.
12) 참싸리 : 빗자루를 맬 때 쓰는 빨간 싸리나무.
13) 쪼록싸리:빗자루 만드는 싸리. 참싸리는 야물고, 광대싸리는 굵으며,조록싸리는 가늘다.
14) 마구친다 : 작두에서 썰어져 나온 풀을 끌어내는 것.
15) 들무나무 : 나무 이름. 물푸레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
16) 개금남→개암나무.
17) 찔룩낭구→찔레나무.
18) 작두에 풀을 멕일 때 뒤에서 풀 꼬리를 밟으면 작두에 풀이 들어가지 않고 주먹만 들어가 아주 위험하다.

해설 : 풀을 썰 때는 풀을 안아다 주는 사람, 풀을 멕이는 사람(소리하는 사람), 풀을 써는 사람(작두를 딛는 사람), 풀을 끌어내는 사람(마구치는 사람)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규모에 따라 여

러 명이 들어 갈 수도 있다. 작두는 둘이 딛는 쌍작두로 어깨동무를 하고 박자를 맞추어 딛는다. 논에는 원래 갈만 꺾어 넣다가 나중에 풀도 베어서 넣었다. 70여년 전인 가창자의 나이 여덟, 아홉살때 풀을 베어서 퇴비를 만들었으며 일본 사람들이 시켰다고 한다. 풀은 7월에 베어서 썰어 두었다가 겨우내 마굿간에 넣어 거름을 만들어 밭(보리, 옥수수, 콩밭 등)이나 논에 넣었다. 가창자는 이 소리를 열일곱살 무렵에 불러 보았다고 한다.[22]

원주 〈풀써는소리〉

야 개다리 심 올랐다 딛어라
야 무릉담이다
안개오짐이다 아
지렝이 갈비다
음달 신거리
야 양지에 보추리다
십리 못간 재잭이(자작나무)
아창 아창 걸어든다
어 잘 든다 어...
어 딛어
어 어 음달 신거리다 어
아 양지에 보추리 야
야아 백당너머 노리개다
아아 에헤 눌렀다 소꼬리빵
어 잘 든다 아
양지에는 보추리
십리 못간 재잭이
아창 아창 걸어든다
오리밖에는 시무나무
십리안에 오리나무

어 잘 든다!
무른담이다!
지렝이 갈비다 어 잘
지렝이 갈비다 야
일시 항시 맘 놓지 말고
연실 우러리다

싸리나무

22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 (주)문화방송, 1996. 482-483쪽.

연실 우러리 들어간다
연해 연실
어 잘 든다 야아
노천이여
야 홍천 좌천이여
여 잘 든다 어
연해 연신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짐치 들어간다

딛어라 자 들어간다
십리안에 오리나무
방구 꼈다 붕나무냐
펄펄 딛어라 들어간다
얼타 잘 딛는다
아따 술 나온다
또 온다
술 먹구서 뚜드려 보자
먼데 사람 또 한 번 보자
또 썰구서 또 보자
얼싸 잘한다
십리 안에는 오리낭구냐
오리낭구가 다 죽었나
북낭구냐 방구꼈다
훌떡 벗다 벚나무냐
펄펄 딛어라 다 나간다
이걸 끌고 무얼 갔냐
술 한잔 먹구 노래 불러
얼타 끄 얼타 어 으이
아 뭣들 해 빨리 디려와 잘 쓴다!
잘 넘어간다
어헐씨구 절씨구
이거 쓸어 무어 하느냐
워 이 심들어
위이!

풀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

기둥을 이용한 낫걸이

해설 : 작두로 풀을 썰면서 하는 소리. 밭에 있던 깻대를 썰면서 녹음했다. 원래는 풀이나 잡목을 닥치는 대로 베어다 썰므로 작두질 할 때 멕여주는 사람이 발디딤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나무의 종류나 굵기 등을 소리로 일려주는 것이다. 풀은 7–8월 쇠기 전에 베어서 썰어 두었다가 보리거름 등으로 썼다.[23]

횡성 〈풀써는소리〉

우러리야
일시두 맘 놓지 말고
지렝이 갈빗대다!
한아름 안고 닥쳤다!
대화 방림 새초거리
싸릿가지 강릉 꽂감꽂이
우러리
둥둥 울렸다 북나무
우러리
늙은이 방구 붕나무
젊은이 방구 뽕나무
아 우러리
한아름 안구 닥쳤다
일시도 맘 놓지 말구
자 개다리 심 올랐다
양다리 힘 올랐다
맛보지 말구
야 안구 닥쳤다
밀구 다려라
우러리!
일시두 맘 놓지 말고
우러리
야 개다리 심 올랐다
쾅쾅 딛어

대화 방림 새초거리
왜 이래!
우러리
조심해!
늙은이 방구 뽕나무

싸리나무를 엮어서 만든 거름삼태미(삼태기)

거름더미에서 삼태기로 거름을 퍼 내는 모습

23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 (주)문화방송, 1996. 301-302쪽.

젊은이 방구 붕나무
둥둥 울렸다 북나무
대화 방림 새초거리
일시도 맘 놓지 말고
발발 떨었다 사시나무
색시집에 부티나무
올러가 한참
내려가 한참
쉬어가민
개다리 심 올랐다[24]

마굿간에 깔아놓은 풀과 소

양양 〈풀써는소리〉 – 작두소리

여 우러리야
우러리여 드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엎어졌다 보들보들
자빠졌다 보들보들
우러리야
역넘에
꽂감꼬지
대굴령넘에
우러리다 작두가 씹는다
안 끊애지는 것 보니
우러리다
힘써라
개다리
심올레라
울섭다리 들어간다
울섭다리 들어간다
여라
우러리
대관령 넘에
국수댕이
어이[25]

곶감꽂이 싸리나무

24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 (주)문화방송, 1996. 523-524쪽.
25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김주기 남, 1936)/ 1994. 11. 25조사

작두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었기 때문에 잘 썰어 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소리에 담겨있다. 그리고 혼자 딛는 작두를 이용하여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구연한 것인데 작업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은 사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짧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즉 '개다리 심올레라'와 같은 경우 쌍작두의 풀썰기에서는 이 두마디를 부르는 동안에 작두질을 한번만 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는 두 마디로 나눠어 부른 만큼 작두도 두번을 딛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사례에서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현장상황이나 가창자 등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양양의 〈풀써는소리〉 중에서 나무이름으로 엮은 것이다.

〈양양 작두소리〉

느태나무 우러리다
느릅느릅 느릅나무 우러리다
흔들흔들 사시나무 우러리다
물가선 버드나무다
물갈나무 지렝이 갈빗대다
오독똑이 싸리나무다
널과 날과 벗나무다[26]

정선 〈풀써는소리〉

어라 우라리야
엎어졌다 업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문경새재 곳감꽂이
지랭이 갈빗대
일시도 마음을 놓지말고[27]

밭에 져다 놓은 거름더미

평창 〈풀써는소리〉

열에 우러리 또 들어가네
일심 한심도 맘 놓지말고
연에 연신 우러리 간다
대화 널쩍에 새추거리
새폭이라고서 맘 놓지말고
우물할미 중등치기

26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최상수(남, 76세)/ 1995년 1월 9일 조사
27 정선군 북면 여량1리 녹고마니 / 1994년 7월 17일조사

조심하여서 딛어 줄제
우리 동리에 노인 할아버지도
막걸리 잡숫고 구경도 잘한다
일심 한심 맘 놓지말고 꽝꽝 딛어라
우러리 우러리 잘도나 딛네
연실 연실 우러리요
늙으나 방군 뽕나무
젊으나 방구 뽕나무
뽕뽕뽕나무 다 썩었구나
우러리 콰광쾅 다 잘도 딛네
오늘 저녁엔 여기서 놀고
내일 저녁엔 저집에 놀자
연에 우러리 잘도나 딛네
다 쓸었다 작두 끌어라![28]

거름을 뿌리고 있는 모습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정한 곡조 없이 단순하게 외치듯이, 말하듯이 구연한 반면에 〈양양 작두소리〉는 곡조를 넣어서 구연했다. 이러한 점은 인제군 상남4리에서 조사된 것과 흡사하다.

강원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풀써는소리〉는 각각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다만 〈풀써는소리〉의 주요 목적인 정보의 전달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강원도 지역의 〈풀써는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인제 〈풀써는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풀에 대한 풍부한 사설이 있고, 음악적으로도 어느 정도 노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풀썰기의 주요 음식이었던 올챙이묵

질경이밥은 인제지역의 전통음식인데, 질경이는 보릿고개의 주요 구황식품이었다.

28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 8리 노인회관 김영기(남, 77세)/ 1994년 8월 12일 조사

제6장 맺음말

밭에 거름으로 주는 퇴비를 만들기 위해 풀이 무성해지는 늦여름 마을사람들은 공동작업으로 산에 올라 풀과 나무를 베어왔다. 이 풀들은 겨울 동안 외양간 바닥에 펼쳐놓게 되는데, 외양간에 펼쳐놓으면 겨우내 소들이 깨끗하게 지낼 수 있고 무엇보다 소의 오줌과 똥이 바닥에 펼쳐진 풀과 섞이며 자연스럽게 퇴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봄에 밭에 뿌려서 유용한 거름으로 사용했다.

산과 들에서 베어 온 풀은 마당에 쌓아놓고 작두로 30cm ~ 50cm정도씩 썰어놓는다. 그런데 그 양이 매우 많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풀베기는 마을 품앗이로 행해졌다.

풀베기와 풀썰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 집 풀 베는 날이 정해지면 7~10명이 모여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 풀과 나무를 베서 지게에 져온다. 한 사람이 보통 7~8번, 한 집에 쌓인 풀이 지게로 70짐 이상 된다. 그렇게 마당 가득 풀과 나무를 쌓아놓은 다음에 작두로 썬다. 한 쪽은 풀을 옮겨주고 한 쪽은 작두로 써는데, 이때 사용되는 작두는 손작두가 아닌 두 명이 발을 사용해서 쓰는 쌍작두, 발작두이다. 이때 〈풀써는소리〉를 한다. 이 소리를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힘을 돋우는 작용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작두의 힘 조절을 위해서다. 발작두는 작두칼 사이로 풀이나 나무를 밀어 넣어주는 사람과 작두를 밟아 써는 사람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마다 강도와 굵기가 달라 써는 사람에게 나무의 종류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곡조에 싣고 해학과 풍자를 섞어 기운을 부추기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풀써는소리〉이다. 〈풀써는소리〉는 입담이 좋고 순발력 있는 사람이 부르게 된다.

〈풀써는소리〉는 '작두소리'라고도 하며 가창방식은 독창, 또는 복창이나 작두를 딛는 사람이 가끔 힘을 주는 소리로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풀이나 나무를 작두에 멕일 수 있도록 풀을 갈라주는 사람이 내용물에 따라 즉흥적으로 부른다. 이는 일종의 신호로, 작두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딛는 사람에게 일러주어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일을 하는데 흥을 돋운다. 음악적인 가락은 별로 없고 말로 신호하듯이 그냥 부르지만 경쾌하다. 또한 사설을 보면 작두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유법을 사용함으로써 아주 재미있게 된다. 특히 인제 〈풀써는소리〉는 나무에 대한 내용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등장함으로써 사설이 풍부하다는 점과, 음악적으로도 어느정도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인제 〈풀써는소리〉는 나무에 대한 지혜와 친근함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산림전통지식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마을마다 이루어졌던 풀베기의 공동작업은 마을축제였으며 살아있는 민속예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진으로 보는

〈인제 풀써는소리〉 현장

1

풀을 베러 가기 전에 숫돌에 낫을 갈고 있다.

2

가까운 야산에서 풀을 벤다. 거름에 들어갈 풀은 주변에 있는 풀들도 이용하지만, 소만무렵 모내기를 위해 논에다 넣을 풀은 먼 산까지 올라가서 떡갈나무 순을 베어오기도 한다.

3

산에서 풀짐을 지고 내려온다.

4

거름으로 썼던 풀은 순수하게 풀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무들도 많이 섞여있었다. 우러리에 해당하는 굵은 나무줄기는 몇 년을 두고 오래도록 썩어서 거름으로서도 장점이 있었다고 한다.

5

숫돌에 작두날을 갈고 있다.

6

작두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풀을 썰기에 앞서 간단하게 떡과 막걸리를 부어놓고 작두고사를 지낸다.

7

풀을 썰기 위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각자 역할을 정하고 있다.

8

둘이 딛는 작두의 맞은 편에는 풀을 멕이는 사람과 썰어진 풀을 끌어내는 풀받이가 작두에 붙어있고 주변으로 풀을 갈라주는 사람이 멕이는 사람 옆에 있고, 끌어낸 풀을 거린대로 옮기는 사람이 풀받이 뒤쪽에서 작업한다.

9

썰어야 할 풀을 정리해서 날라다 주는 사람에서 부터 풀더미까지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두 명이 작두를 딛고, 풀을 멕이는 사람 옆으로 풀을 갈라주는 사람과 풀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다. 작두 너머에는 썰어진 풀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10

풀을 갈라주며 〈풀써는소리〉를 하는 심흥규가창자. 오른쪽에는 풀을 썰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 많이 들어갈 때는 한아름씩 들어간다는 내용이 노랫말에도 등장한다.

11

풀은 50cm정도의 길이로 썰며, 작두에서 썰어진 풀을 막대 두개를 이용하여 받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풀이 썰어지는 순간 튀어올라서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12

풀썰기는 여러 명이 조를 이루어 진행하는데 서너명이 썰어야 할 풀을 준비하여 작두 근처로 옮겨주면 한 사람이 작두에 풀을 넣고, 작두를 딛는 사람, 썰어진 풀을 끌어내는 사람, 풀더미를 만드는 사람 등이 있다. 쌍작두로 작업을 할 때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작두를 딛는데 두 사람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13

〈풀써는소리〉의 현장모습

14

썰어야 할 풀에서부터 작두를 거쳐 풀더미까지 일렬의 형태로 작업이 진행된다.

15

풀더미(또는 '풀가리'라고도 한다)를 만들고 있다. 이 풀은 겨우내 마굿간에 깔아서 소똥과 섞어 거름으로 만들며 이듬해 봄에 밭으로 낸다.

16

풀썰기가 끝나면 작두줄을 앞뒤로 끌며 놀이를 하는데 앞으로 끌면 황소이고, 뒤로 끌면 암소라고 한다.

17

작두고사에 제물로 바친 떡

18

막걸리 안주로 부친 전

19

칡떡은 풀을 할 때 해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으로 찰옥수수 풋강냉이를 갈아서 반죽을 하여 칡잎에 싸서 찌거나 굽는다.

20

풀써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원대리 아주머니들. 칡떡을 굽고, 전을 부쳤다.

부록

2015년 〈인제 풀 써는 소리〉 조사자료

2015년 〈인제 풀써는소리〉 조사자료
인제군 〈인제 풀써는소리〉 가창자 및 조사내용

1 인제군 북면 용대2리 노인회관 2015년 11월 11일 14시

용대2리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노인회장을 만났다.

〈풀써는소리〉를 알 수 있는 제보자는 별로 없다.

장곤옥(남, 93세)씨가 가장 연장자인데 오늘 속초로 출타했으니 추후에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라며, 농사도 짓고, 산에서 벌목하는 산판에도 다녔는데 아마 알 수도 있으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조사자가 길에서 속초로 가시는 장곤옥 제보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만나면 어느 정도 풍습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소리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마을을 나왔다.

2 인제군 북면 한계3리 쇠리길 84 이순예(여, 86세) 2015년 11월 11일 15시

용대2리 노인회장의 추천으로 한계3리를 방문했으나 마땅한 제보자가 없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를 추천받아 찾아가다가 이순예 제보자를 만났다.

한계3리 3반은 쇠리라 했으며 재내마을도 인근에 있다.

조사자가 만나기로 한 제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아 풍습을 모르며, 현재 병중인 관계로 이순예 제보자에게서 간단한 풍습을 조사했다. 이순예 제보자는 신남에서 태어났으며, 민며느리로 시집갔다고 한다. 풀썰기의 풍습과 음식 등에 대해 조사했고, 산에서 불렀다는 아라리 한곡과 신민요 한곡을 가창하였다.

3 인제군 서화면 서흥2리 3반 이태석(남,76세)노인회장 2015년 11월 11일 16시

서흥2리 3반은 앞골이고, 본토박이는 1반에 많이 산다고 한다.

서흥2리 노인회관을 찾아갔더니 회장님 혼자 계셨다. 제보자는 풀을 썰던 당시의 풍습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서화면의 풀썰기 관련 풍습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풀써는소리〉는 하던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마을에서 풀을 썰 때 소리를 했던 분은 따로 있었다고 한다.

이태석 제보자는 기린면 북1리 역골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의 기린면은 홍천군에 속해 있었다. 기린면 현리에서 진다리를 지나 좀 올라가면 역골인데 우니덕이라 했다. 방동약수 근처에 역골과 진다리가 있다. 우니덕에 살다가 궁동에서 살았고, 인제읍 고사리에서 살다가 1962년도에 군에 갔다가 4년 복무하고 나왔다. 기린에서 땅을 만평 사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큰 홍수로 하천 쪽에 있던 농토 5000평이 쓸려가 버렸다. 산판에서 벤 나무가 쌓여 댐처럼 되어서 큰 홍수가 되었다. 1962-3년도의 일이다. 이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전쟁 때는 발을 광목으로 싸매고, 피나무껍질, 가래나무껍질, 싸리나무껍질, 볏짚으로 짚세기 삼아서 신고 우니덕에서부터 미산리, 상남, 아홉사리 지나 홍천 내면까지 피난 나갔다 들어왔다. 여기에 온지도 50년이 넘었다. 서홍2리 노인회장이다.

〈풀써는소리〉를 듣고 싶으면 인제읍 상동4리회관 앞의 〈인제순대국〉 이태순(남, 69세)씨나 인제읍 고사리장 이태성(남, 69세)씨를 찾아가 보라고 추천한다. 두 분 모두 사촌지간이며 '소리를 주던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월학3리 풍전동(월학초등학교 앞 개미쉼터 옆길로 해서 강 건너 골짜기)에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있다고 한다. 서화2리에도 남자 노인들이 있으니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4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2015년 11월 12일 10시 조사

서화면 서화2리를 찾아가서 출타했다가 돌아오시는 할머니 두 분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한사코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고, 풀썰기의 풍습을 여자들이 아는 정도에서 음식이야기 등을 조사했다. 이곳에서도 올챙이묵은 풀썰기의 주요한 음식이었다. 풀을 베던 시기가 옥수수가 여물던 시기였다는 점이 인제군 지역 곳곳에서 올챙이묵을 해줬다는 제보로 알 수 있

었다. 피난이야기 등을 잠시 들려주다가 마을에 계시는 심병관(남, 83세)씨 댁을 직접 안내해 주셔서 찾아갔다. 하지만 제보자는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서 풍습을 모르신다고 하며 서화1리에 사시는 진경숙 제보자를 추천해 주셨다.

5 인제군 서화면 서화1리 구구골 진경숙(남, 87세) 2015년 11월 12일 11시 조사

진경숙댁을 방문했을 때는 부인이 마당에서 조그맣게 콩타작을 하고 계셨다. 제보자는 방안에 계셔서 풀썰기의 풍습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는데 소리는 잘 모르시고 풀썰기의 풍습에 대해서도 많이 했던 일이 아니라며 간단하게 들려주셨다. 구구골은 골짜기를 따라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베었던 풀은 쑥, 새초(억새), 북나무, 갈닥나무순, 안들미(소꼴) 등이었다고 한다.

6 인제군 북면 월학3리 풍전동 최덕순(남, 96세) 2015년 11월 12일 12시 조사

인근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연장자라고 추천해 주셔서 찾아갔다. 댁을 방문했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났다.

풍전동 마을은 개천 주변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제보자는 마을에서 최고 고령자로 부인도 올해 90세라고 한다. 9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잣나무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할 만큼 정정하시다. 〈풀써는소리〉는 못하시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일본 보국대'

다녀온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들려 주셨다. 슬하에 딸6 명, 아들 4명 등 10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맏딸이 올해 칠순이라고 한다. 자녀들의 전화번호를 아들, 딸로 구분하여 두 장에 기록해서 벽에 붙여두었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한국전쟁까지, 당시에 인제지역 남성들이 겪었던 역사에 대해서 따로 조사해 볼 만큼 찾아보기 어려운 연장자이시다.

7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의식동(옻밭골) 송규돈(남, 69세)

2015년 11월12일 16시 30분경 조사

오후 2시에 인제문화원을 방문한 다음에 찾아간 마을로 이동거리가 길어서 오후 늦게 도착했다. 하남3리에 들어서서 먼저 앞에 있던 미기동 마을을 찾았는데 풍습을 알만한 제보자는 찾지 못하고 마을 곳곳을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타작을 하시던 분이 의식동을 추천해 주었다.

송규돈 제보자는 선소리꾼으로 상여소리, 회다지소리, 고사소리(안택고사소리) 등을 구연할 수 있는 분이다. 찾아간 시간이 바쁘게 정리해야 하는 저녁시간대라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나중에 다시 찾기로 했다.

상여소리는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구연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앞소리 사설로는 주로 회심곡으로 멕이고, 회다지소리는 답산가 등으로 멕인다. 나중에 찾아가서 이 소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의식동 마을은 옻나무가 많아서 옻밭, 칠전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자로 병기할 때 와전되어 옷밥 즉 옷의(衣) 밥식(食)으로 표기되면서 의식동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는 예전에 한창 풀 베고 할 때는 30여호가 살았으나 지금은 14호가 살고 있다.

지금도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8월 3일에 주민 4~5명이 나가서 동제인 "동네치성"을 드린다. 동네치성은 동네입구에 자리잡은 장소에서 나무에다 한지를 걸어놓고 지내는데 이때 송규돈씨가 고사소리를 한다.

〈풀써는소리〉는 예전에 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세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예전에 거름으로 베어왔던 풀은 싸리나무(참싸리, 쪼록싸리, 광대싸리), 가래나무, 피나무, 북나무, 개금나무(우닥닥 뚝딱 개금나무), 알록달록 쪼록싸리, 쑥, 안들미, 새초와 여러 잡초들을 베어 왔다.

8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인제순대국〉 이태순(남, 69세) 2015년 11월 13일 09시 조사

이태순제보자는 〈풀써는소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서화면 서흥2리 이태석 노인회장의 소개로 찾아갔다. 이태석씨와는 사촌지간이다. 현재 인제읍 상동4리 회관 앞에서 식당 〈인제순대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 갔을 때는 아침식사를 하고 계셨다. 조사자들도 순대국으로 아침식사를 한 후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식당 일이 바빠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태순제보자는 올해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인제 원대리 풀써는소리〉로 함께 참가했다고 한다. 인제군 기린면 북리 궁동에서 태어났으며, 19살에 서흥2리로 갔고 무쇠점에서 살았다. 그리고 무쇠점에서 살 때 풀을 베고 농사를 지었다.

서흥2리는 풀썰기로 전국대회에서 2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9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이장 이태성(남, 69세) 2015년 11월 13일 11시 조사

이태성 제보자는 고사리 이장이다. 이태성씨 역시 서흥2리 이태석 노인회장의소개로 찾아갔다. 이태석, 이태성, 이태순씨는 모두 서로 사촌지간으로 할아버지께서 아들 5형제에 딸 1명을 두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기린면 북3리에서 태어났으며 수복되고 1952년에 이곳으로 왔다.

인제문화원에서도 이분들 집안이 소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선소리꾼이었고 지금도 일년에 몇 번씩 회다지소리의 선소리를 주러 다닌다고 한다.

이태성 제보자의 집은 내린천 계곡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집안에서도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자리잡고 있었다.

조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예전처럼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된 〈풀써는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풀써는소리〉에 특별한 곡조는 없었고, 다른 제보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무나 풀이름의 사설을 기억하려 애썼다.

고사리는 내린천 계곡을 끼고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이 펜션, 민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여소리 이야기〉

지금은 상여소리를 할 기회가 없어졌다. 상여소리가 먼저 없어졌고, 달구질소리는 선산을 가진 사람들이 매장을 할 때 하게 되는데 기껏해야 일년에 한두건이다. 제보자는 인제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불려 다녔다. 달구질은 6명이 들어가서 다진다. 상여가 나가지 않은 것은 20-30년 되었다. 또한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이 풍습이 전승되기 어렵다고 했다. 상여를 매거나 달구질을 하던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하기 어렵다. 마을에는 상여집이 있었다.

이 지역의 달구소리는 뒷소리가 “에호리 달회”이다. 앞소리는 소리꾼이 배운대로 하게 되는데 제보자는 마을의 소리꾼이 하는 것을 듣고 배운 것이다. 처음 선소리를 주기 시작한 것은 40대부터이다.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 모두 선소리를 멕였다. 상여소리는 회심곡을 하고, 회다지소리는 답산가, 백발가 등 몇 가지되는데 멕이는 사람마다 어떤 것을 부르냐는 다 취향에 따라 다르다. 젊은이들은 소리가 빨리 가고, 노인들은 느리게 간다. 최근에는 보통 곡조로 소리를 하다가 막회(마지막 다질 때) 에서 아주 빠르게 자진 소리를 한다. 출상 전날 저녁에는 장난하는 것으로 상여틀을 꾸며놓고 ‘초초’라 하여 상여소리를 연습한다. 장대끝에다 방울을 달아서 사람을 태워 장난을 하였다. 대틀 옆으로 사람들이 매는 장대 6개 중에 하나를 빼서 상여소리 줄 때 흔드는 요령을 끝에다 매달고 사람을 가운데 태운 다음에 요령을 매단 앞을 들고 장난을 했다. 마치 마을 탄 것처럼 되어서 ‘말멕이놀이’라 했다. 상여소리를 연습하는 ‘초초’를 한 다음에 ‘말멕이놀이’를 했다. 호상일 때 하는데 주로 사돈을 데리고 장난을 했다. 상여를 맬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막걸리도 내오고 안주도 내오고 했다. 상여를 매는 사람들은 ‘상두꾼’이라 했다. 지루하니 시간 때우려고 했다. 초상집에서 곱새치기를 했던 풍습은 더 윗대 어른들이 알고 있고, 제보자가 알 때는 이 마을은 없었고 다른 마을에서는 한 것으로 안다.

10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 1반 절골 조병순(남, 78세) 11월 13일 14시 40분경 조사

조병순 제보자는 북3리에서 태어났다. 13살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빨치산들이 쏜 총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고, 형제들만 남아서 살 수 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숱한 고생을 해야 했다. 악

착같이 살아서 여기에 땅도 7000평을 사서 농사를 짓기도 했으며 신발가게, 식당도 했고, 지금은 민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쉬운 소리 안하고 살 정도는 되었다. 당시 땅 7000평에는 수해가 난 뒤라 농사가 잘 안되고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를 쳤다.

제보자는 11월 12일 오후에 방동리 오류동에서 추천받고 찾아갔으나 집에 계시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조사할 수 있었다. 집에는 혼자 계셨는데 부인은 예전에 식당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인근의 식당에 도와주러 갔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으나 지금은 비교적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시는 듯 편안해 보이신다. 슬하에 아들 셋, 딸 하나 4남매를 두었다고 한다.

워낙 기억력이 좋으셔서 〈풀써는소리〉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농사풍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세시풍속을 비롯하여 기린면의 민속문화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보자로 추후에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1 인제군 남면 부평리 2반 음달 조남성(남, 79세) 2015년 12월 3일 16시 조사

부평리 2반은 양지마을에서 음달이라 하고, 5반을 여기에서는 양지마을이라고 한다. 퇴비증산을 할 때 30여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풀을 했다. 풀더미는 하나로 만들어 놓고 동네사람들이 각자 가져다 썼다. 군청에서 시켜서 했던 공동풀이었다. 거름으로 썼던 풀은 소마구풀이었는데 개인적으로 했으며, 공동으로 했던 풀은 동네 복판에 풀더미를 만들어 놓았다. 공동풀은 예전부터 있었다. 부평리에서는 공동풀을 이틀, 사흘동안 한 적도 있다. 군에서 반을 나누어 풀더미를 만들게 했으며 잘

보이는 곳에 풀더미를 만들어놓게 하였다. 서로 경쟁하듯이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소 먹이는 집들이 풀을 했다.

〈풀써는소리〉는 사람들 취향에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썰기도 하는데 굵은 것이 들어가면 '무라리다'가는 것은 그냥 썰기도 하고 굵은 것이 들어갈 때만 힘을 주라고 알려준다. 〈풀써는소리〉는 따로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아무나 그냥 했다. 풀은 텃골에서 주로 해왔다. 공동풀을 할 때는 풀이 많으면 작두를 두벌 놓고 작업하기도 했다.

새벽에 동이트기 전에 나와서 풀을 베러 갔다. 음식은 집에서 싸오기도 하고, 마을에서 내오기도 했다. 공동풀을 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퇴비를 잘 안하니 반강제로 거름을 위해서 동원했던 것이다.

마을이 물에 잠기기 전에는 600호가 살았다. 남면 소재지보다 컸으며, 지금 물에 잠긴 곳이 모두 논이었다. 논이 많았기 때문에 풀은 논에 들어가고 밭에는 거름이 모자라 곡식이 잘 안되었다. 논밭은 반반이었고, 인제군 전체는 밭이 훨씬 많았으며 인제군에서는 이곳이 쌀고장이었다. 600여호가 살 때는 군부대에 기대어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반은 되었다.

당시 8개 반이 있었는데 풀더미도 여덟군데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전체가 130여호이고, 8개 반인데 7반이 제일 크다. 이 마을은 지금 20여호가 산다.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도 많았다.

마을에 논이 많았으나 논농사 소리는 아랫녘처럼 많지 않았다. 상사소리는 논을 팔 때(논김맬 때)했던 소리인데 더 윗대 어른들이 한 소리이다.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농요를 부르는 것은 피난 나가서 보았다. 미나리는 밭을 맬 때 했던 소리로 "노랜데, 질게 빼며 부른 노래로 이 노래를 하면 '일은 안하고 미나리 까고 앉았다'고 뭐라 했다"

논을 맬 때 '에헤라 방아요'소리를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얼럴럴 상사데야'를 불렀다. 모심을 때도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여기도 한폭 저기도 한폭 빼지말고 잘 심어라'를 부르는데 이곳에서 많이 부른 소리는 아니다.

아리랑 같은 것을 "아리이이이이…"하고 길게 빼는 것을 미나리라 한다.

〈미나리〉
양구낭천 흐르는 물에
배차 씻는 저 처녀야
속에 속잎을 나를 주렴
당신을 언제 봤다고
속에 속잎을 달라 하나
한번 보면은 초면이고
두 번 보면 구면일세

지금은 길게 빼면 숨이 차서 못한다. 양천은 낭천이라 했다.

〈모심는소리〉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요
빼지 말고 골고루 잘 심게
어허야 어야 줄 넹겨라

뒷소리는 “에헤라 넹겨요”라고 받는다. 이 소리는 부평들에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했다. 이곳은 미나리를 하고 모심는 소리는 별로 안했다.

〈논매는소리〉
에헤라 방아요
　　에헤라 방아요(후렴)
우리일꾼 잘도한다
새참이 나올터니
어서빨리 파뒤집어라
허리 아프면 잠깐 쉬어서 하세

선소리꾼이 멕이면 뒷소리를 받았다. 심심하면 몇마디씩 했는데 방아타령의 곡조는 그저 보통으로 했다. 논매는 소리는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얼근하면 했다. 뜨거우니 소리를 한다. 힘들어도 소리를 해야 일 안하는 것 같고 힘이 덜 든다. 여기는 방아타령을 했고, 상사데야는 저 아래에서 했다. 논은 초벌은 호미로 매고 두벌은 손으로 맸다. 초벌에서 호미로 땅을 뒤집어 놓으면 풀이 썩고 두벌에서 흙을 풀어주었다. 방아타령은 호미로 땅을 파면서 부른 소리이다.
미나리는 춘천에서 잘 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을 듣고 배운 것이다. 여기도 했을 것이다. 미나리는 어디든 했다.

〈소모는소리〉
이러
안야 어디여어어
안소야 나가자 마라마 마라소야 돌아서라
어후어어

두 마리로 가는 데는 진소리를 하고, 한 마리로 가는 데는 소리가 짧다. 그 사람들이 보면 여기는 미나리만 빼다가 밭은 언제 가느냐고, 두 마리 가지고 소리만 하고 있으니 뭐라 했다.
아버지대에서 소리를 많이 했다. 이곳에는 수복되고 37세 정도에 들어왔다.
제보자는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새술막에서 태어났다. 여기 온지는 50여년 되었다. 춘천에 있을 때 농사를 많이 지었다. 옥수수, 감자 농사였다. 고향에서도 소 두 마리로 밭을 갈았고, 인제

도 두 마리로 갈았다.

이 마을에서도 정월에 집집마다 다니며 걸립을 했다.

그리고 집터를 다질 때 "에헤아 지덤이여"하고 다졌다. 집터는 저녁 먹고 나가서 다져 주었다. 그리고 술 한잔 얻어먹고 왔다. 지경을 다질 때는 끈 매기 나름인데 10명, 8명 등 끈매기에 달렸으며, 각자 줄을 당겨 지경돌을 들었다 놓으며 다졌다. '에헤라'에 들어 올리고 '지덤이여'할 때 떨어뜨려서 다진다.

12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5반 김종식(남, 71세) 2015년 12월 4일 10시 조사

김종식 제보자는 2015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인제 풀써는소리〉의 앞소리꾼이다. 유머가 있으시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징이 있다. 워낙 민요에 관심이 많아서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예전에 들었던 유성기판의 소리도 듣고 배워 부르기도 했다. 집에는 민요와 잡가류를 모아서 정리해 놓은 책을 가지고 있어서 노래에 따라서는 보고 부르기도 했다. 〈풀써는소리〉는 어려서 보기만 했고, 직접 해본적은 없었다. 원대리 심흥규 가창자가 추천해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전에 〈놀부슈퍼〉를 했었다. 처음에는 상호를 보고 웃는 사람들이 많았다. 놀부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흥부는 복권이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놀부는 행동파로 놀부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우스개소리로 말씀하셨다.

〈풀써는소리〉는 종이에 적어두고 보면서 구연했다. 대회에서는 직접 풀을 썰면서는 하기가 힘들어서 따로 소리만 했다. 당시에는 선창과 후창으로 나누어서 구연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장생불사 고로쇠나무"하고 선창을 하면, "고로쇠나무"하고 복창으로 받았다.

1954년 9살 때 이곳으로 왔다. 인제 뗏목아라리는 떼를 타던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부르는 것을 듣고 배웠다. 민요는 초등하교 4-5학년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음반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배워서 불렀다. 2000년인가 2001년도에 TV에서 자막으로 민요를 배울 사람들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배우게 되었다. 농사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뗏목아리랑〉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가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낭에 뗏목을 띄워노니
아리랑타령이 저절로 나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도지거리 주모야 술거르게
보멕이여울에 떼내려가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이 변할줄 뉘알았나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합강정 정자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강원도아리랑 중에 하나이나 노동요이기 때문에 좀더 느리다.

〈통나무끌어내리는소리〉
영차내 영차
이나무가 어디서 왔나
　영차니 영차(*후렴)
방태산 상상봉에
낮이면은 일광을 받고

밤이면은 이슬을 먹고
모진 비바람 시달리며
낙락장송 되었는데
궁궐재로 명을 받아
어명소리 한마디고
만인간에 힘을 빌어
육로천리 수로천리
인제합강에 나왔구나

〈목도소리〉
에헤에 허기졍
허기졍 허기졍
허기저차 허기졍
허기저차 허여차
허기영차 허기졍…(이하 반복함)

목도소리는 네사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발이 맞는다. 네사람이 제대로 하면 들을만하다. 방태산, 한계령 등에서 벌목을 많이 했다. 아직도 방태산쪽에는 큰나무가 많다.

〈자진산타령〉
청산에 저 노송은 너는 어이 누웠느냐
풍설을 못이겨서 꺾어져서 누웠느냐 에
바람이 부려는지 그지간 사단을 위한단 말이요
나무 중둥이 거드럭 거리고
억수장마 지려는지 만수산에 구름만 모여든다 에

〈숯굽는소리〉 중에서 〈가마터닦는소리〉
에헤헤 가마터 닦세
    에헤헤 가마터 닦세
건곤이 개탁하여
   에헤헤 가마터 닦세
만물이 자생이라
   에헤헤 가마터 닦세
백두산이 기봉하여
   에헤헤 가마터 닦세(*이하 후렴구 생략)
실낱같이 내려와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되었구나
우리나라 금수강산
어디를 가나 푸른산에
어디를 가나 옥수로다
동서남북 토주지신
악한 것은 소화소멸
천봉만봉 내려주소
가마터는 그만닦고
등치기로 들어가세

〈숯가마 등치기소리〉
에헤라 탄이야
　에헤라 탄이야
여기메가 어디메뇨
　에헤라 탄이야
살기좋고 인심좋은
　에헤라 탄이야
청정제일 인제로다
　　에헤라 탄이야
남면어론 숯둔골에
　에헤라 탄이야
함씨지씨 박씨가살아
　에헤라 탄이야
함지박골이 생겼는데
　에헤라 탄이야
숯을굽고 먹고살아
　에헤라 탄이야
숯둔이라 불려졌네
　에헤라 탄이야

등치기소리는 가마등의 흙을 다지며 부른 소리이다. 흙을 다질 때는 떡매 비슷하게 매를 만들어서 내리쳤다. 흙을 이기듯이 계속 치면 단단해 졌다. 가마터를 닦을 때는 삽과 가래를 이용했다.

〈등치기소리 – 자진소리〉
에라 탄이야
　에라 탄이야(*후렴구 이하 생략)
어떤사람

팔자좋아
흥타령만
부르는데
이내신세
어찌하여
숯가마등치는
일꾼됐나
직업에도
귀천있나
기왕지사
배운포자
갈고닦고
빛을내세

자진소리를 할 때는 빠르게 내리친다.
숯을 다 구운 다음에 팔러갈 때 부르는 소리도 있다.

숯은 화탄골에서 많이 구웠다. 화탄은 숯을 많이 구워서 숯둔골이라고 했다. 개골에서도 구웠다고 한다. 인제 민속에는 대장간소리, 원통의 심마니소리, 바지게소리 등도 있고 보섭 만드는 소리도 있다고 한다.

〈각설이타령〉
어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저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왔네
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어허 이놈이 이래뵈도 정승판서에 자제로서
돈한푼에 팔려서 팔도한사를 못하고
장타령을 물려받았느냐 품바하고도 잘한다

〈다리세기〉
오고리 조고리 각고리
짐치만군 도만군
짝발이 호양군
도르매 짐치 장두깨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섣달 대서리

〈평안도 다리세기〉
한알당 두알당
옌주 단주 술내나 먹으니
강간 파리 복주개 땡그르릉
너나가라

부모님 고향이 평안도인데 제보자를 잉태하고 1944년도 10월에 이사를 나왔다고 한다. 〈평안도 다리세기〉는 부모님께 들은 것이다.

비둘기는 우는 소리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부모님께 들은 얘기는 비둘기가 집을 참 엉성하게 짓는다고 했다. 알이 겨우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엉성하게 지어놓았는데 옛날에 어느 스님이 가다보니 비가 오려고 하는데 비둘기가 그렇게 낮은데다 집을 지어 놓았기에 장마가 지면 떠내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옮겨주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비둘기가 "국국 국국"울지않고 "옛중 뜻을 옛중   을"하며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그렇게 울었다고 했다. 접동새는 "오래비 아홉에 접동 오래비 아홉에 접동"하며 운다고 했다.

13 인제군 남면 부평리 7반 정성국(남, 86세), 이산옥(여, 85세) 2015년 12월 4일 16시 조사

정성국제보자는 마을농악대의 상쇠였고, 조남성제보자는 부쇠였다. 특히 이산옥제보자의 아버지가 당시 유명한 상쇠였다. 부인이 기억력이 좋아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치던 가락을 듣고 배운 것을 남편에게 가르쳐주기도 했다. 고사반소리도 남편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제보자들 고향은 정자리로 그곳에 살 때 풍물을 배웠으며 친정아버지 이경화씨는 유명한 상쇠였다고 한다. 정성국 제보자는 장인한데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선소리꾼이었다. 아버지가 뚜드리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배워보았다.

정성국 제보자는 예전에 노인회장을 했으며, 꽹과리를 친 지도 오래되었는데 이 마을에서 상쇠를 할 때는 회관에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가르쳤다고 한다. 십년도 넘었으며, 마을에서 걸립을 할 때는 부인이 장구 치면서 같이 다녔다. "고사반은 우리 할멈한데 배워서 내가 드문드문 한다"고 했다.

중매로 결혼했다. 두 집안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 열일곱살, 열여섯살이었고 혼례는 스무살에 치렀다. 두 집안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슬하에 아들이 하나여서 아주 귀하게 키웠다. 손주는 올해 스물여섯살이다.

이산옥제보자의 형제는 육남매로 아들 하나에 딸 다섯이었으며 제보자는 막내딸이었다.

정자리에서 태어나 스무살무렵까지 살다가 전쟁이 난 이후에 어론2리 화탄으로 와서 살았으며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20년 조금 넘었다. 화탄에서 오래 살았다. 풀을 베었던 풍습과 소리는 정자리와 화탄에서 살 때의 일이다. 밭가는 소리는 소가 없이 부르려니 싱거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며 구연을 못하셨다.

〈농악대이야기〉

마을농악은 문화원에서 받은 꽹과리 2개, 장구, 북, 징이 있어서 다른 것을 더 구입해서 돌아가신 노인회장이 마을사람들을 설득하여 걸립을 하였다. 당시 걸립으로 300만원 벌어서 노인회 자금으로 세웠다. 회장이 돌아가신 후 지금은 중단되었다.

농악은 '갱마갱마 갱마갱마 갱마갱마 갱마개갱 갱마갱마 갱마개갱…'이런식으로 쳤다. 질꼬내기가 있고, 개울 건널 때 '어허 그다리 잘났다 치렁치렁 건너라'가 있다. 질꼬내기는 '갱마갱 갱마갱…'하는 식으로 좀 느리게 친다. 길을 가다 서낭당을 만나면 서낭굿으로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하는 식으로 가락을 쳤다. 칠법구 육무동이었다. 길을 갈 때는 풍물이 다섯으로 상쇠, 부쇠, 징, 장구, 북이 가고, 뒤로 칠법구 육무동이 따랐다. 법구는 일곱인데 무동은 여섯이었기 때문에 꼬리에 가는 법구는 마누라가 없는 격이다. 그 뒤에 '화댕이'두루마기 같은 것으로 옷을 떠들썩하게 해 입고 못난이 짓을 하며 따라 다니곤 했다. 가운데 들어가서 남이야 놀든 말든 맘대로 막 돌아가고 했다. 법구는 상모를 치며 간다. 마누라가 없는 꼬리법구는 마음대로 치고 돌아다녔다. 화주가 먼저 걸립할 집들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걸립패가 들어갔다. 따라서 걸립패의 총 인원은 20여명이었다. 제보자는 상쇠였다. 꽹과리만 쳤는데 옛날 노인네들이 농악을 꾸며가지고 다닐 때 춤 추고 따라다니며 배웠다. 예전에 돌아가신 상쇠는 용용진씨였다. 그분이 치는 것을 보고 배웠는데 살아계시면 백세가 넘는다. "모두 백골이 됐어"

그때는 저녁 먹고 징소리만 들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연습하곤 했다. 제보자는 이곳에 와서 한 달을 가르치기도 했다. 재미있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그 집에서 만둣국도 끓여주고 했다.

걸립은 정월 열나흘부터 보름까지 했다. 걸립을 할 때는 먼저 사람들 모이라고 징을 울렸는데 징소리가 멀리까지 갔다. 동네사람들이 징소리 듣고 모이는데 보통 다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쇠 치는 사람들(풍물 치는 사람 다섯명)이 오면 보름맞이라 하여 비손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소지만 올렸다. 모여서 술 한잔 먹고 놀다가 출발하는데 가락은 '갱-지갱 갱-지갱 갱-지갱 갱 갱 갱지갱…'이다.(말로 하다가 종이를 두드려 보여줌) 질꼬내기를 치며 길을 간다. 길을 가며 상황에 따라 서낭굿, 다리굿을 친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먼저 마당에서 치고 돌아간다(종이 두드리며 설명) 마당굿은 '갠지갠지 갠지개갱 갠지개갱 갠지갠지…'하면서 돌아간다.

법구들이 치고 돌아가고, 무동들이 춤 추고 돌아갈 때는 '천부당 만부당 천부당 만부당'인데 2채이다. 고사반을 할 때는 몇마디 하고 '갱마갱마 갱마갱마'친 다음에 또 하곤 했다. 고사반에도 풍물패가 같이 쳐준다. 징도 '궁궁궁'울리고, 장구도 쳐준다.

고사반을 두분이 서로 번갈아 가며 구연(고사반도 옛날 것이 다르다고 함)

기밀기밀 기밀이요
사바하고도 기밀이요
남산은 부주허네
해동을 잡아다 조선국
조선국을 마련할제
어드메 누가 마련했나
맹자공자가 마련했지
농사라고 지어보자
농사라고 지으니
깡충뛨다 쥐눈이콩
울긋불긋 대추콩
휘휘둘러라 상모찰
어허 그농이 잘됐구나
농사를 지었으니
자식농사를 지어보자
집이라고 지어서 삼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낳고
어허 그 자식 잘됐구나…

정월달에 드는 액은 이월 초하루 막아내고
이월달에 드는 액은 삼월 삼짇날 막아내고
삼월달에 드는 액은 사월 초파일 막아내고
사월달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날 막아내고
오월단오에 드는 액은 유월 유두에 막아내고
유월달에 드는 액은 칠월 칠석날 막아내고
칠월달에 드는 액은 팔월 한가우 막아내자(멈추었다가 다시)
구월달에(팔월달에) 드는 액은 구월 구일에 막아내고
(구월달에 드는 액은 시월…)
시월달에 드는 액은 동지 팥죽으로 막아내자
동짓달에 드는 액은 섣달 그믐날 막아내자

다하고 떠나가는 부분에서 배를 타는 대목이 나온다.
다 잊어버렸다. "…가라앉아 못타겠고, 낭그배는 풀어져서 못타겠고
옹기배를 타자하니 옹기는 벌어져서 못타겠고…"
성주풀이도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난다. 아주 오래된 것이다.

〈민요이야기〉

논은 지역에 따라 백평이 한마지기가 되기도 하고, 삼백평이 한마지기가 되기도 한다. 김매기는 잘사는 집들은 세벌씩 매어 곡식이 더 잘되었지만, 보통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한벌만 매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도 덜 나왔다.

〈미나리〉 – 밭 맬 때 부른 소리
미나리는 간다마는 아길랑은 가지마라
세월봄철 혼자가지 인상날일 왜 데려가나

〈베틀노래〉
아기자라 짜지마라 사랑간에 쥔애비 왔다
베틀다리 네다리요 큰애기다리 두리리라
잉앳대는 삼형제요 둥둥대는 독신이라
끌신대도 독신이고 아가짜라 베잘짜라
사랑간에 쥔애비 왔다
이베짜서 누굴주나 어지칠푼 눈물인가
낮에 짜는건 일광단이고 밤에 짜는건 야광단이다
아가짜라 베잘짜라

〈아라리〉 – 밭 맬 때 부른 소리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알뜰하네 청년들이나 다 늙어진다

멀구야 다래야 열지로도 말어라
산골에 큰아기 줄낭봉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무슨년으 고개게 넘어갈적 넘어올적 눈물이로구나

뒷동산 동배나무에 꾀꼬리단풍이 들거든
우리나 삼동세 동배마중 가잔다

뒷동산 곤드레 딱지가 나지에 맛만 겉다면
그것만 뜯어먹어두 한세상 산다네

이 소리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없고 "세월아 봄철아"이다. "그냥 노래지 뭐"밭 맬 때 부른 소리 좀 해달라고 하자 앞의 두 소절을 불렀고, 다시 산에 나물 뜯으러 다닐 때 부른 소리도 좀 해달라고 하자 계속 아라리를 부르셨다. 이 노래는 잔치집에서도 불렀고, 심심하면 불렀다. 가창자는 장구 치면서 소리를 잘해서 잔치집에 가면 축의금으로 냈던 돈보다 더 벌어서 왔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삼만원을 '부조'하면 오만원을 벌어서 왔다.

곤드레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물에 울궈야 먹을 수 있었다. 질경이는 따로 울궈야 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먹어도 부종이 나지 않아 좋았다.

찔째이(질경이)로 국죽도 쑤어먹고 밥도 해먹고 했다. 질경이 올라오면 계속 뜯어와야 했다. 감자를 찔 때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따라내고, 삶은 곤드레나물을 썰어서 넣고 함께 뜸을 들여서 익힌 다음에 섞어서 다져 먹으면 맛있다.

〈어랑타령〉 – 잔치집에서 불렀던 노래
울퉁 불퉁 저등이나 저남산 보아라
우리도나 죽어지면 저모양 저꼴이 된단다
어야 더야 더허야 얼씨구나 좋다... 내사령같구나

오르민 내르민 잔지침소리
물말은 흰이밥이 중추가 꾹꾹 민다네
에야 데야 데헤야 (이건 춤가락 소리야)

〈시집살이노래〉
성님성님 사춘성님
시즙살이 어떱디까
삼단겉은 머리태가
시즙삼년 살고나니
부돼지꼬리 다되더라
북두겉은 요내손이
시즙삼년 살고나니
불두갈고리 다되더라

자장가는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했다. 아들 하나 낳은 것을 시어머니가 다 키우셨다.

〈숯이야기〉

화탄 두무안에서 숯을 많이 구웠다. 참나무, 박달나무, 느릅나무 등으로 다 숯을 구웠지만 참나무숯이 제일 좋았고, 박달나무숯도 괜찮았다. 숯가마는 참나무가 많은 곳에 만들었다. 숯은 4-5명이 어울러서 하는데 한번 숯가마에 나무를 넣고 구우면 보름이 지나야 숯을 꺼냈다. 산에 들어가면 주변의 나무 상황을 보고 숯가마를 박는다. 그리고 한번 넣으면 보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작업을 해주는 식으로 품앗이로 돌아가며 했다. 나무가 탈 때 한 가마치를 만들어놓아야 했다. 숯가마 하나에 나무가 100여짐이 들어가기도 한다. 가마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주변의 나무가 떨어질 때 까지 사용했다. 두무안은 아주 넓은데 참나무, 박달나무 등이 빽빽하게 들어섰었다. 숯가마는 골마다 하나씩 있었다. 숯을 굽는 동안에는 '오늘은 어느 집 것'하는 식으로 돌아가며 품앗이로 나무를 해주었다. 주변에서 나무를 베어 끌어왔다.

〈초초아뢰는소리 - 말멕이놀이〉

출상 전날 군정들이 모이면 막걸리 한잔 먹고 초초를 아뢰는데 소리는 "아 에 미리미리"로 세 마디를 했다. 그러면 군정들은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소리를 받으며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엎어졌다 제껴졌다 하며 춤을 추듯이 움직였다. 군정은 12명이었다.

"군정들이 다 모였소?"하고 초초 아뢴다고 소리를 친 다음에 "아 에 미리미리"를 한다. 상여소리는 후렴이 "어호넘차 어호"이다. 앞소리는 처음에는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와 같이 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문전옥답을 다버리고 만금같으네 자식을 두고 문전옥답을 다버리고 북망산천을 떠나만 간다"와 같은 식으로 불렀다.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많이 울었다. 사람이 죽으면 밖에다 토롱을 만들어 두었다. 보통 9일장을 지냈고, 못해도 7일장이었다. 옥수수술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초상집에는 떡을 해서 갖다 주었는데 특히 사돈집에는 쌀 서말로 절편을 만들어서 전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었다. 제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 떡이 30그릇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많아 모두 받지 못하고 전그릇이 오면 두세개만 내리고 그대로 보내곤 했다. 부친은 59세에 돌아가셨다. 장인은 70세에 돌아가셨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환갑을 해드렸다. 돌아가신 분의 생일은 차사이고, 환갑은 새옷으로 한복을 마련하여 줄에 걸어놓고 아래에 환갑상을 차린 다음에 축을 읽었다. 그리고 메밀국수를 눌러서 동네사람들을 청하여 나누어 먹고 놀았다.

삼은 삼굿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다는데 당시 삼굿을 만들었던 풍습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셨고, 〈인제뗏목아리랑〉과 〈숯굽기놀이〉 등의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들려주셨다.

14 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김진옥(남,79세), 양영국(남,78세), 박득수(남,74세)

2015년 12월 5일 15시 조사

김진옥 제보자

양영국 제보자

박득수 제보자

김진옥 제보자와 양영국제보자는 토박이고 박득수 제보자는 김부리에서 살다가 1998년도에 이곳으로 왔다. 이 마을에서는 풀을 많이 했다. 양영국 제보자는 주로 풀을 멕이는 일을 많이 했고, 김진옥 제보자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한다. 따라서 〈풀써는소리〉는 김진옥 제보자가 구연한 것이고, 풀썰기와 관련된 풍습은 나머지 제보자들의 도움으로 상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김진옥 제보자의 〈풀써는소리〉는 일정한 곡조를 가지고 노래하듯이 구연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말로 하듯이 구연한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김진옥 제보자의 〈풀써는소리〉는 음악으로 채보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마을에서 전해오는 농업노동요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셔서 여러 번 민속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마을에서는 논을 맬 때 초벌 김에서 '상사데이'를 불렀다. 일을 할 때 노래로 장단을 맞추었는데 '에허 뎅이야'할 때 호미로 흙덩이를 찍어서 넘기면 잘 넘어갔다. 논은 한시간만 매도 땀이 비 오듯 할 정도로 힘들었다. 또 '대방 앉힌다'고 하여 흙을 잔뜩 묻혀서 장난도 했다.

15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심흥규(남, 80세) 2012년 9월 15일 조사

심흥규 가창자는 올해 77세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으로서 웬만한 산간지역에서 쓰이던 생활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지금도 막국수틀을 사용하여 국수를 만들 정도로 예전에 사용하던

도구들을 대부분 간직하고 있어서 현재 거주하는 집은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산간지역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지난 생활사는 마치 산간문화 백과사전 같은 모습이다. 특히 민요의 구연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홀로 산을 다니며 부르던 아리랑타령을 비롯하여 여자들에게 전승되던 베틀노래까지 완벽하게 구연할 수 있다.

〈허랑타령〉 :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면서 신명나게 부르던 노래
이삼사월 피는 꽃은 이화도화가 좋고
이팔청춘 놀기 좋긴 이친구 저친구 좋구나

〈아리랑〉 : 홀로 시름을 달래고 고됨을 덜려고 부르던 노래

산지당 까막까치 까악까악 우는데
정든님 병환은 점점 깊어지네

나무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오고
사람도 늙어지면 오던 님도 아니온다

저 건너 묵밭은 재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 같이 또 묵어지네

바가지 굳으면 쓰기나 좋지
사람은 늙으면 쓸 곳이 없네

〈인제 풀써는소리〉 조사현장 사례 정리본

1 인제군 서화2리 조사내용

조사자 : 그거 옛날에 보면 그 7~8월에 논매기 다 해놓고 저기 집집이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잖아요

제보자1: 예

조사자 : 그럼 한 몇명이해요? 한번, 오늘 이집 풀 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보자2: 그랬어요 , 우리도 그전에 했어요

조사자 : 어르신 집에 풀 썬다 그러면

제보자1: 풀 썬다 그러면 뭐 한 10명씩 됐지 뭐

조사자 : 10명?

제보자2: 그럼 모두 모아서 댕기며 했는데

제보자1: 예 한 10명씩 됐어요

조사자 : 10명, 아까 뭐라 그랬다고 우러리다? 뭐라 그런다고?

제보자1: 그건 넣을 적에 다리 덜렁덜렁 들며 우러리 동박나무 들어간다 뭐뭐 무슨 참나무 들어간다 뭐 그러면서 하더라

조사자 : 참나무 들어간다, 그러니깐 그게 남자들이 했던 소리 귀동냥으로 듣는

제보자1: 그러니까 나는 애들적 쪼고만게 귀동냥으로 들었지 밥 하라고 하면 밥 하고 국시 눌르라고 하면 국시 눌러주고 그랬지 참을

조사자 : 그 풀 할 때 보면 음식을 해주는게 아까 저기 어제 서흥리에서 여쭤봤더니 풋강냉이 갈아 갈아가지고 올챙이묵 해줬다고.

제보자2: 올챙이묵 해줬어 우리도 했는데 뭐

조사자 : 아 올챙이묵 해줬구나

제보자2: 그전에 우리도 했어요

제보자1: 우리도 많이 했어

제보자2: 우리도 시집을 와가지고 처음에 군인을 다 갔어 다 눌러 군인을 갔으니깐 남자들이 없잖아 소는 있지 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기 싫은데 여물을 썰으래 작 이걸 작두에다가 아 썰으라해서 이걸 써는데 안썰어다 이걸 써니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제보자1: 그것도 기운이 세야해

제보자2: 기운이 서야 되는데 하필 또 다락에서 저 지패를 끊어준다는 게 그거 저 지게 작대기 그걸 우리 시아버지가 옻나무 지게 작대기로 해놨어 아이고 그걸 해 놨는데 세상에 그걸 주라 짚고 썰으라는데

제보자1: 그럼 옻이 안오르나?

제보자2: 그래서 우리 맏동세하고 나하고 이제 그걸 짚고서 썰었어 여물을 썰다가 나니까는 더우니까 자꾸 이렇게 닦아잖아 땀을 우리 맏동세(얼굴을 비비며)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았어

조사자: 옻이 올랐구나

제보자1: 옻이 올랐구나

제보자2: 아우 그 다음에 우리 맏동세 눈이 이렇게 붙었어 아주 아예 병원을 갈라니깐 더듬대 갈 수가 있어? 나는 그래도 땀이 나서 그냥 이쪽으로만 이렇게 했더니 한쪽 눈만 붙었어 한쪽 눈만 붙어 가지고 서 그래 가지고서는 병원을, 아우 하필 그 참나무 저거 지게 작대기를 줬다고 그 얼마나 또 우리 시어머니는

제보자1: 개고기를 드셔 잡숴야 되는데 닭을 닭을 잡숴야 되는데

제보자2: 아이고 혼났어 참옻나무래 에이 근데 저 밤나무 삶아 먹으면 나아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 아이 혼났어 그때 아주

제보자1: 그럼 그 풀 썰었을 때 불박나무 들어간다 뭐 뭐 동박나무 들어간다 뭐 무슨 무슨 나무 들어간다 아주 내가 그걸 고마 내가 그걸 다 외웠는데 고만 까져 먹어버렸어, 그래 가지고 밥 하러 댕기며 뭐

조사자 : 여기 논도 많고 여기 풀 많이 했겠다 그쵸?

제보자2: 아니 여기 뭐 풀 그렇게 안했어요 그전에 우리 저기 살았을 적에 거기서 그렇게 많이 했지 여기 와서는

제보자1: 산골에서 많이 했지 여기는 논만

조사자: 어디 사셨는데요?

제보자2: 전 그전에 두촌 살았어요

조사자: 두촌?

제보자2: 예

조사자: 홍천 홍천이죠?

제보자2: 홍천 못 미쳐서

조사자: 지금도 두촌은 홍천에 들어가죠?

제보자2: 그렇죠 홍천군 두촌면

제보자1: 그리고 옛날에 이좀 논도 좀 많고 이런 데는 풀을 덜했어 밭곡석 많고 저런데가

제보자2: 여기 그저 뭐… 이장 볼 적에 여기 저 풀도 깎아 나무 깎아 풀 썰었지 만 뭐 그렇게 넋두리했나? 안했어

제보자1: 그거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하고 벙어리마냥 뭐 그렇게 했지

제보자2: 그러니깐 기계로 썰었어 기계로 그냥 기계로 들이대

조사자: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했어요?

제보자1: 기계로 썰었어 벙어리마냥 기계로 그냥 들이대고 썰었지 , 그것도 한 10년 됐죠?

제보자2: 그리고 그 우리 두촌 살았을 적에는요 돌아가면서 풀들을 해가지고 풀 썰때 얼마나 넋두리를 해가면서 써는데 근데 그 아저씨도 그렇게 넋두리를 잘해는데 어떻게 젊었어 여자 스물아홉이고 남자가 서른둘인가 스인가 근데 아유 배 아파하니깐 그날 병원에 갔다와서 그 이틀날 죽었어

제보자1: 그 저 광란났지 토사났지

제보자2: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어

제보자1: 그런건 제대로 약을 못써가지고 옛날에는 풀 썰다 많이 그런 병 났잖아 뜨고 날이 뜨고

조사자 : 그 저 여자 어르신들 나물 뜯으러 다니면서 소리 많이 안하셨어요?

제보자2: 이 할머니 잘해요 청승스럽게 원래 청승스럽게 잘해요 원래 이 마을에

제보자1: 아주 정신 없어서 옛날 다 하나도 저거가

조사자 : 옛날소리, 고향이 어디세요?

제보자1: 난 기린이래요 저 하남 기린

조사자 : 기린?

제보자1: 예

조사자 : 아 기린면

제보자1: 예 기린면 저 거

조사자: 무슨 리?

제보자1: 현리라는데 있잖아요 예

제보자2: 거기가 태버린 고향이야?

제보자1: 아니 저기 저 원래 양양이야 야양에서 나와가지고 일곱살 먹은 거 오빠가 업고 왔어 그 이사 거기가 피란골이라 거기로 왔는데 그 해에 피란이 났는데 피란골이라서 양양 살다가

제보자2: 아 그해 난리가 났다고?

조사자 : 일곱살 먹어서 6-25전쟁이 났어요?

제보자1: 예

조사자 : 양양에서 피해 왔는데 전쟁 속으로 들어왔어요?

제보자1: 예 전쟁 속으로 들어왔어 아이고 난

제보자2: 아유 우리도 그전에 피난 다닐 적에 말도 말어

제보자1: 이듬해에 난리가 났는데 여덟살 먹었는데 송장이 아주 아주 딛고 넘어가는 데 마 쪼가냈지 뭐 그런 멀컹멀컹한 거 여덟살 먹은게 아버지 손 붙들고 다 송장을 다 밟고 넘어갔는데

제보자2: 어 그렇게까지 송장을 봤어?

제보자1: 예 아주 거 뒤바락이라는데 알어?

제보자2: 몰라 거긴 안가봤어

제보자1: 뒤바락이였는데 거기 아주 그 갯가로 아주 송장이 아주

조사자 : 아이고

제보자2: 우리 두촌에서 두촌서 거기서 그 왜 저 원동옥이라는 거기 모르나? 안뒷골로 들어가는 그 입구

제보자1: 거긴 잘 안댕겨서

제보자2: 거기서 여기로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가다가 나오면 산밑에 큰집이 있어 그 헐어가지고 다시 지었다더만 거기서 살면서 난 그때 열세살 적에야 아니 장남쪽에서 애어른이고 무슨 보따리하고 소 끌고 사람이 지리 미어지게 나와 왜저렇게 나오나 하고 구경만 했어 아 우리아버지는 저 골짜기 들어가면 무를 심다가 말고서는 신발도 못신고 이걸 들고서는 좇아와서 아이 빨리빨리 갈 생각들 안하고 그러고 있다고 막 난리쳤지 아니 우리 할머니나 나나 뭘 알아야지 가만히 있었지 뭐 아 그랬더니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가자고 볶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철중에 어디 가다니까 철도쪽 내려가다 보니까 이 뒷동산에서 다 내려봤다 그래 벌써 인민군들이 와서

조사자 : 피난 가는거 다 보고 있었구나

제보자2: 그럼

조사자 : 그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보자2: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횡성까지 밖에 못갔죠

조사자 : 횡성까지 가셨구나

제보자2: 그쵸 그 다음에 난리에는 두번째 난리에는 저 충주까지 갔다가 왔어

조사자 : 많이 내려 가셨구나

제보자2: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피난 갔다가 오다나니깐 철도쪽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많아 어후 우리 군인들이 저기 저렇게 많네 내가 쪼꼬만한게 뭘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떠들었어 이렇게 아유 우리 언니랑 엄마랑 그게 어떻게 우리 군인이냐 뭐라 했는지 내가 집에 오니 개고 소고 다 잡아먹고 쌀도 다 뺏고 아주 매랑도 없이 해놨어 그러다가 다시 피난 갈라고 해도 다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는데 거기 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모두 밤을 새웠는데 황덕불을 해놓고 여기 모두가 돌아가며 다 뺑뺑 둘러 앉았는데 나도 옆에 거기 앉았는데 애들은 앉았다가 졸잖아 졸다가 이렇게 거기서 자 졸기 전에 아주 주인집에서 뭐 아줌마가 죽는다고 소리 소리 질러 나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얼른 막 우단난리 손 씻고 빌고 빌더니 애기 우는 소리가 막 나는거야

제보자1: 애기를 낳았지

제보자2: 음 애기를 낳았어 이제 그때 애기를 났는데 우리는 거기 앉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다가 깨니까 세상에 손발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얼어서 그래서 날이 훤히 샜는데 또 그 다음에 지리떠 해 해줘야 된다고 가라 하더래 그래서 가는데 그래갖고 충주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도 아유 말도 말어 우리 기차 꼭대기 다 타 봤어요

조사자: 기차 그 지붕 위에?

제보자2: 지붕 위에 곁에 곁에 지붕위에 탔는데 뭐 엎드려 엎드려 이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별이 하나도 없어 밤이니까 그래서 왜 그러나 했지 난 몰랐지 그랬더니 뭐 뒷칸에서 떨어졌데요 뭐 아우성을 치 난리니 떨어지니 뭐해 그만이지

제보자1: 난 중국놈도 보고 미군도 실컷 보고

제보자2: 그래가지고서는 얼마만큼 가다나니까 날이 훤히 새는데 밥을 저기서 여기서 저기서 도랑이서 나래비를 서로 교대로 댕기면서 밥을 했어요 그걸 해먹고 갈 때 되니깐 안가잖아 그때 기차가 뒤로 올라가 빠구를 했어 그게 왜그러냐 했더니 저기 사람 나오면 그거 태워 갈라고 그런데 그러다보니 저녁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아버지랑 우리 큰아버지랑 안되겠다 야 걸어가자 그래서 걸어서 갔는데 어디까지 가다보니까 인민군들 다 태워 가지고 나온다고 소문이 났드라 그래가지고 우린 충주까지 나갔지 아휴

조사자 : 큰일 날 뻔했다 일찍 태어났으면

제보자2: 그렇지 일찍 태어났으면 그런거 지금 모르지 이 패들이야 그럼 내가 열세살 먹고 그랬는데 아흐

제보자1: 아휴 아휴 내가 아휴

제보자2: 세상에 그

조사자 : 그렇게 막 시체를 밟고 다니셨는데 그게 군인 시체였어요 아니면 일반인들 시체였어요?

제보자1: 아유 다 저거 다 군인이지

조사자 : 전부다 군인?

제보자1: 그럼요 이북놈들하고 이남사람하고 양쪽에서 건너다 보고 쏘고 강이 가운데 있고 그랬는데 거기 이북놈도 죽고 이남사람들 군인들도 죽고 그냥 아주 쪽깔렀어 그냥

조사자: 그냥 밟고 넘어갔어요?

제보자1: 그냥 밟고 넘어갔어 그리고 기듬해에 먹을게 없어서 도토리 주울려고 가는데

제보자2 :우리는 그 송장을 그렇게 안봤잖아

제보자1: 시커먼 담요로 이걸 덮어놨어

조사자: 현리 그 뒷동네가?

제보자1: 예 뒷동네가 아 그러니까 그 가남 거기 올라가 거기서 살았거든 그런데 도토리 주우러 나와서 옛날 시커먼 모포 담요 위에 도토리가 아주 가득하거든 가서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쪼고만한게 하도 그렇게 쫓아가고 싶어가 도토리를 이렇게 줍다보면 그 밑에 송장이 있어

제보자2: 어메야, 세상에

제보자1: 이불을 그 담요를 뒤집어쓰고 그 군인 그 단화 신은채 모자 썬채 그렇게 야야야 너 거기 그거 너 거기 밑에 시체 있다 야 거기 줍지마 거 못 먹어 드러워서 거 송장에 있던걸 어떻게 먹니 그러고 바위 밑에 어떤 때에 가면 뭐 요렇게 하고서는 총을 여기다가 (턱밑에) 대고서는 요렇게 하고 죽은 것도 보고 난 숱해 봤어 바위 밑에

제보자2: 와아 우린 그 송장을 난 내가 갈 적에 하나 밖에 못봤어

조사자 : 그 이제 사람 죽은 거 안무섭겠다 하도 봐서

제보자1: 난 사람 죽은 거 난 저 새닥적에도 난 노인네 어디 돌아가셨다 그러면 소변 못누고 대변 못누면 다 갈아 눕히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고 숱했어요

조사자 : 어려서 하도 봐가지고

제보자1: 예 무섭질 않아 여기 돌 깎는 집 아들 할머니도 내가 가서 와보라고 전화를 해서 가니까 숨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기저귀 다시 채우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숨이차 그런건 뭐 산에 가면 중대한 거지

제보자2: 우리 피난갔다 오니깐 빨개가 우리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이장 반장 다 했거든 하이장 반장 내놓으라는 바람에 혼났어요 아유 그러더니 빨개가 그거 가르켜줘가지고 뭐해먹었는지 다알아 이야 무섭데 무서워

제보자1: 빨개가 알면 자꾸 전달하는데 뭐

제보자2: 글쎄 그래가지고 저기서 나온 애들이 뭐 해먹고 뭐 해먹었는지 아주 다 알더라고 들이대는데 무섭더라니까 우리아버지 우리아버지하고 큰아버지랑 글쎄 방이 길다란데요 가운데다 요렇게 농을 가져다 놨어요 그러니 이 뒤에다 감췄다고 글쎄 우리가 여기 앉았는데 아랫목에 앉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대고 총을 막 쏴 저기 바깥에서 문마다 저기서 저러고 섰어 총을 이야 무섭데 무서워

제보자1: 사람 감춰놨을까봐 그러지

제보자2: 그러더니 우리집께 저기 저 3반반장이라고 그이는 피난을 못가서 저기서 저 그거 했어 그 패들한테 맞아서 오줌 똥을 석달을 받아냈어 어휴

제보자1: 사람이 쪼까냈는지

제보자2: 아휴 무서워요 진짜 피란 난리나지 말아야지 지금 난리났다간 못가요

제보자1: 아니 무슨 연별역부터

제보자2: 지금은 차가 많고 저기 저 길이 좁아 못가 그때만 해도 어휴

제보자1:그때는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으니까 그냥 가라하면 글로 막 기어나가고

제보자2: 그럼 그러니깐 우리가 저 동면 가서 자는데 세상에 요기서 총이 저쪽에서 요렇게 엥엥 하고 지나가 근데 우린 애들이라고 거기서 있다가 잤어요 어른들은 거기 날도 새우고 어이고 아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살았어 지금 이패들은 모르지

조사자: 참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보자2: 아유 그냥 내가 뭐라고 거기다 적어? 적지마요

조사자: 그래도 누구 만났는지 서화리에 누구 만났는지는 적어놔야되요.

제보자2: 난 뭐 적으면 뭘해

제보자1: 안적어도 돼요 그런거

조사자 : 안적어도돼요?

제보자1: 뭘 적어요

2 인제군 서화면 서화1리 진경숙 제보자(87세)

진경숙: 그 풀 썰면서 했던 소리?

조사자: 예 그 풍습을 잘 아실 분은 여기 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진경숙: 예 어떻게 그렇게 내가 뭐 잘 아나

조사자: 어르신 진 경

진경숙: 숙

조사자: 경자 숙자

진경숙: 예

조사자: 올해 연세가

진경숙: 팔십칠

조사자: 아 저 위에 동네에서 87세쯤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쩜 이렇게 정정하세요

진경숙: 뭘 정정해요

조사자: 보시기에는 농사 하나도 안 지으신 분 같애요

진경숙: 어이고 뭐 농사 어렸을 때부터 난 농사꾼으로 살았어요

조사자: 어려서부터

진경숙: 예

조사자: 그 뭐 저기 뭐야 고향은 어디신데?

진경숙: 고향은 횡성에서 들어왔어요 강원도 횡성

조사자: 횡성사람 횡성어르신이구나

진경숙: 예

조사자: 아~ 그 그러면 횡성 어디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진경숙: 태어난 거는 저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사자: 평창 어디?

진경숙: 평창 봉평

조사자: 그러면 몇살 때 횡성으로 그럼 가신 거에요?

진경숙: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또 내면이라고 거기 와서도 혼자 살다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한 열 열살도 전에 넘어왔어요 내면 자른이라고 여기 와서 또 한 저 한 20년 살았죠

조사자: 그 홍천 내면?

진경숙: 예 홍천 내면

조사자: 내면에서 한 20년 사시고 그리고

진경숙: 그리고 횡성 나갔어요 횡성 둔내라고

조사자: 둔내

진경숙: 예

조사자: 거기는 거기는 한 얼마나 계셨어요?

진경숙: 거기서 한 뭐 얼마 살지도 못했죠 거기서 거기서 살다가 군대 갔으니까

조사자: 예 그럼 군대 갔다와서 서화로 오신 거에요?

진경숙: 예예

조사자: 그럼 서화는 몇살 때 오신 거에요?

진경숙: 서른살

조사자: 서른살에?

진경숙: 예

조사자: 그리고 지금까지 사신 거에요?

진경숙: 예

조사자: 그러면 그 홍천 내면이랑 여기 사실 때에도 다 농사 짓고 사셨어요?

진경숙: 농사 짓고 살았는데 어른들이 농사 지으니까 따라서 농사 짓죠 그때는 열살 미만 그러니까

조사자: 그럼 왜 이렇게 옹 저기

진경숙: 아 그리고 참 내면 살 때는 농사 지었네 내면 살 때는 내 혼자 농사 많이 지었어요 산다고

조사자: 그때는 화전농사였나요?

진경숙: 예 화전농

조사자: 화전농사 지으셨구나? 봉평에 있을 때도 화전농사 하셨고?

진경숙: 봉평에 있을 때는 어른들이 했으니까 과정 안하고

조사자: 어려서

진경숙: 예

조사자: 그리고 이제 저기 홍천 내면 와가지고 화전농사 하시고

진경숙: 예

조사자: 아 그러다 군대 갔다와서 횡성에 잠깐 있다가

진경숙: 횡성에 잠깐 있다 한게 횡성에 잠깐 있다가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일로 바로 들어왔죠

조사자: 서화 처음 그 30살에 오셔가지고 그때 농사지을 때 그때는 화전은 아니였잖아요

진경숙: 그때 화전 아니죠 화전이랑 같애요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부 묵었댔어

조사자: 묵었어?

진경숙: 예 논이 전부다 묵었댔죠

조사자: 아 수복되서 왔으니까

진경숙: 그럼요

조사자: 아

진경숙: 논이 전부 묵어서 그 저 버드나무가 뭐 이따구 막 들어서 있고 그랬어요

조사자: 그거 베고 불 놓고 해갖고 농사 땅을 다시

진경숙: 예예

조사자: 논에 농사를 안 지어 놓으니까 그게 풀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진경숙: 그럼요

조사자: 그죠 논이?

진경숙: 예

조사자: 아 몇년간이나 그렇게 묵혀놨대요?

진경숙: 그러니까 6.25가 나가지고서는 눌러 그랬으니깐 한 5년?

조사자: 한 5년 묵혔는데도 풀이 그렇게 자라는구나

진경숙: 5년 5년 넘었어요 한 7~8년 됐겠네

조사자: 아 어르신 그 땅이 농사를 안지으면 그렇게 금방 그렇게 자라요? 풀이?

진경숙: 그럼요 풀이 풀이 나무 뭐 풀 많이 자라죠

조사자: 근데 화전농사 할 때는 풀이 많이 자라면 거름할게 많으니까 좋잖아요

진경숙: 그 그런데 그때는 비료도 없어서 비료도 잘 못썼어요 그냥 비료 안쓰고서는 농사 짓고 그저 그랬죠

조사자: 그러면 내가 풀 써는거 그런거 풍습 좀 여쭤볼게요 어르신 1년에 풀을 논에는 갈 풀을 봄에 풀 한번 넣죠? 모심기 전에 논에

진경숙: 논에 풀 아 저 갈 갈거 산에 가서 갈 꺾어서 갈이라고 저 저 떡갈나무

조사자: 예예 잎파리 이렇게 된 떡갈나무

진경숙: 그거 꺾어다가 놓고 거기 그 4월달에 그걸 넣죠 아마 예 그래요

조사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풀 그 풀 여럿이 풀 작두에 썰면서 소리도 하고 이럴 때는 그거는 7월에 7~8월에 하는 풀인가요?

진경숙: 7~8월에 해가지고 이렇게 싸놨다가 소 소도 밟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봄에 꺼내다가 캐는 거죠

조사자: 아 그러면 그거는 봄에 거름 나갈 때는 뭐뭐 심었어요? 그걸로

진경숙: 그거 밭에다가 뿌리고 콩도 심고, 뭐 여러가지 심죠 옥수수 옥수수 많이 심고 그거 조도 심고 뭐 그러죠

조사자: 논에는 안넣고?

진경숙: 논에는 그걸 넣긴 넣어도 덜 넣죠

조사자: 덜넣고? 주로 밭에다가 많이 뿌렸군요?

진경숙: 예예

조사자: 밭농사가 어르신은 밭농사가 많았어요? 아니면 논이 많았어요?

진경숙: 어려서는 밭농사하고 여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서른살에 여기를 들어왔는데 들어 와 가지고서는 논 많이 부쳤죠

조사자: 한 몇마지기

진경숙: 논 뭐 많이래야 한 사천평 정도

조사자: 아이고 많이 하셨다. 그럼 밭은 한 얼마나 됐어요?

진경숙: 밭 한 삼천평

조사자: 그럼 거름이 많아야 되겠다

진경숙: 아 거름을 다 못하죠 다 못해요

조사자: 다 못해요? 그럼 어르신 7~8월에 풀한다 그러면 혼자 못하니깐 그럼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어요?

진경숙: 그쵸 그렇죠 예

조사자: 그럼 몇 한 몇명이 어울려서 몇집이 어울려서 품앗이를 하게 되요? 그렇게 되면

진경숙: 일곱 여덜 그렇게 오죠

조사자: 일곱 여덜?

진경숙: 예예 한 다섯 여섯도 하고 뭐 대중이 없어요

조사자: 그럼 어르신은 그러면 그 밭 3000평하고 논 4000평 할 때 풀짐이 한 몇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해에 풀 베면

진경숙: 하 여기 와서 풀 벨 때 한 한에 일곱짐씩 한 70~80짐? 그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밖에 못내요 많이 못내

조사자: 아 70~80짐 해서 썰어놨다가 이제 마구에 소 밟혀서

진경숙: 소 소 밟혀서

조사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진경숙: 예예

조사자: 아 이제 밭에다가 뿌리는? 아

진경숙: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거기다가 그것도 밟히고 여러가지 밟히죠 소를 많이 소를 많이 멕이니까 소 뭐 그거는 대중할 수 없어요. 짐으로는 여름내에 꼭 풀 베야되니까

조사자: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품앗이로 돌아가는 풀만 하는게 아니라

진경숙: 예예 그럼요

조사자: 짬날때마다 계속 져오는군요?

진경숙: 짬날때가 아니라 소 소를 키우니까 계속 날마다 해야죠 날마다

조사자: 소 꼴 베는 거?

진경숙: 예예

조사자: 소 꼴은

진경숙: 꼴을 베서 밟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것도 내니까

조사자: 또 거름 만들어야되고?

진경숙: 예 거름 만들고

조사자: 어르신 옛날에 그 어울려서 풀 베러 갈 때는 주로 요 뒷산 가서 해옵니까?

진경숙: 예 그렇죠

조사자: 뭐 골 이름이 있지 않았어요? 뭔 골 뭔 골 이렇게

진경숙: 여기 여기와서는 골 이름 잘모르겠는데 여긴 여기는 이 구구골 이거 하나 밖에는 몰라요

조사자: 여기 무슨 골이에요 이게?

진경숙: 구구골

조사자: 구구골이에요?

진경숙: 구십구골

조사자: 아

진경숙: 왜 구십구골이냐 그것도 여 들어와선 만들어놓은 이름이래요 여기 구십 구포대가 있었어

조사자: 아

진경숙: 여 골에 골짜기에 군인들이 있었을 때인데 구십구포대가 있었는데 그래 구십구포대가 있었으니까 구구골 구구골 그렇게 된거지

조사자: 아 군인들 때문에 나온 말이구나?

진경숙: 예예

조사자: 그러면 산에 풀은 이런데 산에 가서 막 베가지고 멀리 안가도 됐어요?

진경숙: 예 멀리 그저 안가고 대충 그리 멀리 안가죠

조사자: 멀리 안가고 그 풀은 무슨 풀 무슨 풀

진경숙: 아무거나 막 베는 거죠

조사자: 그래도 이름 생각나는 대로

진경숙: 뭐 쑥 새초 그리 뭐 풀이 다 생각이 나나 다 생각이 안나죠

조사자: 그래도

진경숙: 뭐 풀이 여러가지 이렇게 나니까 그걸 어 뭐 뭐 북나무쑨 갈닥나무쑨 뭐 이 나무란 나무는 다 순 보드라운걸 좀 골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작두에 썰죠

조사자: 그러면 새초 저기 그 쑥 새초 새초는 뭐를 새초라고 그러죠 어르신?

진경숙: 저 억새

조사자: 억새 억새를 새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안들메인가?

진경숙: 예 안들미

조사자: 안들미

진경숙: 예 그 소꼴도 하고

조사자: 이게 소꼴 많이하는 거죠? 안들미는 예 그리고 뭐 그냥 풀은 뭐 아무 풀이나 다 갖다 넣으니깐 막 베는거에요?

진경숙: 막 베는거죠

조사자: 그 풀이름이 풀이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름 모르는 풀도?

진경숙: 아휴 다 모르죠 반 반도 모르죠

조사자: 아 그 나무는 어르신 왜냐면 이게 나무는 북나무 깔닥나무 하는데 작두에 넣을 때 그 소리 좀 여쭤볼게요 저 이 작두에 넣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 이 하는 걸 소리라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어르신

진경숙: 예 힘드니까 그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 뭐야 나무같은 거 저 큰거 나오면 그거를 저 저 뭐야 뭐라 그러나 그거 아휴 그것도 또 다 잊어먹었네 아 아이고 그걸 아휴 아이고 무슨 뭐라고 이름이 있는데 그 억새인가 그런거 들어 갈 때 그런거 썰 때 들어가는 거 있고 보드라운거 썰 때는 뭐 뭐 지렝이 갈비대니 뭐 어쩌고 이러죠

조사자: 지렝이 갈비대

진경숙: 예

조사자: 또?

진경숙: 그 지렁이 갈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렁하다는 얘기이고 아이고 억새인가 그거 써는 걸 저 잊어먹었는데 뭐 뭐라고 있는데

조사자: 아까 할머니가 저위에 할머니가 우러리야 라고 그랬나?

진경숙: 우러리라고 하는 거는 풀 이름 풀 하는거 우러리 작두 풀하는 거 이름이고

조사자: 풀 하는 작두 이름이 우러리에요?

진경숙: 예 작두 이름이 아니라 풀 하는 풀 이름이 우러리

조사자: 우러리 아

진경숙: 우러리라는건 이제 풀 아람 그런 얘기죠

조사자: 아 아람이다 그런 얘기?

진경숙: 풀 아람

조사자: 아~ 풀 아람

진경숙: 풀 아람이 들어간다 우러리야 우러리야 하면서 이제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억새가 들어갈 때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사자: 아 뭐 뭐 작두 이렇게 들어라하는 소리를 뭐라그래요?

진경숙: 예 작두 들으라는 소리는

조사자: 뭐 개다리 뭐 뭐 개다리 심올랐다 예 다른

진경숙: 예예 뒷다리 심올랐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그게 소리가 되어있는게 아니고 입담 좋은 사람이 맘대로 떠드는 거요 맘대로 뭐이라 하든지 그런거지 그게 뭐 소리가 되어있는게 아니에요

조사자: 그러니까 어르신 그게 그 옛날부터 소리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이 풀 들어가는 풀에 따라서 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진경숙: 그렇죠 예 풀에 따라 하는데 입담이 좋은 사람 그저 자꾸 찌걸이는 거죠 그게

조사자: 입담이 좋은 분은 자꾸

진경숙: 예

조사자: 그거 뭐라 했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어르신?

진경숙: 그걸 모르겠네요

조사자: 지금 저기 북면에서부터 쭉 오는데 이 70대 후반 80대 초반에서도 우린 위에 선배들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경숙: 예 그렇죠

조사자: 그러니까 어르신이 기억하셔야 되요

진경숙: 뭐 나도 어렸죠 어려서 그거 풀하고 여기 들어와서는 풀 안했어요 거름을 안했어요

조사자: 그때는 서른살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럼 50년인데 50년 전인데 훨씬 더 됐는데 그때도 이미 비료가 있었어요?

진경숙: 비료가 조금씩 있었죠 많이는 없고

조사자: 그럼 여기와서는 풀 많이 안썰었어요?

진경숙: 그 풀 많이 안썰었죠 소 소 멕이면 그저 소꼴 그거 소 밟힌 거 그런거 갖다 내고 그랬어요

조사자: 그 군에서 풀베기 대회 뭐 퇴비증산 해가지고 마을마다 대회도 있고 그랬다는데

진경숙: 예예 그 대회가 조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사자: 예

진경숙: 그거는 잘 기억도 안나요 조금 있었는데 뭐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있나

조사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풀 썰고 소리 했던 거는 기억이 안나세요? 뭐라 했는지? 이 동네 와서 보니까 풍습이 평창하고 다르잖아요 좀

진경숙: 우러리라는 소리만 듣고 하고 지렝이 갈비대이니 뭐 이러면서 아니 뭐 아이고 뭐야 무슨 나무이름 쪼록사리 이름 풀이름을 대면서 뭐라고 떠들었는데 그거는

조사자: 그니까 이게 쪼록싸리인데 쪼록싸리이다 이런게 아니라 뭘뭘 뭐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쪼록싸리다

진경숙: 예예 맞아요 예예예 그렇게 안하고

조사자: 기억을 잘 못하셔요?

진경숙: 여기 어려서 저기서 농사지을 때 어른들이 하는거 좀 보고 여기 들어와서야 뭐 한 2년간 그랬나? 풀 좀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런건 잘 모르겠어요

조사자: 그럼 서른살에 여기 서화 왔을 때는 옥수수 농사가 제일 잘됐어요?

진경숙: 옥수수 제일 잘됐죠 제일이야

조사자: 찰강냉이 아니면 메강냉이

진경숙: 찰옥수수 많이 심었죠 찰옥수수 많이 심고 메옥수수 많이 심었는데 메옥수수는 이제 소 멕이러다 그때는 저 저 위에서 시켜갖고 그거하고

조사자: 매상을 했구나? 수매를

진경숙: 예 매상을 수매를 해받아서 매상을 하고 그거 밖에는 그리고 조 조를 많이 심고 처음 들어와서는

조사자: 조

진경숙: 예 논이 없으니까 처음 들어오면 논이 없잖아요 물을 물을 못대니까 논을 일구지도 않았고 이랬으니 그래서 논이 없었고 그래서 조 조를 주로 많이 심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옥수수 심고 그랬어요 콩 콩심고

조사자: 콩 심고 그럼 처음에 왔는데 논에 막 풀이 우거졌어요 그러면?

진경숙: 예

조사자: 그거를 다 베서 불을 놨어요?

진경숙: 파내야죠

조사자: 예?

진경숙: 뿌리를 파내야 되요

조사자: 아 불 놔서 될 일이 아니고?

진경숙: 예 불 불도 놓기야 놨지만은 불도 놓을 수 있으면 놓고 그러고 뿌리를 파내고 그랬어요 그게

조사자: 뿌리를 그래서 뿌리를 파내고 그러고는 이제 조를 좁씨를 뿌렸고?

진경숙: 예

조사자: 그 다음에 옥수수 심고

진경숙: 콩 심고

조사자: 콩 심고 그러면 벼 심을 때까지 몇년이나 걸렸어요? 나락 심을 때 까지는

진경숙: 한 한 4~5년?

조사자: 4~5년?

진경숙: 한 4~5년 걸렸나?

조사자: 그렇게 다른 밭작물을 심다가 물 대 가지고 벼를 심었구나? 아~ 막 그렇게 예전에 그어디야 철원 이쪽 가면 지뢰사고가 참 많았던데 여기 논에는 지뢰같은 거 없었어요?

진경숙: 그 군인들이 여기 꽉찼으니까 지뢰가 없죠 산에만 있지 산에 좀 멀리 가야만 있고 여야산에는 없었고 그랬어요 야산에도 더러 혹간에는 있었어요 지뢰가 혹간 그래서 여기서 사고나서 죽은 사람도 많았죠

조사자: 아 지뢰사고로?

진경숙: 예예 젊은 사람들 그거 폭탄 두드리다 터지고 뭐

조사자: 두드려보다가 터졌어요?

진경숙: 예

조사자: 할머니는 고향이 어디세요?

할머니: 양양 물치리요

조사자: 아 저 고개 넘어 오셨네 이쪽으로

진경숙: 저쪽 내면 뭐 그쪽으로 넘어왔죠 봉평으로 봉평으로 왔지 처음에?

조사자: 물치리가 좋은데 왜 가셨을까?

진경숙: 어른들을 따라댕기니 그때 나이가 어려서 뭘 알어? 한 열한살

조사자: 그럼 두분이 몇살때 결혼하신거에요?

진경숙: 우리 일찍 결혼했죠 내가 열아홉살 열여섯살

조사자: 그러면 벌써 몇년이에요? 어이고 가만있어봐 조금 있으면 70년 다가오네요 그죠?

진경숙: 예

조사자: 우와 아이고 참 자식은 몇이나 두셨어요? 그러면은

진경숙: 오남매

조사자: 아들 몇 딸 몇

진경숙: 아들 둘 딸 서이

3 인제군 북면 월학3리 풍전동 최덕순(남, 96세)

조사자: 안녕하세요 아 식사 다하셨어요?

최덕순: 예

조사자: 아 옛날 서화의 옛날 풍습을 좀 여쭤보러 왔어요 옛날 작두에 풀 썰던 풍습을 옛날 어르신 저 산에 퇴비하고 퇴비하면 작두에다 이렇게 풀 썰고 그랬잖아요

최덕순: 근데 내가 귀가 먹어서

조사자: 옛날 풍습을 지금 기억을 못해요 전부다 이제 근데 어르신이 연세가

최덕순: 예예

조사자: 제일 서화에서 제일 많다고

할머니: 어 여기서는 아주 뭐

조사자: 노인회장님이 저기 서화 노인회장님이 이쪽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왔어요

최덕순: 아 예 서화 살았어요 서화면 신정리에서 살았어요

조사자: 서화면 신정?

최덕순: 예 신정리

조사자: 신정리

최덕순: 예

조사자: 거기서 태어났어요?

최덕순: 거기가 신정리라 그랬죠

할머니: 거기서 살다 여기왔어요

조사자: 그럼 원래 태버린 곳은 어디에요?

최덕순: 그럼 여기서

조사자: 할아버지 고향은?

할머니: 여기지 뭐

조사자: 고향은 여기요?

할머니: 서화리 그럼

최덕순: 네 신정리 신정리에서 살다가요

조사자: 여기는 월학 3리에 들어가죠?

최덕순: 예 월학3리요

할머니: 예

조사자: 월학3리 풍전동

최덕순,할머니: 예

조사자: 풍전동 어르신 함자가 최

최덕순: 최 덕순이요
조사자: 덕자 순자
최덕순: 예
조사자: 올해 연세는?
최덕순: 시방 뭐 구십여섯 거의 다됐죠
조사자: 구십여섯?
최덕순: 예
조사자: 그래도 건강하셔요
할머니: 건강하나마나 뭐 여때문에 나한테 아주
최덕순: 오늘도 아까 일했어요 저기 저 날까랑 다시 덮고 뭐
조사자: 아 왜~
할머니: 우린 6년 맞이야
조사자: 6년 맞이요?
할머니: 내가 여섯살 적어요
조사자: 아 그럼 아흔 올해 아흔?
할머니: 예 구십이요
조사자: 와 두분이 몇살에 결혼하셨어
할머니: 나 열다섯살에 지금 열다섯이라면 어린애지
최덕순: 여봐요 나도 햇언날 데려 키우냐고 혼났어요
조사자: 햇언날 데리고 키운
할머니: 키우긴 뭘 키워 그래도 부려먹느냐고
조사자: 아니 그러면 열다섯살 스물한살
할머니: 그럼
조사자: 아 그랬구나 그럼 어디 고향 태버린 고향은 어딘데
할머니: 서화리여
조사자: 서화리?
할머니: 응
조사자: 그냥 저기 뭐 한데 멀리가지 요기서 요기서 결혼하셨어요?
할머니: 서화리에서 했지 뭐
조사자: 그러니까 서화리에서 중매결혼하셨어요?
할머니: 그럼
조사자: 옛날에 얼굴도 모르고 시집갔어요?

할머니: 그럼 뭐

조사자: 그랬구나 어르신 그 옛날에 비료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거름을 전부 다 풀을 썰어서 넣었잖아요, 옛날 풀 썰면서 작두에 풀 이렇게 넣을 때 뭐다

최덕순: 예예

조사자: 이런 소리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덕순: 예예

조사자: 그래서 그 어르신 그거 기억이 조금 나는가 하고

최덕순: 옛날 하던 거 왜 뭐 환하죠

조사자: 그럼 그 풀 써는 소리 좀 예

최덕순: 풀을 작두에다가 어떨 때엔 작두 여물 썰고 그러면 이제 혼자 작두를 들었나 놨다 밟잖아요 풀 써는 거는 많이 내리면 둘씩도 해요 한꺼번에 둘이 작두질을 작두하나 가지고 그렇게도 했고 풀을 죙일 됬다 지약에 지약에 놓으면 또 이실도록 썰어서 낫까지 가져가서 밭에 내고

조사자: 예 밭에 내고? 그러면 풀 풀짐을 풀 그 이렇게 지러 갈 때 몇명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품앗이로 이렇게 하셨어?

최덕순: 그럼요

조사자: 몇집이 어울러서?

최덕순: 뭐 어떤 때에는 여나므집씩 어울러서

조사자: 여나믄집

최덕순: 예 열개

조사자: 그러면 어르신 그 풀 베러 가면 이제 한 여남은 집이 여기 여기 풍전동에서?

최덕순: 예

조사자: 그러면 한 여나믄집이 어울려 풀을 한다 그러면

최덕순: 예예

조사자: 아침 몇시부터 이

최덕순: 아침엔 그저 날 새면 올라

조사자: 올라가서?

최덕순: 예

조사자: 베고 내려 한짐 지고 내려와서 밥 먹고

최덕순: 그럼요 품을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조사자: 예

최덕순: 품을 저 어울러도 하고 그랬어요

조사자: 어울러도 하고 품을 사서도 하고?

최덕순: 품을 사가지고 하는 건 일찍 하기 때문에 남의 일보다 그게 힘들고 그러다가 품값도 비쌌어요

조사자: 그때는 풀을 이렇게 하루 해주면 쌀을 주던가 그랬죠?

최덕순: 쌀 주고 그랬는데 쌀 닷되요

조사자: 닷되 ?

최덕순: 아유 닷되 다섯되 반말

조사자: 닷되?

최덕순: 예 한 말은 열 되 잖아요?

조사자: 아

최덕순: 근데 한 말이면

할머니: 반 말이지 반 말

조사자: 그러면 소 되가 작은 되인가보다

최덕순: 고거는 이제 열 되가 되야 한 말이 되요. 동그란 말로 근데 그걸로 다섯개를 받아서 왔어요

조사자: 아 고게 어르신 몇살 때쯤

최덕순: 아 흠 한삼십대까지도 그랬어요

조사자: 아 그럼 한 60년?

최덕순: 여기 저 해방되가지고 여기 처음 들어와서도 그렇게 풀 벴어요

조사자: 풀 벴어요?

최덕순: 여기와서도 그랬어요

조사자: 어르신 그때 풀 작두에 풀 넣으면서 소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나세요?

최덕순: 네 기억 안나요

조사자: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최덕순: 소리를 지르면서

조사자: 예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했는지 해주셔요

최덕순: 저 무슨 덩불이다 낭그다 뭐 그렇게 그게 그 부르는 거는요 무슨 덩불이다 이러카면 무슨 연해서 살살히 딛으라는 거고요 이거 무슨 나무다 어쩌고 그러면 콱 두라는 거고 이러면서 여물 썰 때 그렇게 썰어요

조사자: 음

최덕순: 떠드는게 그렇게 떠들어요

조사자: 그게 덤불이다 이러면 살살 딛어라

최덕순: 예

조사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들어갈 때는 힘 주라고 뭔 나무다

최덕순: 예예

조사자: 어르신 방구낏다 뽕나무 뭐 이런 소리도 하셨어요?

최덕순: 그런건 몰라요

조사자: 그런건 몰라요? 아니 그 뭐 나무가 무슨 버드나무도 있을 거고

최덕순: 예

조사자: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있었어요?

최덕순: 버드나무가 많죠

조사자: 버드나무 또

최덕순: 그 다음에 웬만한거 다 상당히 굵은거 그런거 막 베서 썰어요

조사자: 그럼 딱딱한 나무 여물어서 아주 이렇게 잘 안짤리는 나무는

최덕순: 아주 딱딱하면 안되고 좀 여무는거

조사자: 뭐 피나무도 있고?

최덕순: 예 그런건 좋죠

조사자: 피나무도 있고 버드나무 있고

최덕순: 나무 이름이야 있지

조사자: 또 아니 작두에 막 들어가는게 쑥도 있을 거고

최덕순: 자작나무 무슨

조사자: 자작나무

최덕순: 예 소태나무라고 있어요

조사자: 소태나무

최덕순: 소태나무 그 뭐 다 들어가요

조사자: 아

최덕순: 웬만한건 다 베요

조사자: 다 베요?

최덕순: 예

조사자: 아

최덕순: 그래서 이제 그 낭그 그 인제 금방 인제 거름되는 건 풀이래두요 그 나무 이제 그런걸 베서 그저 막 썰어서 냅두면 그 나무가 썩으면 오래가요 오래오래 몇해 그렇게 되요 그래서 나무 막 베고 그랬어요

조사자: 아 그러니까 풀만 하는 풀만 하는 건 금방 썩으니까 금방 거름하는데

최덕순: 예

조사자: 나무도 베는 거는 나무는 몇해동안 썩으니깐 계속 거름이 되는구나

최덕순: 예예 오래 가요

조사자: 그러니까 나무도 오래 가고 아 여기는 어르신 밭이 많았잖아요 밭 밭농사

최덕순: 예

조사자: 아 농사는 여기말고 또 어디 지으셨어요?

할머니: 서화

최덕순: 서화면에서 짓다가

조사자: 서화?

최덕순: 서화면 신정리 거기서

조사자: 신정리 짓다가 여기 내려오셨구나

최덕순: 예 피란나갔다가 해방되서 여기 들어왔어

조사자: 아 수복된 다음에 여기 오셨구나

최덕순: 해방된 다음에 여기 들어왔어요

조사자: 해방되고?

최덕순: 예 해방되고

조사자: 아 그 저기 그 외정 일본식 그 저기 그거 다 가고 해방되고 일로 오신거

최덕순: 예예 아휴 나는 일본 보국대로 갔댔어요

조사자: 일본 보국대도 갔다오셨어요?

할머니: 보국대 가서도 3년만에 왔는데 뭐

최덕순: 일본에 갔다왔어요 일본에 가서 2년

할머니: 나 열다섯 먹은거 데려다 놓고

최덕순: 처음에는 2년을 기한으로 가요… 우리사람을 일본사람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일본 가서 2년 8개월 있다가 거의 3년 있다가 나왔어요 해방되는 바람에 나왔어요

조사자: 갈 때 나이가 몇살이였어요?

할머니: 아이 뭐 갈 때 그러니까

최덕순: 스물 스물서이지?

조사자: 스물셋?

최덕순: 스물 서이

조사자: 그 갔다 와가지고 6-25전쟁에 또 가셨어요?

최덕순: 그 그땐 이북사람들이요 가라 그래서 원산까지는 갔댔어요 원산까지는 갔다가 꾀병을 부려갖고 꾀병을 부려서 왔어요

조사자: 그때는 나이가 서른이 넘었겠다. 서른 그죠?

최덕순: 예 그 조금 넘었어요

조사자: 월학리는 어르신 북면에 들어가죠?

최덕순: 예 여기가 북면

조사자: 아 북면 월학리

최덕순: 북면 북면 월학3리. 풍전동이라는데래요

조사자: 예 풍전동 그 저기 작두에다가 풀을 넣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막 소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최덕순: 그럼요

조사자: 그러면 어르신 작두에 풀을 넣는 사람이 소리를 해요 아니면 풀을 대주는 사람이 해요?

최덕순: 예 대주는 사람이 했어요

조사자: 이 풀을 메시는 사람 말고 뒤에서 풀을 대주는 사람이 소리를 해요?

최덕순: 예예

4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이태순(남, 69세)

이태순: 풀멕이는 소리가 있죠

조사자: 그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저 서홍2리 노인회장님 이태석 회장님 예 저기 사촌 ?

이태순: 예 사촌 형님이에요

조사자: 예 그러면서 나는 못하고 풀 써는 풍습은 얘기를 쭈욱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뭐 아침 몇시에 가서 지고 내려오고 이런 얘기는 이제 해주셨는데 그 노랫말은 생각이 안난다고 그래서 노랫말이 어땠는지

이태순: 근데 그 노랫말

조사자: 예

이태순: 나도 그거는 내가 10년 됐을 때 그 다음 면장님 면장님 처음 서면에 들어와서 면장님 할 적에

조사자: 예

이태순: 퇴비를 한달을 꼭 지게로 질라면 한달을 졌거든요

조사자: 한달을?

이태순: 예

조사자: 아이고 예

이태순: 근데 우리동네 전기도 없었어요 전기도 안들어오고 그냥 호얏불 켜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퇴비를 한달동안 진다는 걸 전국에서 2등 먹었나요?

조사자: 허 전국에서 2등 먹은 거면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거

이태순: 아휴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는

조사자: 예예

이태순: 그래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적에 대통령 상 받아갖고 그 자금으로다가 그 전기를 우리가 끌었거든

조사자: 거기 거 서화면에요?

이태순: 아니 저 무쇠점 제가 무쇠점에 살았어요 그 서홍리 강 건너 강 건너 그 방앗간 알아요?

조사자: 예

이태순: 그 방앗간 건너편 그 마을이 무쇠점인데

조사자: 무쇠점?

이태순: 예 거기는 그전에 다리가 없었고 순 강으로만 저 옷을 벗고 강으로만 건너 댕기고 거의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을 꼭 지게에다 지고서 강을 건너다 놔야 차가 싣고 가고 그랬는데

조사자: 무쇠점이 그랬다는 거죠?

이태순: 예 무쇠점 마을이요

조사자: 예예

이태순: 그래서 대통령 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금으로다가 이 원통으로 전기기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전기를 끌었지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서 전봇대도 차로 운반한게 아니라 아주 우리 동네 마을사람들이 전체가 뭐 아주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전봇대 구루마를 만들어서 구루마에 얹어가지고 물로다가 밀고 끌고

조사자: 그 큰놈을?

이태순: 예 전봇대를

조사자: 그때는 그때는 나무 아니였나요? 전봇대가

이태순: 아니 나무 아니고 쇠면 쇠면인데

조사자: 쇠면

이태순: 저렇게 큰게 아니고요 저거보다 짧고 좀 가늘었어요

조사자: 아 그랬구나

이태순: 예 그래가지고 구루마에다 얹어가지고는 이제 사람이 끌고와서는 밭에다 일구는 밭에다 전봇대 세울 구덩이를 파고 그러니까 전부 인력으로 소비했어요 무쇠점 전기를요

조사자: 어쨋든 풀썰기 대회 2등하는 바람에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태순: 예예 그전에는 어려웠죠 뭐

조사자: 그러면 저기 사장님 저기 서홍 서홍리 무쇠점은 지금 서홍 몇리에 들어갑니까? 거기는

이태순: 2리요

조사자: 2리에 들어가요? 그럼 원래 태어나신 곳이 어디세요?

이태순: 아니 전 태어난 곳은 기린인데요

조사자: 아 기린 기린 어디요?

이태순: 궁동이요 궁동

조사자: 궁동 기린면 무슨 리에 들어가죠?

이태순: 저기 북리

조사자: 북리? 아 북리 궁동

이태순: 아 저 명진농장 아시는지 모르겠네 기린 궁동에 가시면 명진농장 지금 있는데 바로 뒤에서 살았는데

조사자: 아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서홍은 그럼 몇살 때 가신 거였어요?

이태순: 거 열아홉살 때 간 거죠

조사자: 열아홉살 때 아 열아홉살에 그러면 그 기린 사실 때는 풀 써는 풍습이 있긴 그때도 있긴 있었죠?

이태순: 예 비료가 없으니까 순 산에서 풀 베다 썰어서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밭이고 논이고 다 냈잖아

조사자: 예예

이태순: 내가 학교 다닐 적에도 기린국민학교 댕기는데 그 어른들 이 썰어서 등불 만들어 가지고 밤에 작두로다가 풀 써는 걸 내가 그때서부터 알았죠

조사자: 그러면 문서가 생각 나시는지

이태순: 문서는요 문서는 알긴 조금 아는데

조사자: 그냥 막 기억나시는 대로

이태순: 완전히 다 하진 못하구요

조사자: 예 그래도

이태순: 여기서 올해 이제 풀썰기 해가지고 저기 어딜 갔어나 저기 어디야

조사자: 대회 같이 참석하셨어요?

이태순: 예 갔었어요

조사자: 예

이태순: 선소리를 주고 우리는 이제 작두로다가 풀 썰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사자: 아 저 그 저기

이태순: 나도 어려서 어른들 학교 다니면서 어른들 풀 썰 때 소리 들어보면은 그 소리 들은 거하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가지고 저기 대회 나가서 김종식씨 그분이 소리 준 거 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조사자: 그러니까 인제니까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거 그냥 예

이태순: 어려서도 뭐 내가 한게 아니고 세월이 오래되니까

조사자: 참 올해 올해 예순아홉?

이태순: 예예 예순아홉 칠순이 다됐는데

조사자: 어휴 그래도 기억력이 좋으신거죠 뭐 .. 태자 순자?

이태순: 네 이태순

조사자: 지금 현재 사는데는 상동4리죠?

이태순: 예

이태순: 이 저 쌍작두 쌍작두를 딛었는데요 우리도. 예 그 풀 썰면서 이제 그 풀 멕이는 사람이 뭐 자 우리 이제 그 그때 순 막걸리를 먹었잖아요

조사자: 예예

이태순: 막걸리 한잔씩 먹고 다음에 이제 풀썰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풀을 멕이면서 자 이제 풀 써니 서로 조심해서 우리 풀을 열심히 한번 썰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 풀 멕인다 우선 풀 멕이는 사람이 이제 이제 싸리 싸리나무가 들어오면 양지 끝에 보소리 양지끝에 보소리 곶감꼬쟁이가 들어온다 또 뭐야 북나무가 북나무가 들어오면은 아 방구꼈다 북나무 뽕나무가 오면은 아 북나무가 오면은 둥둥 울려라 북나무 또 뽕나무가 오면은 방구꼈다 뽕나무 이렇게 이제 그걸 예 내 엮으면서 이제 이

렇게 멕이는 거에요 멕이는데

조사자: 그러니까 굳이 그걸 북나무다 뽕나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둥둥 울려 북나무다 거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이태순: 예 북나무가 들어오면 아 둥둥 울려라 북나무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조사자: 오 그러니까 그럼 훨씬 재미있어지는데

이태순: 그러고 이제 소나무가 보독이가 들어오면 저 황장목이 들어온다 황장목

조사자: 황장목이 들어온다?

이태순: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새초나 이 무른 풀 같은게 들어오면 무른대미 한아름 이렇게 이제 한아름 들어간다 하면서 작두 딛는 사람 보고 작두 이렇게 벌리는 걸 봐가지고 아가리 아가리 딱딱 벌려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아름씩 푹푹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런 참나무 이런게 들어오면은 응달 응달 물갈 양지 보서리 개다리 심올랐다 이럼서 이렇게 계속 중얼대면서 들이 멕이는 거예요.

조사자: 개금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이태순: 우닥닥딱 깨금나무

조사자: 피나무는?

이태순: 예 피나무는 이제 칼로 찔렀다 피나무 이제 이러면서

조사자: 칼로 찔러 피나무

이태순: 예

조사자: 그 기억 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그 풀 진짜로 썰고 2등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이태순: 예 스물 몇살이였었는데

조사자: 그럼 50년은 안됐구나 새마을운동

이태순: 예 그때에요 새마을운동

조사자: 근데 그게 기억이 나세요? 하 신기하네 .. 북나무 참나무 그러니까 저기 참나무도 응달밑에

이태순: 응달에는 물갈이 물갈나무가 많이 크고요 양지에는 보서리가 많이 커요 그 떡갈나무이 저 구나무라고 굴피 빳기는 구나무가 많이 살고 그래서 이제 이 이 물갈이나 참나무가 들어오면 아주 응달 물갈 양지 보서리 저 보서리 구나무가 들어오면은 양지 보서리 이제 이러면서 항시도 마음 놓지 말고 이러면서

조사자: 그 조심하라는 소리이죠?

이태순: 예

조사자: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소리죠?

이태순: 예 조심하고 또 딛는 사람도 다리 개다리 심올랐다 이제 다리 힘줘서 쿵쾅 딛으라는 거에요 이제

조사자: 그러니까 힘 주라는 소리는 힘 줘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 어떻게

이태순: 그러니까 이제 물갈 물갈이 들어오니까 힘 줘서 딛으라는 이제 물갈 응달 물갈 양지 보서리 하면 그러면 이제 멕이는 사람이 엮어대면은 이제 딛는 사람은 그걸 알아듣고 힘 줘서 내려밟고 그랬죠

조사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신호에요 그죠 ? 어르신

이태순: 예

조사자: 이 힘을 팍 주는지 무른거 풀이 들어갈 때는 예

이태순: 예 그때는 뭐 무른 풀이 들어오면은 그땐 뭐 그렇게 힘을 안주고 내려 밟아도 잘 잘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나무가 이런 나무가 들어오면 힘을 줘야 그게 잘라져 나가지 안잘려지는건 그래서 이제 나무마다 풀 들어오는 걸 보고 종류마다 다

조사자: 그렇게 신호는 주는구나

이태순: 예 따라서 중얼대면서 이제 풀멕이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내 엮어요

조사자: 내 엮어야돼 아

이태순: 예 그러면 이제 풀 딛는 사람이 그걸 내려다보면서 다리 힘 올려서 내리 밟고 그랬어

조사자: 그러면 어르신 막 정말 7~8명이 작업을 하잖아요 막 막 풀 대주고 메시고 작두 딛고 끌어내고 이렇게

이태순: 그건 한쪽 한쪽에서는 삼태기로 담아서 이 소쿠리에다가 담아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벗어놓고 한쪽에서는 끌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풀을 풀 하루종일 거기다 쌓아놓으니까 엄청나죠 그거 또 한 두사람 이 세사람이 그거 계속 끌어다 날라다 놔야 나르다 줘야 멕여 아 써니까

조사자: 음 그럼 막 소리하고 이러면 뭐 아주 신명날 것 같아요 그게 일이지만 일이 힘들긴 하지만은

이태순: 그럼요 예 거기서 참 그 막걸리 옛날에는 막걸리를 동이로 동이로 해놓고 동이로 갖다 먹고 그랬으니까 술도 얼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노래도 부르니 이제 뭐 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조사자: 예 그럼

이태순: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조사자: 작두 딛는 사람은 뭐라고 소리 안해요?

이태순: 아 딛는 사람도 딛는 사람도 이제

조사자: 뭐 예를 들어 개다리 심올랐다 이러면 딛는 사람이 뭐 뭐

이태순: 예 위에서 이제 멕이는 사람이 뭐 물갈 참나무 들어간다 뭐 황장목이 들어간다 뭐 이러면은 위에서 둘이서 어깨를 메고 작두는 쌍작두를 딛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또 맞춰서 또 뭐라 그러죠

조사자: 뭐라 그래요?

이태순: 예

조사자: 막 맞장구를 쳐주는군요?

이태순: 예 예

조사자: 뭐 뭐 그 저기 강원도 삼척은 보니까 그 풀 써는 소리 보니까 뭐 과타 뭐 이제 과하다고

이태순: 예예 과한 거 알아요

조사자: 예예 과하다고 막 이러고 이렇게 막 그냥 막 뭐라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이태순: 예 그래요 맞아요 이 저 참 말씀하신 대로 이 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위에서 딛기가 힘드니까 과하구나 그러면 위에서도 뭐라고 참 소리를 주고 받고 그래요

조사자: 아 그렇게 하셨구나 아 싸리나무 쪼록싸리는 뭐라 뭐라고 하던가요?

이태순: 쪼록싸리를 음 쪼록싸리 꽂감꼬쟁이라고 하던가

조사자: 광대싸리 쪼록싸리 무슨 싸리가 있죠? 싸리나무 종류가 참싸리

이태순: 광대싸리 있고 또 빗자루 내는 빗싸리 있고

조사자: 빗싸리

이태순: 또 저 곶감꼬쟁이하는 그 참싸리가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조사자: 어휴 사장님 바쁘셔요?(주방에서 부르는 소리)

이태순: 아 머릿고기 써냐고

조사자: 아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태순: 네 알았어요

5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이장 이태성(남, 69세)

조사자: 연세는?

이태성: 저는 47년생이에요

조사자: 지금 고사리 이장님 맡고 계세요?

이태성: 예

조사자: 그럼 저기 인제 순대국 어르신보다도 더 아래시군요

이태성: 동갑이죠

조사자: 거기 거기 예순아홉이라고 하시던데

이태성: 아 이제 우리나이론

조사자: 동갑이군요 사촌이세요?

이태성: 사촌이야

조사자: 저기 저 서홍회장님하고는

이태성: 거기도 사촌형님이고

조사자: 아 거기도 사촌이에요?

이태성: 예

조사자: 아 그럼 아버지가 형제들이시군요?

이태성: 그렇죠 아버지 형제들이죠

조사자: 그럼 저기 할아버지가 아들을 몇남매를 두신 거에요?

이태성: 아 그러니까 아들 5형제 딸이 둘이였다던데 살아계신 분이 한분이셔가지고 그니까 5남1녀죠

조사자: 5남1녀?

이태성: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조사자: 그 그러면 지금 고사리는 인제읍이잖아요

이태성: 인제읍이죠

조사자: 그러면 저기 이장님도 태어나시기는

이태성: 저기 태어난 데는 기린이야

조사자: 기린 궁동

이태성: 예 북3리

조사자: 북3리 .. 그리고 서홍으로 가셨어요?

이태성: 이제 그 형님은 거기로 가시고 여기 사시다가 거기로 가시고

조사자: 예 이장님은

이태성: 우리는 이제 여기와 살고

조사자: 아 그러면 기린면에서 이쪽으로 오신 거에요?
이태성: 예
조사자: 고사리로?
이태성: 예예
조사자: 몇 살때 오신거에요?
이태성: 그때 뭐 6.25 휴전되고 바로 왔으니까 52년정도
조사자: 아 수복된 다음에 들어오셨군요?
이태성: 예예
조사자: 1952년 ?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러면 50 60 한 63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그러면 어려서 왔네요 여기
이태성: 어려서 왔지
조사자: 고사리에 그때 왔을 때 수복되서 왔을 때 와가지고 그 이후에 풀 했었습니까? 여기도?
이태성: 아 풀은 해기는 했었어요
조사자: 예 아
이태성: 근데 그때 풀 풀
조사자: 그때 퇴비증산 해가지고
이태성: 풀멕이는 소리가 좀 단순해요
조사자: 예
이태성: 그니까 그 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조사자: 어차피 이 작두에 들어가는게
이태성: 예예
조사자: 이 싸리나무가 지금 나왔지만 좀 있다가 싸리나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태성: 그렇죠 예 나무에 들어오는 게 달라 가지고 이제 그 소리 하는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조사자: 그래서 그게
이태성: 그 저 연한 거 하고 그 이제 큰나무 들어하는거 하고 그 차이
조사자: 그 차이 그 좀 기억나시는대로 좀 해주시면 왜 인제읍 고사리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장님이 해주시는 거는 예
이태성: 글쎄요 그게 뭐 허허 이제 큰게 큰 나무가 들어오면 이제 우러리라고 그러고 그 큰 나무가 들어오면 우러리요 하면서 이제 다리에 힘 줘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덩굴같은 게 오면은 뭐 덩쿨이라 그러고 덩쿨덩쿨 이제 거기에다가 본래 큰 나무가 섞이면은 우러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국수대나무라고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은 이제 국수대나무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 좀 연하고 이런 거는 뭐 지렝이갈빗대 그리고 이제 신탁나무가 들어가면은 무당이났구나 신탁나무 들어간다 뭐 뭐 그런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조사자: 이게 원대리꺼랑 조금씩 다릅니다 지렝이 갈빗대다 이런건 조금 비슷한데 우러리하고 이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네요

이태성: 뭐 이제 그런식으로 나무에 들어가는 거 뭐 우다닥 뚝딱 개금나무 들어간다 뭐 이제 나무에 따라가지고 이게 조금씩 바뀌는거죠

조사자: 그러면

이태성: 그러니까 고걸 가지고 그 나무가 종류가 매 고거니까 고거가지고 이렇게

조사자: 그 이장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기 그 개금나무 지금 말씀하셨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 다음에 나무종류

이태성: 신탁나무

조사자: 신탁나무

이태성: 예 이제 무당이 난다고 무당이

조사자: 신탁나무는 어떻게 생긴게 신탁나무에요?

이태성: 신탁나무라고 그 있어요 나무가

조사자: 있어요? 신탁나무

이태성: 예예

조사자: 개금나무 신탁나무 또 또

이태성: 국수대

조사자: 국수대 나무

이태성: 또 이제 뭐 쑥대 큰게 들어가면은

조사자: 쑥대

이태성: 뭐 빵대 우러리요

조사자: 빵대 우러리요 아 또

이태성: 그래봐야 이제 뭐 연한 풀들은 이제 뭐 지렝이 갈비대다 이렇고

조사자: 갈 갈나무 들어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이태성: 갈나무는 뭐 그렇게

조사자: 신갈 뭐 뭐

이태성: 신갈나무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그냥 크면 우러리야 하고

조사자: 아 우러리 저거는 저 저기 저 싸리나무는

이태성: 그런게 가느니깐 그게 그런거 갖고 그 지렝이 갈비대다

조사자: 아 싸리나무 뭐 뭐

이태성: 예예 가는게 들어가면 지렝이 갈빗대 이제

조사자: 뭐 저기 저 쪼록싸리 광대싸리 이름이 엮음이 있지 않던가요?

이태성: 그런거는 뭐 엮어서 하는 거는 없고 그것도 다 그전에도 누가 좀 이렇게 저거하면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면은 이렇게 엮어 하는데 그런게 없이 그냥 하니까

조사자: 그래도

이태성: 엮어서 하는 거는 뭐 별로 못들었어요

조사자: 그래도 신탁나무 이런거 재미있는데요 재미있는데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리고 저기 그 나무도 있었습니까? 피나무나 북나무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태성: 피나무는 저 저기 쿡 찔러 피나무 뭐

조사자: 뽕나무도

이태성: 그것도 이제 뽕나무는 방귀 방귀꼈다 뽕나무

조사자: 방귀꼈다 뽕나무

이태성: 예

조사자: 그리고 뭐 소나무

이태성: 소나무 뭐 이런 거는 안치더라고요

조사자: 아 안해요 아 아 안들어가고

이태성: 그리고 그저 퇴비하고 이럴 적에는 소나무 같은 거는 거의 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비로는

조사자: 예

이태성: 그 상품성이 없으니까

조사자: 아 퇴비로는

이태성: 네

조사자: 퇴비로는 여기 고사리에서는 제일 많이 했던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이태성: 여기가 제일 많은게 저기 굴나무죠

조사자: 굴나무?

이태성: 네 굴참나무

조사자: 아 굴참나무

이태성: 네 그리고 여러가지

조사자: 음 굴참나무가 많았군요

이태성: 예

조사자: 아 굴참나무도 이렇게 어린순들 얘기하는 거죠? 너무 큰거는 못하고

이태성: 그니까 저기 어느정도 크면은 그 낫자루 정도 그래서 저 큰게 들어가면은 큰게 들어간다고 우러리요

조사자: 우러리요 굴참나무에서

이태성: 예 나무 큰거는 아무거나 종류에 따라 크면은

조사자: 예예

이태성: 우러리라고 그랬죠

조사자: 그리고 어 풀을 빨리 미처 못댔을 때

이태성: 그럴때는 막 크게 한 소리가 없더라고요 빨리 못 놓을 때는

조사자: 노천이요 이런 말은 없었죠?

이태성: 아 노천이요 해요 예예

조사자: 여기도 고사리도 노천이요 했어요?

이태성: 예예 예 빨리 놓으셔라고 노천이라고 그 소리를 해요

조사자: 아 노천이요

이태성: 그게 어딜 가나 다 비슷할 거에요

조사자: 아 고거는 비슷하고 그 그 작두 들어라 하는 거는 뭐

이태성: 그 그거는 못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는

조사자: 뭐 뭐 아가리 딱딱 벌려라

이태성: 아 아 예 그거 있어요

조사자: 그렇게 말해요?

이태성: 예

조사자: 아가리 딱딱 벌려라하고 개다리

이태성: 개다리 힘 줘라

조사자: 개다리 힘 줘라 … 개다리 힘 줘라… 풀은 아까 이제 국수대랑 쑥대랑 쑥이랑 그저 저 풀 풀은 뭐 잡풀이 다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태성: 그쵸 그 그러니까 나무 나무종류는 다 베는 거예요

조사자: 그래도 요 고사리에서 그때 거름에 들어갔던 풀종류가 이름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이태성: 아이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갈동나무죠

조사자: 이게 제일 많았고?

이태성: 예예 뭐 그게 지금도 제일 많으니까

조사자: 그리고 거름으로도 이걸 알아줬습니까? 굴참을?

이태성: 그렇죠 그니까 그 침엽수는 그 거름이 안되고 활엽수 종류는 다 되는거니까

조사자: 아 활엽수

이태성: 예예 그리고 무슨 뭐 저기 그 저기 억 억새같은 거 이제 그런거 다 풀은 있는 종류 다 베는 거예요.

조사자: 아 활엽수라도 지금 보면 그 떡갈나무 같은 건 잎이 넙적넙적 하잖아요

이태성: 예

조사자: 그런 거를 많이 쓰셨습니까?

이태성: 그니까 그게 여러가지가 섞여 들어가니까 다 혼합이 되서

조사자: 아 혼합이 되서 아 그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개금나무 신탁나무 국수대 쑥대 우러리 피나무 뽕나무 굴참나무 아가리 딱딱 벌려라 뭐 개다리 힘 올랐다 요거를 한번 조금 요 저기 저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 까지 옛날에 하듯이 우러리야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하듯이 한번만

이태성: 근데 다른 데하고 다 비슷할 거에요

조사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태성: 아 노천이요 아 우러리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 빵대 우러리요 아 엉쿨덩쿨 아 칼로 찔러 피나무 방구꼈다 뽕나무 어 우러리 들어간다 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 양다리 힘 줘라 빵대 우러리 들어간다

조사자: 신탁하고 개금나무

이태성: 아 무당이 났구나 신탁나무 들어간다

조사자: 또 개금나무

이태성: 아 우다닥 뚝딱 개금나무다

조사자: 개금나무 우다닥 뚝딱 개금나무

이태성: 딱딱 깨서 먹는다고 이제

조사자: 갈 갈나무는

이태성: 그거는 뭐 그건 특별히 없고

조사자: 특별히 없고

이태성: 그냥 크면 우러리라고 하고

조사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하신 고 그런식으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야 우다닥 딱딱 개금나무 이러면 딛어야지 이제 그 다음 소리 또 하죠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그죠?

이태성: 내 이 저 적엔 다 이게 박자가 맞으니까

조사자: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태성: 한번 퍽 해보면 이제 퍽 소리 나면은 다시 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안아들어가고

조사자: 그럼 풀을 저기 메 메시는 사람 멕인다고 그래요 메신다고 그래요?

이태성: 멕이는 사람이죠

조사자: 풀 멕이는 사람이 소리를 해요 아니면 풀을 옆에서 놔 갈라주는사람이 해요?

이태성: 멕이는 사람 같이해요

조사자: 같이해요 그냥?

이태성: 예예

조사자: 멕이는 사람이

이태성: 놓는 사람도 이제 큰 걸 보면은 우러리다 그러면은 멕이는 사람도 우러리 들어간다

조사자: 우러리 들어간다

이태성: 예예

조사자: 멕이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이태성: 그렇죠 그게 그전에는 뭐 술도 드셔갖고 뭐 손도 자르고 뭐 그랬죠

조사자: 그래서 뭐 야 조심해라 뭐 이런 말 안해요?

이태성: 뭐 그런거는

조사자: 그런건 없어요?

이태성: 예

조사자: 그러면은 아 그럼 하여튼 뭐 야 지렝이 갈비대다 지렝이 갈비대를 안하신 것 같은데

이태성: 했어

조사자: 지렝이 갈비대다 이러면 딛는 사람이 어이 한다던가 이런 소리 해요?

이태성: 근데 그런 그니까 이제 딛는 사람이 소리는 안하고

조사자: 그냥

이태성: 예예 그니깐 거기서 하면은 지렝이 갈비대는 이런거는 연한 거니깐 힘을 덜주고

조사자: 우러리다

이태성: 우러리다 하면은 큰 거니깐 힘을 콱주고 그러는 거에요

조사자: 힘 주면서 뭐라고 힘 쓰는 소리

이태성: 아 아 안해요 그런건

조사자: 어이 뭐 이런거 안해요? 아 그니까 이제 그게 딛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태성: 그렇죠 딛는 사람을 위해서 신호를 미리 주는 거죠

조사자: 우러리라고 그러면

이태성: 큰거다 이제

조사자: 힘을 줘야 되고

이태성: 예

조사자: 근데 보일텐데 안보이나

이태성: 보이는 건 보이는 건데 여러가지를 해갖고 한아름씩 들어가니까 막 말려 들어가는 거죠

조사자: 아 그러면 이 메시는 사람이나 풀을 놔주는 사람은 손으로 잡으니까 그게 우러리인지 뭔지 딱딱한지 아는데

이태성: 예예

조사자: 딛는 사람은 막 풀에 막 쌓여있으니까

이태성: 그렇죠 그리고 고개를 내려다보고 딛는게 아니라 이렇게 딛는 거니까

조사자: 그러니까 그게 신호 신호를 안주면 모르네요 정확하게 안보이네요

이태성: 그렇죠 네네 고개를 내려다보고 할 수는 없잖아 계속 하는 거니까

조사자: 그리고 이렇게 막 넣다보면 풀이랑 나무랑 막 섞여서 막 들어가니깐

이태성: 그렇죠 예예

조사자: 아하 난 보면 되지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호를 이렇게 알려 알려주는 거다 이래서 보면 될텐데 왜 이렇게 말로 하나

이태성: 아니죠 벌써 한번은 푹하면은

조사자: 예

이태성: 이걸 들어 올려 놔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넣는 사람이 이제 신호를 하면서 넣는 거죠 크면 큰거 적으면 적은거 부드러우면 부드러운거 이렇게 하니까 딛는 사람이 강약을 맞추는 거죠

조사자: 아 고사리도 이장님 저기 그 저기 했습니까 저기 작두 다 썰고 나가지고 작두 막 끌고 다니면서 마당에

이태성: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안했어요 그거는 못봤어요

조사자: 작두 막 놀리고 이런 건 안했군요

이태성: 아 난 안했어요

조사자: 여기도 7~8월에 하시죠? 퇴비

이태성: 7~8월 이죠

조사자: 7~8월에 하면 퇴비하기 위해서 사고도 나지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고사 같은건 안해요?

이태성: 안했어요 그런거

조사자: 그런 거는 안하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풀짐 지고 내려올 때 막 이후 하고 그런 소리 지르고 그런건 없었어요?

이태성: 소리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조사자: 풀 지러 올라갈 때 지게 작대기 치면서 소리 안하셨고

이태성: 예예 그게 이제 각자 한 군데를 때 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 사방에 가서 지고 오는 거니까

조사자: 여기는 뭐 산이 이렇게 다닥다닥 있어서 멀리 안가도 되네요 그죠?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그냥 가까운데 가도 되니까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고사리에서 그러면 풀 많이 했던 골은 어디어디 지명이 어떻게 돼요?

이태성: 골은 뭐 그냥 뭐 그래도 호수 많은 데가 많이 했으니까 그 이제 순깨라는 데하고 1반

조사자: 예 순깨

이태성: 그리고 여기 여기 동네는 텃말

조사자: 여기 텃말은 지금 몇반이 돼요?

이태성: 2반이요

조사자: 2반이 되는 거고 그러고

이태성: 그게 그래보다 저 위로 하기는 했는데 제일 많이 한데가 이동네에요

조사자: 순깨하고 텃말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러면 순깨는 그 고사리는 1리 2리가 아니고 고사리죠?

이태성: 그냥 고사리요

조사자: 그럼 지금 현재 몇개 반 ?

이태성: 3개 반이에요 마을은 4개 마을이고

조사자: 아 3반은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 지명으로

이태성: 피아시

조사자: 피아시 아 아까 막 간판에 피아시 피아시 써있는데 피아시 그 다음에 한

이태성: 저 저기 위에가 장수터

조사자: 장수터 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을 많이 한 곳은 순깨하고 텃말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러면 그때 풀 할 당시에 순깨는 한 몇호나 있었습니까?

이태성: 흠 한 열몇집 됐을꺼야 한 열집 됐어요

조사자: 열집?

이태성: 열 다섯집 됐겠네
조사자: 열다섯집 그 다음에 텃말은
이태성: 여기가 한 50호
조사자: 어이고 여기가 훨씬 더 컸네요?
이태성: 그전에는 뭐 2개리였다는데
조사자: 아하 여기가 텃말이 옛날에 풀 할 때 한 50호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 다음에 피아시
이태성: 거기는 뭐 호수가 얼마 없었고 한 열집 있었나? 그리고
조사자: 예예 장수터
이태성: 장수터가 한 한 열집
조사자: 그렇게 있었군요
이태성: 예
조사자: 그러면 품앗이로 풀어야 할 때는 순깨는 순깨 사람들끼리 하고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텃말은 텃말사람들끼리 하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이장님 그럼 여기서 텃말 얘기를 해볼께요 그러면 텃말에서 이제 풀 벤다 올해 풀 베자하면 순번을 어떻게 정해요? 누구집 누구집 이렇게
이태성: 아니죠 본인들이 본인들이 자기 뭐 먹는 거나 이런 거를 맞춰야 되니까
조사자: 예 그렇죠
이태성: 본인들이 정해 가지고 이제 하루만 하면은 그날 거기 온 사람들 끼리 이제 정하는거죠
조사자: 내일은 어디
이태성: 내일은 어디 모레는 누구네 그런식으로
조사자: 아 그렇게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러면
이태성: 그래갖고 두레를 짜는 거죠
조사자: 두레를 짠다 그래요?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그러면 두레를 짤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준비하는거군요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뭐 막걸리도 빚어야되고 뭐 그러니까

이태성: 그전에는 먹는게 지금처럼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게 준비가 되야죠

조사자: 먹는 것이 이제 준비가 먹는 거 준비하는게 일정에 영향을 주는군요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두레를 짤 때 한 몇명이 짭니까?

이태성: 거의 뭐 그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집이면 다하죠

조사자: 예예

이태성: 그러니까 퇴비를 할 집이 그러니까 농사를 뭐 열집이 짓는다 그래갖고 열집이 다하는 건 아니니까

조사자: 예

이태성: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들

조사자: 여유가 있는 집

이태성: 땅이 많고 여유가 있는 집들

조사자: 사는게?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러면 그래도 그 그럼 보통 한 보통 몇 집 정도 되죠?

이태성: 많이 해봐야 한 열집

조사자: 열집정도

이태성: 저 순깨 같은 데는 그냥 한 세네집이

조사자: 아 순깨는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텃골은 많아야 많으면 한 평균 열집

이태성: 예예

조사자: 평균 평균 열집이고 순깨는 서너집

이태성: 예

조사자: 그러면 이제 열집이 한다 그러면 그 작두 써는 사람도 둘이 딛는 쌍작두

이태성: 그러니까 이제 그 품을 하더라도 풀을 안하는 사람도 일당을 받고 와 하면 되니까

조사자: 아 품삯 받고?

이태성: 예 이거는 뭐 여럿이 될 수 있는 거죠

조사자: 아 그거는 두레는 이렇게 짜더라도 실제로 풀을 베는 사람은 더 많은 농사 규모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다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열집 이 사람들 거만 해도 되면 안불러도 되는데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그걸로 모자랄 것 같으면 몇명 더 데려오는 거

이태성: 예예 그리고 다른 일로 해주면 되니깐 뭐

조사자: 그렇지 품이 아니라

이태성: 예예 다른 다른 일로다 해주면 되니깐

조사자: 다른 일로 품앗이를 해주면 되니까

이태성: 예예 그래갖고 최소 한 다섯 여섯명은 되야 되니까

조사자: 그렇죠 그러면 한 열집이 한 열명이 와서 베 오늘 우리 풀을 한다 이러면 그 농사 규모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이태성: 그때 정도는 뭐 많이 해봐야 그저 한 3000평 4000평이에요

조사자: 3~4000평 아 … 논농사도 있었습니까?

이태성: 논농사도 있었어요 논농사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갈 꺾는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있어요 그거 모내기 전에 그때 가서 하는거

조사자: 모심기 하기 전에?

이태성: 예

조사자: 갈 하는건 그건 논에 들어가는 거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러면 이 풀은 지금 밭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태성: 예 그걸 해놨다가 이제 소가 있는 집에는 그 외양간에다가 깔아주는 거지 그래서 같이 해서 퇴비로 만드는 거지

조사자: 퇴비 만드는 거 그러면 고사리에는 그때 이 거름으로 했던 농사가 뭐뭐 있었습니까?

이태성: 그때 당시는 뭐 감자 옥수수 콩이죠 뭐

조사자: 제일 많았어요?

이태성: 그게 주식이죠

조사자: 감자 옥수수 콩

이태성: 예

조사자: 뭐 보리나 밀은?

이태성: 보리는 보리 밀 이런 건 조금 했었고

조사자: 여기는 감자 옥수수 콩이 제일 많고

이태성: 예예 조 뭐 이정도

조사자: 조 … 조…. 그럼 그 거름은 주로 감자 옥수수 콩에 들어가는 거름이죠?

이태성: 그렇죠 밭에다가 내고 소로 갈으니까

조사자: 그러면 몇월에 거름을 냅니까? 7~8월에 해서 쌓아놓으면

이태성: 그 다음해 그러니까 2~3월이죠

조사자: 다음해 2~3월에

이태성: 예 음력으로 2~3월

조사자: 그러면 밭에다가 막 뿌려요?

이태성: 예 지게로 지어다 놓고 거린대라는 걸로 펴고

조사자: 거름대로 펴고

이태성: 예

조사자: 바소고리 같은거 쓰는 거죠?

이태성: 그거는 이제 소쿠리로 저내고

조사자: 거린대 거린대로 이제 펴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 다음에 소로 갈고 소는 두마리 아니면 한마리?

이태성: 여기는 두마리죠 쌍겨리 있을 때

조사자: 쌍겨리라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리나 겨리

이태성: 겨리라 그래 겨리

조사자: 아 그러면 막 펴 펴놓고 거린대로 쭉 펴놓고 그 두 마리로 갈고 그 감자를 놓기 전에 한주먹씩 놔야 되지 않아요? 거름을?

이태성: 그것도 이제 그전에 그거 했죠

조사자: 그죠?

이태성: 그전에 예예 지금 이제 소똥거름

조사자: 그거 소똥

이태성: 예 소똥 거름만 이제 따로 놨다가

조사자: 예

이태성: 그거 손으로 놓고

조사자: 아 그 그 씨앗에 놓는 거름은 소똥거름으로 따로

이태성: 예 보드라운거 나오는거

조사자: 보드라운 거는 따로 해놨다가

이태성: 예예 그러니까 완숙된 보드라운 퇴비들

조사자: 아 그

이태성: 그니까 거친 거는 내펴서 갈고 그 이제 완숙된 거 이제 소똥거름은 그 이제 놔가지고

조사자: 그러면 그 막 풀더미 막 해서 소가 밟기도 하고 소가 먹기도 하는데 그 소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나무같은 건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그래서 거친 거는 그냥 펴는구나

이태성: 예예 그게 이제 그 흙탕물 흘러내리는 걸 방지도 하고 오래 되면 다 썩으니까 거름도 되고

조사자: 그 나무가 거름이 좋습니까?

이태성: 그렇죠 많이 아니 지금은 톳밥으로 해갖고 냈지만 그전에는 그런게 없으니까 통게 나와 썩은 거죠

조사자: 썩을때까지 거름이 되는군요

이태성: 예예 그렇죠

조사자: 아 그러니까 이제 풀 썰기 할 때 나무를

이태성: 아 그리고 밭에 많으니까 이 토사 유출이 덜 되는 거죠

조사자: 그게 막아주는군요

이태성: 예예

조사자: 흙에 흘러내리는 거를

이태성: 예예

조사자: 경사가 심해서 그렇죠?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아 그럼 소똥거름은 봄에 이렇게 예전에 한번 보니까 보드러운 재같이 보드라운 것이 던데

이태성: 예예 그런 거는 이제 퇴비 낼 적에 골라서 따로 싸야죠

조사자: 따로 따로 이제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그러면 아예 감자거름 할꺼 요거는 따로

이태성: 예 그때부터 분리를 해갖고 관리를 하는 거에요

조사자: 분리를 해서 .. 그럼 분리를 해놓은게 감자거름 말고 옥수수

이태성: 옥수수

조사자: 옥수수거름도 콩도 그랬습니까?

이태성: 콩은 뭐 그렇게 못하고요 많으니까 이제

조사자: 감자 옥수수만 그렇게 하는군요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이태성: 그게 그게 거름을 많이 먹는 거니까 식물이

조사자: 예예 음 그래서 소똥거름 해가지고, 그러면 작두 썰 때는 둘이 둘이 딛는

이태성: 여러 사람이 많으면 둘이 밟고

조사자: 둘이 둘이 딛는거

이태성: 예예 적을 때는 혼자 썰고

조사자: 혼자서 하고 그니까 이제 막 풀짐이 엄청나게 많을 때 빨리 해야 될 때는 둘이 합니까?

이태성: 둘이 둘이 하죠 그리고 인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둘이하고

조사자: 그건

이태성: 인원이 적을 적엔

조사자: 아 인원이 적으면

이태성: 혼자하고

조사자: 혼자하고 그걸 쌍작두라고 그랬습니까?

이태성: 쌍작두요

조사자: 둘이 딛는 걸 쌍작두라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러면 할 때 그러면 쌍작두로 할 때는 둘이 딛고 한사람이 메시고

이태성: 예

조사자: 한 사람이 풀 대주고

이태성: 대주는 사람이 뭐 사람이 많으면 여러 명이 해요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사자: 한 몇명정도 됩니까?

이태성: 거기서 넣는 사람이 한 하나당 넣는 사람이 있지 또 한 예비로 풀어주는 사람 끼어주는 사람 넣는 사람 거기가 한 4명은 되지

조사자: 4명은 되고 네 … 앞 작업에 풀썰기 직전까지가 4명이 가네요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다음에 작두에 두명이 되고

이태성: 그러면 6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풀 긁어내갖고 또 올려서 쌓는 사람하면은 최하 적어도 7~8명은 되야지

조사자: 아 그럼 풀 꺼내는 사람

이태성: 또 위에 쌓는 사람

조사자: 쌓는 사람 고게 두명이고 많으면

이태성: 많으면 서이고 너이고 있는대로 다

조사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두가 두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까?

이태성: 예예 뭐 두개씩은 안넣고 하나로 딛는 것만 쌍작두로 해서

조사자: 하나로 쌍작두로 해서 … 그러면 네명 두명 아 이렇게 뭐 작두 딛는 사람도 둘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교대로 하고

이태성: 뭐 이사람들이 매 교대로 하는 거에요

조사자: 돌아가면서 요 팀이 그러니깐 한 7~8명이 보통 7~8명이 한팀이죠?

이태성: 예 뭐 그렇죠

조사자: 아침에 베러가는건 몇시 쯤 베러 가요?

이태성: 아침에면은 뭐 새벽에 날새면 바로 오니까

조사자: 날 새면 바로 가서

이태성: 예예 해가지고 와서 아침 먹고 뭐 참 먹고 뭐 점심 먹고부터는 뭐 썰기 시작하는 거죠

조사자: 보통 한 사람이 몇 짐 정도?

이태성: 많이 하면 다섯 여섯 짐

조사자: 다섯 여섯짐 정도 그러면 점심 먹고는 이제 썰기 시작하는거죠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아 그 여기 그 풀써는 날 막걸리는 무슨 막걸리 해먹었습니까 옛날에

이태성: 그 전에는 뭐 이런데 옥수수 막걸리죠

조사자: 옥수수 막걸리 예예 옥수수 많이 했으니까 그죠?

이태성: 예

조사자: 그 다음에 저기 저거는요 저기 음식 음식은 뭐

이태성: 음식은 뭐 이제 잡곡밥이죠 쌀에다가 이제 뭐 섞어서 혼합미밥 하고 간식은 이제 주로 면 종류 칼국수나 이제 이런 거죠

조사자: 혹시 옥수수 올창묵 같은 거 올챙이국수 같은 거

이태성: 그것도 해먹었고요

조사자: 그때 참으로?

이태성: 예예 올챙이묵도 하고 또 올챙이 칡떡이라고 해갖고 떡도 하고

조사자: 칡떡은 어떻게 만든걸 가지고 칡떡이라고 그럽니까?

이태성: 풋옥수수를 갈아가지고요 거기 칡잎에다가 싸서 찌는 거에요

조사자: 아 그거 찰옥수수 입니까?

이태성: 예

조사자: 찰옥수수 갈아서

이태성: 예 그거야 차지니까

조사자: 그래가지고 칡잎에 저기 싸서 쪄내는 거를 칡떡이라고 하는

이태성: 예

조사자: 요게 이제 풀 벨 때 이렇게 먹는

이태성: 예 먹어 먹을게 없을 때니까 먹을 수 있는건 다 해먹는 거죠

조사자: 그럼 뭐 부치개 막걸리 마실려면 안주가 있어야 되는데 부치기 같은건

이태성: 부치개 같은 거는 크게

조사자: 크게 안하고

이태성: 없어요

조사자: 이 칡떡 하고 올

이태성: 옛날에 참때나 먹으니까

조사자: 옛날에 참 예 올챙이묵 그 다음에 이제 밥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혼합밥 했었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이래도 이게 준비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할 때

이태성: 그렇죠 예 이제 준비를 해갖고 자기네가 이제 뭐 막걸리를 하면은 보통 한 3~4일 4~5일 걸리니까

조사자: 그렇죠 그러면 저기 막걸리는 한 몇 말이나 담궈야지 한 열집이 우리집 풀짐 한 열이나 아홉명 진다 이러면

이태성: 참 못먹어도 한 두 말이상은 해야 될거에요

조사자: 두 말 이상

이태성: 예 거기 먹는 사람도 있고 안먹는 사람도 있고

조사자: 음 그렇게 해가지고 거름으로 내는군요 여기 막 그때 기억하신 소리들 그때 퇴비 막 한창 퇴비증산하고 그럴때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습니까?

이태성: 대회는 그 안나가고요 저런 거는 이제 군에서 풀베기 대회는 했는데 베는 것만 했지 썰고 이런건 안했어요

조사자: 썰고 이런건 안하고 베는 것만

이태성: 양은 뭐 한시간이면 한 20~30분 시간 줘가지고 그 시간동안에 많이 베오는 양을 해가지고 베는 것만 했지 써는 것 까지는

조사자: 아 아까 참 저기 저 순깨 텃말 말씀해주셨는데 텃말 같은 경우 풀 베러 갔던 곳이 어느 어디어디 였습니까?

이태성: 매 요 주변이에요

조사자: 순깨도 그렇고 그냥 주변 산에서?

이태성: 예 주변산이죠

조사자: 그러니까 산이 지금 주변에 산이 많으니까 멀리 가지는 않았죠?

이태성: 그렇죠 이게 뭐 자기네가 돌아가며 해야되니까 그 풀 베는 집 제일 가까운 주변이죠

조사자: 그 집 일하는 집 가까운 곳에

이태성: 예예 그렇게 딴집이 또 하면은 자기네 가까운 데에서 해야 되니까

조사자: 어 그래야지 맞아

이태성: 다 미리 해가면 할게 없잖아요

조사자: 그러니까

이태성: 자기네 집에 가까운 부근에서

조사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장님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그러면 저기나

이태성: 그렇죠 요 집 주변

조사자: 여기는 이제

이태성: 예예

조사자: 우리 집꺼 할 때는 요 주변에 꺼 하고 저 위에 동네 가서 저 저집 할 때는 저 건너편에

이태성: 예예 거기

조사자: 아 그렇게 … 지금 그 작두나 뭐 소쿠리나 그 거린대 같은 거는 하나도 집에 가지고 있는 집들이 없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집이 없죠?

이태성: 거린대는 있는데 작두는 없을 거에요

조사자: 풀은 비료 나오고 안썰었죠?

이태성: 아 70년대 중반까지는 했어요

조사자: 새마을 운동 때도 하긴 했는데

이태성: 그때만 해도 한 80년대부터 없었죠

조사자: 80년대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 70년대 중반까지는 했고

이태성: 예

조사자: 음

이태성: 그다음에 이제 화학비료가 확 나오니까 이제 없어지고

조사자: 하여튼 그 소리가 문서가 이렇게 많은 이런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나무들이 늘 그냥 반복되기 때문에

이태성: 네 그 소리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에요

조사자: 그 소리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냥

이태성: 예 그냥 그냥하면 심심하니까

조사자: 그냥하면 심심하기도 하고

이태성: 예 그리고 이제 그 딛는 사람은 고거 들어온 거를 뭔지 모르니까 이제 뭐 부드러운건 부드러운거 큰거는 큰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조사자: 그니까

이태성: 근데 뭐 다른 것처럼 소리로 되어있는 게 뭐 없죠 다른 거는 왠만한게 다 소리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소리로 되어있는게 없지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조사자: 맞어 그래도 그래도 그 저기 실제로 그 현장은 참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한창 두레 짜서 할 때는

이태성: 예

조사자: 아우 대단했을 것 같아요… 뽕나무.. 오리나무도 있었습니까?

이태성: 오리나무는 그 전에 그렇게 없었어요

조사자: 오리나무는 그전에 없었어요?

이태성: 예예 있긴 있는데 커가지고 이게 오리나무가 그 이제 화전농을 하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많았지 그전엔 그렇게 없었어

조사자: 원대리에 보면 뭐 저기 저기 소태나무도 있고 사시나무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는 소태나무 사시나무 이런 거는

이태성: 소태나무나 사시나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조사자: 둥둥 울려라 북나무… 가래나무

이태성: 가래나무는 뭐 거의 야지로는 없는 거니깐 풀 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사자: 없고 광대싸리 이런 것도 없었고

이태성: 그러니까 싸리나 광대싸리나 뭐 쪼록싸리나 나무는 있는데 그거를 저기 뭐야 넣으면서 뭔 나무다 라고는 안한 것 같애

조사자: 그러니까

이태성: 그거는 좀 연한 거니까

조사자: 근데 풀에 들어가기는 했네요

이태성: 예예 그렇죠 다있죠

조사자: 광대싸리 쪼록싸리 참싸리 다

이태성: 예

조사자: 들어가기는 했고 그 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나무 종류가 기억해 내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태성: 나무 종류는 이제 뭐 다 비슷비슷한데 저기 그 이런 데는 야지로는 박달나무나 그런거는 뭐 저기 별로 적으니까

조사자: 예

이태성: 그런 거는 뭐 잘 안들어가고

조사자: 예 … 제일 흔한 나무가 굴참나무?

이태성: 그게 제일 많은 거에요

조사자: 제일 많구나

이태성: 그게 또 그 베면은 2년 있으면 또 베야되니까 제일 빨리 크는 나무잖아요 굴참나무나 이런게

조사자: 참나무가 참 착한나무이네

이태성: 이 참나무도 종류가 여러가지에요

조사자: 이장님이 말씀 하시는 참나무 종류

이태성: 뭐 그거에요 그게 굴참이라는거는 굴피 뜯는게 굴참이고

조사자: 굴참이고

이태성: 뭐 이제 열매에 따라 다른 거죠

조사자: 상수리

이태성: 상수리가 이제 거기 저기 거기 들어갔어요 상수리라는 것도

조사자: 여기 말로 뭐라 그래요? 상수리

이태성: 그게 그게 그걸 가지고 졸참이라고 그러나

조사자: 졸참?

이태성: 예예

조사자: 도토리는 그게 제일 맛있죠?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졸참 도토리가

이태성: 그냥 그냥 도토리는 참나무라 그러고

조사자: 아

이태성: 그게 이제 그 달라 달라 다르지

조사자: 모양이

이태성: 도토리가 모양이 달라요

조사자: 예 다르던데

이태성: 예 반질반질하고 찔쭉찔쭉 하고

조사자: 그 찔쭉찔쭉한게 그게 맛있는 거죠?

이태성: 그게 이제 묵이 쫄깃쫄깃 한거죠

조사자: 그게?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그러면 그 이제 풀에 들어가는 굴참은 굴참도토리는

이태성: 뭐 그 그 종류가 다 들어가는거에요

조사자: 그러니까 갈나무다 참나무다 하면 졸참 굴참 신갈 떡갈 다들어가는군요?

이태성: 다 합쳐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나무 이름을 대는게 아니라 그 중에서 큰게 들어 가면 우러리

조사자: 우러리다 가는게 들어가면

이태성: 가는게 지렝이 갈비대다

조사자: 여기는 참나무 종류 중에 어느 나무가 제일 많습니까?

이태성: 그냥 그냥 저기 뭐 참나무에요 졸참나무도 있긴 있는데 더러 있어요

조사자: 아 졸참나무도 더러 있긴 하는데 그냥 참나무로

이태성: 예예 그냥 참나무로

조사자: 그 도토리 열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성: 예예 여는데 이제 그 빨갛게 여는 찔쭉한 거는 아직 잎이 남아 있어요

조사자: 잎이 남아 있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참 이게 풀은 이렇고 저기 소리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이태성: 아니에요

조사자: 앞소리 잘멕이신다고

이태성: 이쪽에는 뭐 논매는 소리는 별로 없었고

조사자: 별로 없었어요? 소 두마리로 밭 갈 때는 소리 안하셨어요?

이태성: 그거는 그거는 다 똑같애요

조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태성: 뭐 올래서라 내레서라 뭐 그거죠 뭐 다른게

조사자: 옛날 소리 뭐 소리를 뭐 앞소리를 잘멕이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태성: 아이 아니 그게 잘하는게 아니라 마을에서 어쩔수 없으니까 그거 한거지 뭐 잘하지는 못해요

조사자: 아 그럼 저 그 소리 말입니까? 그 상여소리나 이 소리 얘기하는 거에요?

이태성: 뭐 그런거죠

조사자: 아 선소리 아 회다지나 뭐 이럴 때?

이태성: 아 그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깐

조사자: 그 풍습들이 이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니깐 지금 뭐 상여를 메는 것도 아니고

이태성: 그렇죠 예

조사자: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죠?

이태성: 예

조사자: 아 요즘은 참 저기 그 또 매장도 잘 안하시잖아

이태성: 그렇죠 지금 뭐 다 화장하니까 그게 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조사자: 요즘도 하시긴 하십니까? 그러면?

이태성: 뭐 1년에 한 두 건

조사자: 한두건

이태성: 자기 자기 선산이 있고 뭐 그러면 메다가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귀찮으니까 다 화장해요

조사자: 그러면 1년에 한두건이면 정말 별로 안하는 거죠?

이태성: 뭐 1년에 한두건도 다른데 있어서 그렇지 우리동네는 그렇게도 안해요

조사자: 다른동네?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회다지 여기 근방에서는 그래도 저기 이장님 저기 다른데에서 한다 그래도 인제군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태성: 그렇죠

조사자: 인제군 안에서

이태성: 예

조사자: 그럼 요즘 최근에 하셨을 때 회 다지러 들어가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들어가십니까?

이태성: 여기는 뭐 거의 6명

조사자: 정해져 있군요. 6명

이태성: 예 6명 나중에 끝 끝무렵에는 뭐 나도 들어가도 되니깐

조사자: 상여 안나간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태성: 상여 안나간지가 뭐 한 20년 넘는것 같은데요? 뭐 한 20~30년 돼요

조사자: 1990년?

이태성: 예 그때

조사자: 뭐 90년대 이때? 80년대는 그래도 나가고

이태성: 지역마다 뭐 그 외지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내에서 그 그런거를 잘 몰라요 요새도 초상이 나서 시내에서 그런 습관이 되가지고 그러니까 이동네 왔으면 이동네 하자는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조사자: 예

이태성: 상여를 할라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조사자: 그렇죠

이태성: 예 그러니까 이제 차에다 관 싣고 가면은 그냥 그 뭐 관 들고 관채로 들고 가서 매장하고

조사자: 옛날 그래도 마을마다 그 무슨 집이라 그러죠? 상여 이렇게 넣어놓는 데를 그게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관하는 데는

이태성: 우리동네는 그전에 뭐 상여집이라고 그랬어요

조사자: 상여집

이태성: 예에

조사자: 여기는 참 여기 인제는 그 회다지 할 때 뒷소리가 받는소리가 달구예요? 달회예요?

이태성: 달회 달회로 해

조사자: 에에 에허라 에호리

이태성: 에호리 달회

조사자: 에호리 달회? 아

이태성: 그게 원래 그게 순서가 바뀐건데

조사자: 예

이태성: 원래 회는 미리 다져놓는게 회인데 여기는 그 뒤로 하는 걸 회다지라고 한다 그러죠

조사자: 회는 횟가루 들어가서 다지는 걸 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태성: 예 그게 원래 옛날에는 회다지를 미리 해가지고 밑에다 해놓고 안에 들어가고 판다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그냥 그냥 위에서 흙 밟으면서 회다지 한다 그래요

조사자: 그럼 앞소리 사설은 주로 무슨 사설을 많이 씁니까?

이태성: 그거는 뭐 거의 다 비슷해요 하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배웠느냐 회다지 소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어느걸 자기가 배웠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조사자: 이장님은 저기 주로 즐겨 쓰신 주로 하는게

이태성: 노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내놓지를 못해요

조사자: 아유 왜

이태성: 응급조치지

조사자: 응급조치… 응급조치가 오리지널인데 그래도 저기 그래도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셨을거 아니에요?

이태성: 듣고 그냥 대충해서 찍어다 붙이는거죠

조사자: 아 동네 동네에서 배우신 겁니까?

이태성: 네 근데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배우신 분이 아니라 그 양반도 그냥 듣고

조사자: 그러니깐

이태성: 그냥 찍어다 붙이는 거지

조사자: 옛날부터 귀로 듣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자꾸 듣다보니까 소리 주는 걸 자꾸 듣다보니까 그게

이태성: 그렇죠 그게

조사자: 저절로 외워져서

이태성: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대충 생각나는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조사자: 그때 들었던 거를

이태성: 아유 아니야

조사자: 그럼 몇 그 처음 앞소리 하실 때가 몇 살 때? 선소리 준게

이태성: 한 40대?

조사자: 40대? 아 40대 쯤 … 그 상여소리도 선소리 줘보셨습니까?

이태성: 그렇죠 뭐

조사자: 상여소리도 주고 회다지 소리도 선소리 줘보고 뭐 저기 정월달에 농악치고 고사반 하고 그런적은 없었죠? 고사소리 하고

이태성: 우리동네는 그 그 그런거 없었어요 농악

조사자: 그런거 없었죠 … 산판같은 건 많이 안했어요? 여기 산이라서

이태성: 산판은 했는데 산판도 외지사람이 와 해가지고

조사자: 뭐 동네사람들이 목도 하거나 운재 하거나 이런 거는

이태성: 그런 거는 뭐 쪼금 했는데 그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조사자: 목도소리 운재소리 좀 했을 것 같애요 산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태성: 그러니까 이제 그 목도소리는 저기 경상도 이쪽이 잘하고

조사자: 그쪽이 잘해요?

이태성: 예예 이쪽에는 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조사자: 이 상여소리 달구소리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없거든 특히 이장님 연배에서는 못해 그 기억도 안나

이태성: 아 그거를 그거를 응급조치라도 안했으면 못하죠

조사자: 회다지소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잘 안부르시죠?

이태성: 에이 안하죠

조사자: 안하죠 실제 현장을 가야지 나오는

이태성: 근데 그게 거의 보면은 그게 옛날에는 그게 거기에 따라서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상여소리는 회심곡쪽으로 하고 회다지소리는 한 몇가지 돼요

조사자: 궁금한데 이 인제소리는 어떤지 궁금한데

이태성: 인제도 특별한 건 없고

조사자: 아니 그니깐 여기 여기 더 궁금한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문서에 착착 나와 있는 걸 막 하신다면 아 그런가보다 하는데 들은 대로 한다 이러니까 더 궁금해요

이태성: 아 그거에서 중간중간 빼먹고 가는 거죠 연결이 안되고 막 건너뛰고 그러는 거죠 아 저기 원대리 심홍규씨도 잘하시잖아

조사자: 잘하셔요?

이태성: 그 양반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전부터 하셨고 젊어서부터… 그 회다지소리는 뭐 여러

가지에요 답산가 그거 백발가 해가지고 한 몇가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기억하는게 어느거냐가 일단 사람마다 다르니까

조사자: 그 노래 사설이 예를 들어 답산가가 될지 백발가가 될지 그건 그 분위 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냥

이태성: 아 그거는 아주 그렇게 나와져 있는

조사자: 정해져 있는?

이태성: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가사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조사자: 예

이태성: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호흡이 빠르니까 빠르게 가고 노인네들은 오래하면 숨이 차니까 느리게 가고 그 차이죠 뭐 같은 노래소리 가지고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렇죠 그 차이죠

조사자: 회다지 들어가면 보통 처음에는 긴소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태성: 아니 우리 여기 이쪽으로는 그거 제대로 하고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조사자: 예

이태성: 그렇게 처음에 긴 소리를 안해요

조사자: 그냥 그냥 바로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냥 그냥

이태성: 그냥 보통소리로 해요

조사자: 보통소리 뭐 그러니까 긴소리 자진소리 구분하는게 아니라 그냥 회다지 소리 이러면 보통 그냥 그 소리로 그냥 그렇게 하는

이태성: 예예 그냥 막회 가서는 여럿이 모여 막 튀니까 이제 빠른 소리가

조사자: 엄청 빨라지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그러면 그냥 그냥 그 보통 보통 소리로 하다가 마지막에 막회에 가서

이태성: 예예

조사자: 자진소리로 확 몰아서 그냥 끝내는 거군요

이태성: 예예

조사자: 아 저기 그 횡성은 막 춤을 추듯이 이렇게 막대기로

이태성: 그 춤은 원래 그렇게 흥이 나가지고 해야되는데 여기는 우리 여기 인제군에는 거의 그거 맞춰서 하는 동네가 없어요

조사자: 예 그렇죠 그렇게 정말 무용하듯이 그렇게 하죠. 저 상여 나가기 전에 말멕이놀이라는건 없었습니까? 옛날에

이태성: 말멕이놀이라는게 이게 나가기 전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하는 거죠

조사자: 출상 전날?

이태성: 예

조사자: 저녁에?

이태성: 예

조사자: 그 어떻게 노는 걸 말멕이놀이라 했습니까?

이태성: 아유 작대기에다가

조사자: 예

이태성: 거 이게 장난하는거에요

조사자: 네 그러니까 예예

이태성: 근데 이제 그 지금은 바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상여틀을 전날 저녁에 그 이제 착 꺼내놓는 거지 그걸 해놓고 이제 초초라고 해가지고 그거 소리하는 거 연습하는 거에요 시켜 가지고 그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루하니까 그 짱대 거기 그 거기 끄트머리에다가 그 이렇게 방울 있잖아요?

조사자: 예예

이태성: 그걸 달아가지고 사돈네들 거기다 막 태워가지고 장난하고 그런거에요

조사자: 아 그걸 말멕이놀이라고

이태성: 그걸 말멕이놀이라고 하는 거죠 장대 끝에다가 방울 달아 놓으면은 사람이 들어 올리면 이렇게 들리잖아 거기다가 사람을 여기 넣어가지고 드는 거죠 그러면 말 타듯이 되니까

조사자: 그럼 말 타는 것처럼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렇구나 나는 말멕이놀이가 신기하다 했더니

이태성: 그게 그래요 놀이라는게

조사자: 이게 큰 대틀말입니까?

이태성: 아니 그 옆에 가는거

조사자: 한번 여기에

이태성: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원틀이

조사자: 원틀이 몇개나 가죠? 이장님?

이태성: 보통 여기는 여 여섯개죠

조사자: 여섯개

이태성: 여기 이렇게 큰 나오는 거

조사자: 아 이게 여섯개?

이태성: 예

조사자: 이 큰 건 대 틀은 두개잖아요 그쵸?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여섯개
이태성: 예예
조사자: 여섯개가 가면 그러면 그
이태성: 요거를 하나 빼가지고 장난하는 거에요
조사자: 아 그럼 요거 요거를 하나 빼가지고
이태성: 예예
조사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긴 작대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방울을 달아요?
이태성: 거 저 우리가 흔드는 방울
조사자: 이 요령 요령
이태성: 요령이죠 그걸 달아갖고
조사자: 요령 그 앞소리 줄 때 흔드는 거
이태성: 예예
조사자: 요령을 여기다가 달아놓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이태성: 예
조사자: 그리고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태운다면
이태성: 여기 여기다 태우는 거죠
조사자: 가운데?
이태성: 예
조사자: 가운데 이제 태우고 어디로 들어요 그러면
이태성: 여기 앞만 드는 거에요 앞만
조사자: 앞을? 아
이태성: 예 앞을
조사자: 여기 방울 있는 쪽을?
이태성: 예 여기 앞만 들면 덜렁 들리니깐 말타는 게 되는 거죠
조사자: 그럼 이게 이제 막대인데 여기가 앞이면 달아놓으면
이태성: 여기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드는 거죠
조사자: 이렇게 드는 거네
이태성: 예 그럼 말 타는 것이 돼죠
조사자: 말타는게 되네 그래서 말멕이놀이다 그러면 소리 맞추는 건 어 어떤
이태성: 그거는 뭐 소리는 초초라 해갖고 그 상여소리 연습하는 거에요

조사자: 예 이 말멕이 하면서?

이태성: 초초라 그래갖고 그거를 하고 나서 심심하니까 장난을 하는 거에요

조사자: 그 저기 상주들 잡아다가 상주 중에 뭐 하여튼 저 호상일 때 많이 하죠?

이태성: 그니까 거의 그거는 이제 그 사돈들 장난을 많이쳐 사돈들

조사자: 그러니까 직접 상주들은 슬프니까

이태성: 네 상주들은 못해요

조사자: 못하니까 사돈을

이태성: 예 그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냐면은 상여 멜 사람들이

조사자: 예

이태성: 그 이제 장난을 하는 거에요

조사자: 상여꾼들이

이태성: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옛날에는 뭐 그르지 않아도 주지만 뭐 막걸리도 내오고 안주도 내오고 해서 먹는 거죠

조사자: 여기는 저기 뭐 상여꾼이랑 행상꾼 상두꾼 말 말이 지역마다 다른데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태성: 여기는 뭐 상여 메는 사람이라 그래요 뭐 원래는 상두꾼이라고 그러죠

조사자: 상두꾼 상여 메는 사람을 상두꾼이라 한다

이태성: 예

조사자: 고사리하고 원대리하고 이 산 이 고개 넘어인 것 같애요 그죠?

이태성: 여기는 저 능선을 경계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상동이야

조사자: 어디

이태성: 인제읍 상동리. 경계가 여기 산 능선이 되는 거에요.그리고 저기 앞에를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는 원대리이고 이쪽으로는 남북리

조사자: 남북리 그렇게 되는군요

이태성: 예

조사자: 일하시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태성: 아 아니에요 일하다가 비가 와 가지고 지금

조사자: 그 저도 오면서 여쭤보는 건 비가 오는 날씨가 좋거든요 아니면 바쁘셔 가지고 근데 이장님 강가에 자리 잘 잡으셨네요 바로 이 물 많이 나면 걱정 안되세요?

이태성: 여기 생기고는 아직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는데

조사자: 물 큰 피해 없었습니까?

이태성: 예 여기는 이제 저쪽으로 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사자: 아 여기 여유가 좀

이태성: 저기서 이렇게 X자로 가기 때문에

조사자: 예 아이고 그래도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요? 너무 좋은 곳에 자리를

이태성: 근데 원래 지금은 좋은데 옛날 같으면 집터가 아니죠. 아 그니까 옛날에는 수해가 나면 은 피해가 많은 거에요. 옛날 노인네들이 그러잖아요 그 세가지 가까운데는 피해라고

조사자: 예 어떤

이태성: 삼불근은 피해야 된다고. 도로 가까운 곳, 산 가까운 곳, 물 가까운 곳은 피해야 된다

조사자: 아

이태성: 아 그러니깐 위험한 곳은 다 피하라는 얘기죠

조사자: 그리고 물이 엄청 좋다 이게 내린천인가요?

이태성: 내린천이죠

조사자(보조): 우와

이태성: 내린천이에요 저기 홍천 내면에서부터 오는 건데

조사자: 이장님 서울이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이태성: 이제는 서울이 뭐 이제 생활권인데요 뭐

인제 풀써는소리

인쇄 2015년 12월 28일
발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인 남덕우 인제문화원 원장
기획인 백창현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글 김진순 강원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발행처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TEL 033)461-6678

편집제작 도서출판 산책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둑길 23
TEL 033)254-8912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인제문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도 ·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